

경기도

【문화유산 편】

역사여행





중학교 자유학년제 활용 교재



【문화유산 편】

경기도 역사여행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중학교 자유학년제와 경기도 문화유산과의 만남!

○ 2016년부터 시행된 자유학기제는 2017년부터 자유학년제로 확대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꿈과 끼를 찾아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시행된 자유학년제는 지역과 학교의 상황에 따라 여러 형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하여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안내하여 학교 수업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한편 경기도에서는 경기 천년에 즈음하여 도민들에게 경기도의 정체성을 찾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경기도민으로서 자긍심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에 대한 애정을 갖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하여 수많은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경기도에는 많은 인물과 소중한 문화유산이 있고 오늘날에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 본 집필진은 2017년부터 『경기도 역사여행』을 발간하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경기도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17년에는 첫 시도로 『경기도 역사여행-인물 편』을 발간하여 중학교 현장에서 자유학년제 교재로 그리고 역사 수업의 부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경기도의 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두 번째 『경기도 역사여행』을 발간했습니다.



○ 문화유산은 우리 민족이 살아오면서 창조한 유형·무형의 자산입니다. 이 책에서는 건조물, 조각, 공예품 등의 유형 문화재와 민속놀이 등의 무형 문화재, 그리고 고분이나 성과 같은 기념물과 함께 경승지와 천연기념물까지도 함께 학생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히 경기도에 속한 모든 시군의 문화유산을 골고루 소개하여 사람이 사는 곳에 문화가 있고 그 문화에는 높고 낮음의 차이가 없다는 인식을 심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보나 보물, 국가 지정 사적이 아니더라도 경기도의 문화적 정체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문화유산을 네 가지 테마로 선정하였습니다.

첫째는 경기도의 생활문화를 보여 주는 유산입니다.

둘째는 경기도를 지키고 우리나라를 지킨 관방 유적입니다.

셋째는 경기도민의 사상과 종교를 보여 주는 유산입니다.

넷째는 개성 역사지구와 함께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한 유산입니다.

○ 이 책이 자유학년제의 교재로 활용되어 학습을 통해 경기도 학생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문화유산에 담긴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역사, 문학, 철학 등의 인문학적 감성은 물론 과학적 지식과 예술에 대한 감성을 키워 스스로 문화를 창조하는 경기도민이 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단원

경기도의 생활문화 유산

- 1차시
그릇으로 보는 경기도 사람의 멋 **옹기와 백자** 12
- 2차시
집으로 보는 경기도 사람의 생활 **양반 가옥** 26
- 3차시
삶을 즐길 줄 아는 경기도 사람 **민속놀이** 40
- 4차시
영원한 이별에 대처하는 경기도 사람 **왕릉과 사대부의 묘** 54

2단원

경기도의 나간수호 유적

- 5차시
중국과 맞선 고구려의 용맹 **고구려 성곽** 70
- 6차시
삼국 통일을 이룬 신라의 저력 **신라의 성곽** 84
- 7차시
외적에 맞서는 경기도 사람의 지혜 **처인성과 봉수제** 98
- 8차시
전쟁을 극복한 경기도 사람 **조선 성곽** 112



3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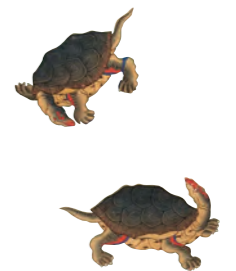
경기도의 사상과 종교 유산

- 9차시
부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다 **불교사찰** 130
- 10차시
학문을 닦는 목적을 묻다 **향교와 충의각** 144
- 11차시
소박한 기원이 담긴 민간 신앙 **성황제와 산신각** 158
- 12차시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 **기독교 근대 유산** 172

4단원

경기도의 평화와 통일 유산

- 13차시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경기도 사람 **천연기념물** 190
- 14차시
아름다운 경관을 사랑하는 경기도 사람 **경기도의 명승** 204
- 15차시
다시는 되풀이 말아야 할 전쟁의 기억 **6·25 전쟁 전적지** 218
- 16차시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북한의 문화유산 **개성 역사지구** 234



이 책의 구성과 특징

전체 구성은 소개, 생각 열기, 문화유산 속으로, 생각 나누기, 생각 더하기, 현장 체험 학습 안내 등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 소개

해당 단원의 이야기에 나올 문화유산을 각 시군의 상징 캐릭터가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이야기 속 문화유산을 친근하게 느끼고, 우리 시군의 상징 캐릭터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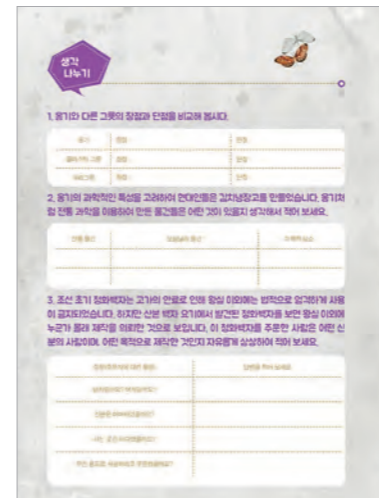
◆ 생각 열기

문화유산과 관련된 경기도의 지역, 인물, 관련 문화유산 등을 '네 컷 만화'와 글을 통해 구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이 단지 과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생활에 가까이 있다는 단서를 흥미롭게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문화유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문화유산 속으로

세 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주제에 따른 경기도의 문화유산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유산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내용부터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그 문화유산을 만들고 향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삽화와 사진을 사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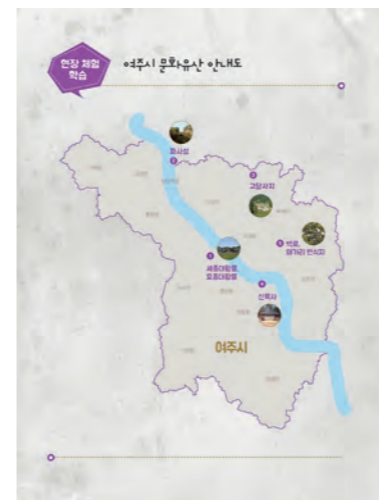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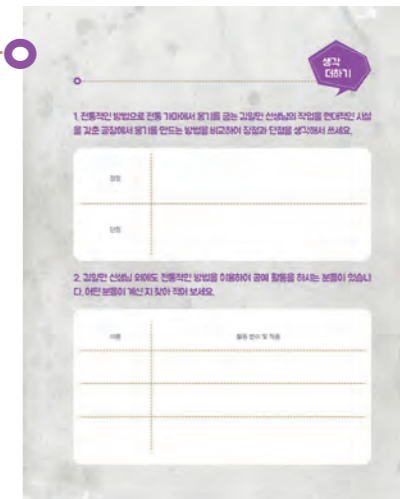


◆ 생각 나누기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토의, 토론을 중심으로 한 모둠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을 어떻게 바라볼지 스스로 고민한 후 친구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활동 중심의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 생각 더하기

단지 과거의 유산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가치와 미래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활동 주제를 제시함으로써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현장 체험 학습 안내

문화유산이 소재한 각 시군별 대표 문화유산을 소개하였습니다. 지도와 글을 통해 소개함으로써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장 체험 학습 계획을 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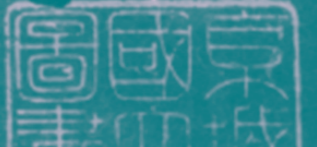


경기도의 생활문화 유산

- 1차시
그릇으로 보는 경기도 사람의 멋 용기와 백자
- 2차시
집으로 보는 경기도 사람의 생활 양반 가옥
- 3차시
삶을 즐길 줄 아는 경기도 사람 민속놀이
- 4차시
영원한 이별에 대처하는 경기도 사람 왕릉과 사대부의 묘



32967



경기도의 생활문화 유산



1차시

그릇으로 보는 경기도 사람의 멋



여주 이포리 옹기가마입니다.



여주시 캐릭터 청돌이와 백돌이.

군포 산본동
조선백자 요지입니다.



군포시 캐릭터 화니.



생각 열기

우리나라 최고의 그릇을 뽑는 대회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 최고의 그릇이라고 생각하나요? 사람마다 보는 기준이 달라 각자가 생각하는 최고의 그릇은 다양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보통 어떤 쓰임새와 기능을 가졌느냐의 실용성과 모양이나 문양의 아름다움인 심미성으로 그릇을 판단합니다. 그 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도 하지요. 또한 만들어진 재료, 만들어진 시기, 만든 사람에 따라서도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경기도의 사람들이 어떤 그릇들을 만들어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그릇이 우리들의 생활을 어떻게 바꾸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다.

문화유산 속으로 이야기 하나

그릇

오늘 여러분이 사용한 그릇은 어떤 것이 있나요?

밥그릇, 국그릇, 접시를 이용하여 차려진 아침을 먹은 친구도 있을 것이며, 보글 보글 끓고 있는 뚝배기 속의 된장찌개를 먹고 온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점심 급식을 받는 식판도 그릇이고, 물을 마실 때 사용하는 종이컵이나 스테인레스 컵 역시 그릇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매일 여러 가지 재질로 만든 다양한 그릇을 사용합니다. 그릇은 형태나 쓰임새에 따라 사발, 접시, 잔, 뚝배기, 주전자, 항아리, 솥, 소쿠리 등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그릇을 만드는 재료로 흙(토기와 도자기), 놋쇠(유기), 나무, 유리, 플라스틱, 종이 등이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에 살았던 사람들은 시대에 따라 어떤 그릇을 사용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신석기시대로 가 볼까요?



시흥시 능곡동에서 발견된 빗살무늬토기.

왼쪽 그릇은 시흥시 능곡동에서 발견된 빗살무늬토기입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한 공사 도중에 발견된 신석기시대 유적에서는 빗살무늬토기 7기가 발굴되었습니다. 뽀족하면서도 크기가 다양한 이 그릇들은 어떤 쓰임새를 가졌을까요? 먹을거리를 채집하거나 보관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조리하는 데에도 사용했겠지요? 그런 빗살무늬토기를 보니 구멍이 4개가 보이는군요. 박물관에 전시된 빗살무늬토기 중에는 이렇게 구멍 뚫린 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구멍은 어떤 쓰임새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멍은 깨진 토기를 수리했던 흔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토기가 깨지자 깨진 조각에 구멍을 뚫고 끈을 끼워 묶은 자국이라고 하지요. 여러분들은 이 구멍을 왜 뚫었다고 생각하나요?



여주 혼암리에서 발견된 무문토기.

이번에는 청동기시대로 가볼까요? 왼쪽에 보이는 토기는 여주 혼암리에서 발견된 무문토기입니다. 무늬가 없다는 의미의 무문토기는 평평한 바닥에 빗살무늬토기보다 그릇의 두께가 얇습니다. 하지만 질 좋은 흙을 사용하여 높은 온도에서 구웠기 때문에 빗살무늬토기보다 더 단단합니다. 자세히 보면 토기의 아가리 둘레에 작은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멍은 빗살무늬토기의 구멍 같은 수리 흔적이 아니라 모양을 내기 위한 무늬로 새긴 것이라고 합니다.

오산 수청동 목판묘에서는 청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청자가 발견된 곳은 백제시대의 무덤입니다. 삼국시대에는 아직 청자가 만들어질 때가 아닌데 어찌된 일일

까요?

이 청자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을 백제의 중앙 세력이 수입한 것입니다. 지금도 일부 부유층에서는 명품이라는 이름의 고급 수입 제품을 사용하며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백제의 귀족들도 중국에서 수입한 청자를 사용하며 자신의 권위를 내세웠을 것입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을 백제의 중앙 세력이 수입한 것.

안성맞춤이라는 말을 알고 있나요? 조건이나 어떤 상황이 잘 들어맞을 때 안성맞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놋그릇을 만드는 안성의 유기장들이 품질과 모양 등 모든 면에서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유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상인들이 유기를 사기 위해 안성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지금도 김수영 선생님이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 보유자로서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반 위에서 빛나는 유기들.



한편 광주에는 조선 왕실에 백자를 만들어 진상하는 분원이 설치되었습니다. 광주분원은 한양에 가깝고 백자를 만들기 좋은 백토와 땀감이 풍부했으며, 만들어진 백자를 편리하게 운반할 수 있는 남한강 유역에 위치했습니다. 땀감인 소나무가 떨어지면 가마를 옮겨야 했기 때문에 광주에는 300여 곳의 가마터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경기도 사람들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그릇들을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이포기 옹기가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김치를 비롯하여 비빔밥, 불고기, 가래떡, 송편, 식혜 등을 떠올릴 것입니다. 전통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 재료가 된장, 고추장, 간장 등 장류입니다. 우리 속담에 “음식 맛은 장맛”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지요. 장이나 김치를 보관하는 데 사용하는 대표적인 그릇이 옹기입니다. 옹기는 숨을 쉬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옹기는 작은 알갱이가 섞인 점토로 만드는데, 가마에서 만들어질 때 미세한 구멍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 입자보다 작고 공기 입자보다 큰 이 구멍으로 공기, 미생물, 효모가 통과되어 음식의 발효를 돕습니다. 또한 온도, 습도 등이 조절되어 발효 식품을 썩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나 유리그릇에 담긴 김치나 장은 땅에 묻은 옹기에 보관하는 것과는 달리 쉽게 맛이 변합니다. 그래서 맛으로 유명한 전통 음식점은 여전히 옹기를 사용하며, 김장을 한 후 땅에 묻어 보관합니다. 또 현대인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김장독의 원리를 이용하여 김치냉장고를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필수적인 그릇으로 사용되던 옹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식생활의 변화로 김치나 장류를 집에서 만드는 사람들이 줄어든 것도 옹기를 찾지 않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옹기의 사용량이 줄어들고 가스가마를 이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옹기를 대량생산하는 현실에서 여전히 전통적인 방법으로 옹기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96호 옹기장 기능보유자인 김일만 선생님입니다. 김일만 선생에게 옹기 제작은 5대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가업家業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부친을 따라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자랐는데 15살 때부터 옹기 제작 기술을 배워 25살 때부터는 옹기를 직접 만들고 굽는 일을 인정받았으며, 1980년에는 옹기점을 개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옹기점 경영이 어려워져 아들과 손자 등 가족들로만 옹기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옹기 제작 방법과 옹기를 굽는 방법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전통 장작가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의 작업장은 여주 이포리에 있는데 사용하는 가마

는 조선 말기부터 내려오는 3기의 전통 가마입니다. 제일 큰 가마를 ‘대포 가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마는 각각 ‘작은 대포가마(되통 가마, 반오지 가마)’와 ‘시루가마(단 가마, 질가마)’라고 부릅니다. 대포가마는 대략 1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원래 이 가마는 바닥의 길이가 40미터가 넘었으나 점차 옹기 일이 줄어들면서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윗부분을 잘라내 현재는 25미터입니다. 대포가마와 작은 대포가마는 20~30도 경사진 언덕에 위치하며, 가마 밑 부분이나 옆 부분에 있는 문을 통해 옹기를 넣어 굽습니다. 천장에 있는 작은 화구(창솔 구멍)를 통해 나무를 넣어 가마 전체의 온도를 일정하게 조절하므로 가마가 길어도 동일하게 옹기를 구울 수 있으며, 경사진 언덕에 가마를 짓기 때문에 경사 기울기 그 자체가 굴뚝 역할을 하여 자연스럽게 온도가 올라갑니다. 길이는 약 7미터의 시루가마는 주로 곡식을 찌는 시루를 굽기 때문에 시루가마라고 합니다. 시루는 잿물을 입히지 않고 구워서 잿물을 발라 굽는 오지옹기와는 달리 반짝반짝하는 광택이 없습니다. 이 3기의 전통 가마는 상태가 양호할 뿐만 아니라 각기 규모와 용도가 특징을 지니고 있어 소중한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2002년 10월에 경기도 민속자료 1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가마가 문화재로 지정된 바로 그해 11월 김일만 선생은 경기도 무형문화재 옹기장으로 인정되었으며 2010년에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96호 옹기장 기능보유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여주 이포리 가마의 화구. 사용할 때는 뚜껑을 열어 구멍에 나무를 넣어 온도를 조절한다. 평소에는 습도 조절을 위해 뚜껑으로 닫아 놓는다.



문화유산
속으로
이야기 셋

군포 산본동 백자요지

경기도 군포시 산동2동 골안마을. 대한주택공사가 이 지역을 택지 개발로 개발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벌였는데 백자유지, 즉 백자를 굽던 가마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가마에서는 무늬가 없는 백자가 가장 많이 나왔으며, 적은 양이지만 음각, 양각, 철화 등 거의 모든 종류의 백자와 청자, 분청자, 토기, 옹기 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가마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광주 관요 이외의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청화백자 3편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비록 적은 양이지만 청화백자의 출토는 무척이나 중요한 사실로 여겨졌습니다. 순백자에 푸른색 안료로 각종 문양을 그린 청화백자는 코발트 안료가 워낙 비싸 광주 관요에서만 당시 최고의 도화서 화가들이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사용하는 계층도 왕실 이외에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산본동 가마에 청화백자를 제작하도록 하였을까요? 조선 왕실은 왕실의 존엄, 상하 신분의 구별, 사치 생활의 경계 등을 이유로 1466년부터 왕실과 관청에서만 백자를 제작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양반들의 백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백자 잔을 선물로 주고받는 것이 유행하였으며, 중국산 청화백자를 몰래 수입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양반들이 사용하였으나 부유한 상인들과 백성들까지 백자를 사용하면서 수요가 많아져 조선 관요가 아닌 지방의 가마에서도 백자와 청화백자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산본 백자 요지에서는 갑발이 사용되지 않고 포개 굽는 방법이 사용되는 지방 가마의 생산적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개 굽는 방법은 갑발을 사용하여 도자기를 굽는 방법에 비해 많은 양을 구울 수 있고 비용이 적게 들지만, 포개 굽는 부분이 달라붙지 않도록 모래나 받침을 사용하므로 그릇의 바닥과 윗부분에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산본 백자 요지에서 출토된 자기의 파편을 보면 포개어져 구워진 채로 출토된 백자 사발과 청자, 표면에 받침자국이 있는 접시 등을 볼 수 있습니다.



표면에 받침자국이 있는 그릇.

▲ 갑번(甲釜) ▲ 상번(常釜) ▲ 예번(例釜)

갑번 : 갑전이라고도 하며 그릇에 불이 직접 닿지 않고 가마 안의 불순물이 묻지 않아 고급 자기를 구울 때 사용. 갑발 제작이 어렵고 상번에 비해 많은 양을 굽지 못해 비용이 많이 든다.

상번 : 그릇을 여러 개 포개어 쌓아 굽는 방법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만 그릇에 받침 흔적이 남아 품질이 떨어진다.

예번 : 바닥에 그릇을 1개씩 놓고 굽는 방법으로 적은 양만 구울 수 있으나 소량 제작이며 흔적이 남지 않아 중급품을 만들 때 사용한다.

자기를 가마에 굽기 위해 쌓은 방법.

1990년 발굴 조사에서 15세기 말~16세기 전반에 운영된 가마가 확인되었고, 1993년 발굴 조사에서는 조선 전기 가마터 옆에서 18세기에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 가마가 확인되었습니다. 조선 전기의 가마는 산의 구릉 중심에 위치하여 자연적인 구릉을 이용한 가마입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의 가마는 전기의 가마를 폐기하고 방향을 거의 직각으로 틀어 구릉의 왼쪽 사면을 이용해 축조하였습니다. 이렇게 좁은 지역 내에서 하나는 구릉의 위쪽 방향으로 하나는 구릉의 옆쪽 방향으로 가마가 축조된 것은 매우 특이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국가 지정 사적 제342호로 지정되어 보전되고 있지만 아는 사람들도 없고,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이 적어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국가 지정 사적 제342호로 지정된 군포 산본동 백자요지.

생각 나누기



1. 옹기와 다른 그릇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봅시다.

옹기	장점 :	단점 :
플라스틱 그릇	장점 :	단점 :
유리그릇	장점 :	단점 :

2. 옹기의 과학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현대인들은 김치냉장고를 만들었습니다. 옹기처럼 전통 과학을 이용하여 만든 물건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서 적어 보세요.

전통 물건	오늘날의 물건	과학적 요소

3. 조선 초기 청화백자는 고가의 안료로 인해 왕실 이외에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산본 백자 요지에서 발견된 청화백자를 보면 왕실 이외에 누군가 몰래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청화백자를 주문한 사람은 어떤 신분의 사람이며, 어떤 목적으로 제작한 것인지 자유롭게 상상하여 적어 보세요.

질문(주문자에 대한 물음)	답변을 적어 보세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신분은 어떠하였을까요?	
사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무슨 용도로 사용하려고 주문했을까요?	

생각 더하기

1. 전통적인 방법으로 전통 가마에서 옹기를 굽는 김일만 선생님의 작업과 전기 가마 등 현대적 시설을 갖춘 공장에서 옹기를 제작하는 작업을 비교하여 장점과 단점을 써봅시다.

장점	
단점	

2. 김일만 선생님 외에도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공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계신지 찾아 적어 보세요.

이름	활동 분야 및 작품



1 세종대왕릉, 효종대왕릉

◆종목: 사적 195호
 ◆소재지: 여주시 영릉로 269-50
 ◆세종대왕릉은 제4대 세종대왕(재위 1418~1450)과 소헌왕후 심씨의 합장릉이다. 왕릉은 조선왕조의 능제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능의 하나로서 합장릉임을 알 수 있는 2개의 혼유석이 있고 봉분 둘레에 돌난간을 둘렀으며 12개의 석주에는 12간지를 문자로 새겨 놓았다. 효종대왕릉은 조선 제17대 효종(재위1649~1659)과 왕비 인선 왕후 장씨가 모셔진 쌍릉이다. 효종릉 역시 능역과 푸른 소나무들이 주변에 울창하여 그윽함을 풍기지만 세종릉과 바로 붙어 있어 찾는 이가 적어 사방이 조용하고 호젓하다.



2 파사성

◆종목: 사적 251호
 ◆소재지: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 산9
 ◆파사성 정상을 중심으로 능선을 따라 축성한 파사성은 성벽 등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으며, 둘레는 약 943미터이며 성벽중 최고 높은 곳은 6.25미터나 되나 낮은 곳은 1.4미터 되는 곳도 있다. 천서리를 면한 동문지(東門址), 금사면 이포리를 면한 남문지(南門址)에는 문앵(門櫻)을 세웠던 고주형초석 2기와 평주 초석이 남았고 동문지에는 웅성문지(壘城門地)가 남아 있다. 한강에 연하여 있어 성 일부는 강 언덕에 돌출된 자리를 잡아 남한강의 상하류를 한눈에 관찰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3 고달사지

◆종목: 사적 382호
 ◆소재지: 여주시 북내면 상교리 411-1
 ◆고달사는 신라 경덕왕 23년(764)에 창건되었다고 전하며, 고달원이라고도 하는데 신라 이래의 유명한 삼원(三院) 즉 도봉원(道峰院), 희양원(曦陽院), 고달원(高達院) 중의 하나로 고려시대에는 국



가가 관장하는 대찰이었으므로 왕실의 비호를 받았던 곳이다. 현재 이곳에는 국보 제4호인 고달사지 부도와 보물 제 6·7·8호가 있으며, 이들 석조유물들은 하나같이 넘치는 힘과 호방한 기상이 분출하는 가운데 화려하고 장엄한 기운을 간직하고 있다.

4 신록사

◆종목: 국가지정문화재 8점, 도지정 문화재 7점
 ◆소재지: 여주시 신록사길 73
 ◆신록사는 아름다운 경관과 많은 유물·유적들을 간직 하고 있으며 신라 진평왕 때 원효 대사가 창건했다는 설이 있고, 고려 우왕 2년 (1376)에 나옹 선사가 입적하면서 유명한 절이 되었다. 신록사를 일명 "벽절"이라 부르며 한 다층 전탑이 묵묵히 여강을 굽어보고 있으며 나옹 선사의 당호를 딴 정자 강월헌(江月軒)에서는 그 옛날 시인 묵객들이 시한수를 읊고 있는 것 같다.



5 백로, 왜가리 번식지

◆종목: 천연기념물 209호
 ◆소재지: 여주시 북내면 신접리 285호
 ◆여주 신접리 백로 및 왜가리 번식지에는 약 50년 전부터 백로와 왜가리가 번식하기 시작했고, 마을에 있는 약 400년 된 은행나무에서 집중적으로 번식해 왔다. 그러나 이 나무가 말라 죽으면서 약 40년 된 참나무에 번식해 왔는데 이 나무 역시 배설물의 피해로 말라 죽었다. 약 8년 전부터 죽은 나무들 대신에 아카시아 나무와 소나무를 심어 이곳에 번식시키고 있다. 우리 선조들은 "백로가 들면 마을이 부유해진다."고 믿어 마을의 백로를 극진히 보호해 왔다.





1 조선백자 도요지

◆지정번호: 사적 제 342호
 ◆소재지: 경기 군포시 산본동 147
 ◆조선 전기에 백자를 구웠던 곳이다. 가마는 땅을 파고 흙으로 양 벽을 쌓아 올린 터널식 칸 가마이며, 물레 작업장과 백토 저장시설, 온돌 구조가 남아 있고 가마터 발굴 과정에서 청화백자편 등 많은 도기 조각이 출토되었다. 조선백자 도요지는 조선 전기(15세기 말 ~ 16세기 전반) 지방 백자요지로서 거의 완벽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백자 제조를 위한 가마터이다.



2 정난종 선생묘 및 신도비 외 묘역일원

◆지정번호: 시도기념물 제 115호
 ◆소재지: 경기 군포시 숙달동 39-1
 ◆조선 세조 때 명신인 정난종 선생을 비롯한 후손들의 묘가 아래로부터 산등성 중턱까지 차례로 조성되어 있다. 묘역에는 각각의 묘에 대한 혼유석, 상석, 향로석, 장명등, 석등, 동자석, 문인석 등이 갖추어져 있고 정난종과 차자 광필의 신도비와, 장자 광보의 묘갈명이 있어 고미술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3 전주이씨 안양군묘

◆지정번호: 시도기념물 122호
 ◆소재지: 경기 군포시 산본동 산27
 ◆연산군의 이복동생이며 성종의 삼남인 안양군 이행은 갑자사화 때 연산군의 생모 윤씨 폐출에 어머니 귀인 정씨가 관여되었다는 이유로 어머니, 동생 봉안군과 함께 사사된 인물이다. 묘역에는 혼유석, 상석, 향로석, 묘표와 동자석, 망주석, 문인석과 신도비 등의 석조물이 세워져 있으며 규모는 약 300여 평으로 연지, 사당 등을 포함하고 있다. 1990년에 경기도 기념물 제122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4 김만기 선생묘 및 신도비

◆지정번호: 시도기념물 131호
 ◆소재지: 대야미동 산 158-3
 ◆김만기 선생은 『구운몽』의 저자로 유명한 서포 김만중의 형이며 숙종의 장인이다. 김만기 묘역과 신도비는 지금의 군포시 대야미동 산 1-12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앞 왼쪽에는 묘표가 있고 오른



쪽 앞에는 숙종 어필의 묘표가 있다. 중앙의 대형 분묘는 8개의 호석에 둘러싸여 있고 앞쪽으로 묘표와 8각의 망주석, 문인석이 각각 조성되어 있다. 김만기 묘역과 신도비는 1992년에 경기도 기념물 제131호로 지정되었다.

5 이기조 선생묘

◆지정번호: 시도기념물 121호
 ◆소재지: 군포시 산본동 산1152-11
 ◆조선 인조 때 문신인 이기조 선생의 묘는 원래 경기도 장단에 있었다가 1672년에 산본으로 이장하였으나 다시 산본신도시가 개발되면서 1992년 현재의 이곳에 이장하여 부인 신씨와 합장하였다. 이 유적은 현재 경기도 기념물 제121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6 방짜유기장

◆지정번호: 시도무형문화재 제 10호
 ◆소재지: 군포시 군포로 8
 ◆방짜유기는 구리와 주석을 10대 3의 비율로 배합하여 만든 놋쇠이다. 경기도 무형문화재인 김문의 선생은 이곳에서 전통적인 방짜유기 기술로 주발, 쟁반, 화로, 촛대, 향로, 깡과리, 징 등을 만들고 있다. '88서울올림픽 개막식에 사용된 바라는 바로 김문의 선생의 작품이다. 방짜유기란 유기합금의 일종으로 구리와 주석을 10대 3의 비율로 배합하여 만든 놋쇠를 말한다.



7 동래정씨 동래군파 종택

◆지정번호: 문화재자료 제 95호
 ◆소재지: 경기 군포시 숙달로110번길 20-11
 ◆동래정씨 동래부원군 증가는 조선 중기의 문신 정광보(鄭光輔, 1457~1524)가 이 마을에 들어오면서 지은 건물이다. 그는 파시조(派始祖)인 동래군(東來君) 정난종(鄭蘭宗, 1433~1489)의 큰아들로서 이 가옥의 맞은편 산 중턱에 정난종의 묘를 돌보기 위해 이 마을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생활문화 유산



2차시

집으로 보는 경기도 사람의 생활

광명시 아원의 유적입니다.



광명시 캐릭터 광이와 명이.



부천 고강동 청동기 유적입니다.



부천시 캐릭터 판타와 시아.



생각 열기

미래의 주택을 체험하는 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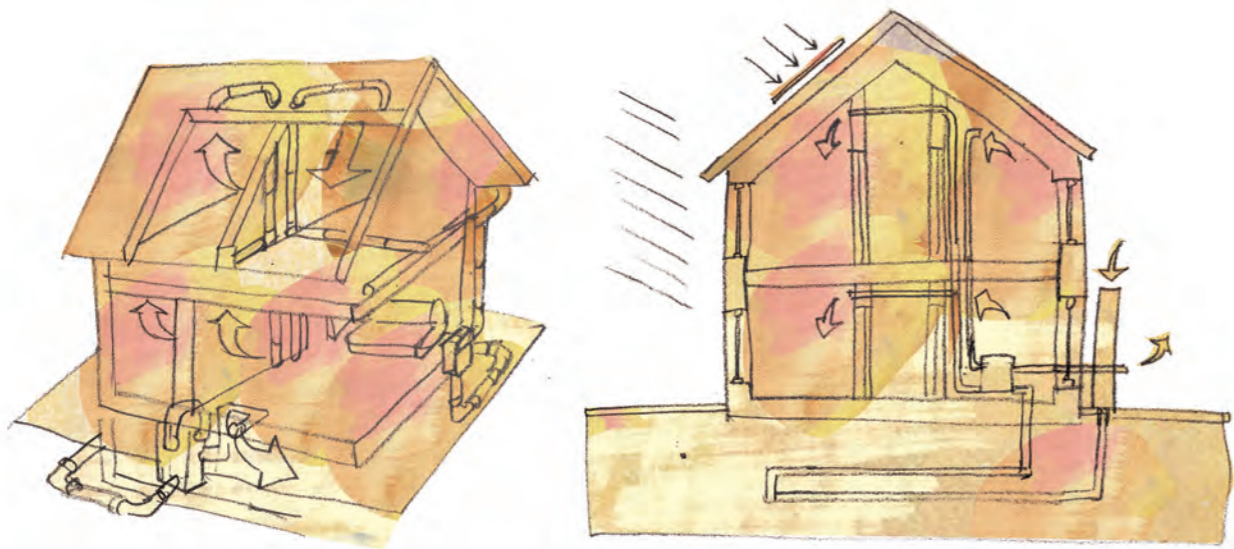
집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즉 추위와 더위, 다른 동물로부터의 위협을 피하기 위한 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자 좀 더 편안한 휴식 공간을 추구하게 되고,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에 편리한 위치(교통이나 직장, 문화시설 등)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집은 어떤 조건을 갖추는 방향으로 발달하게 될까요? 미래의 집은 인간이 얼마나 가사 노동에서 벗어나 많은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가지느냐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냐의 조건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사람들은 어떤 집에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집을 발달시켜왔는지 알아보시다.

문화유산
속으로
이야기 하나

내가 생각하는 좋은 집이란?

2015년 11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우리나라 전체 주택에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74.5퍼센트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많이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시의 인구밀도가 높아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동주택을 많이 지은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은 물론 편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인식도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좋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이 아니라 호텔에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호텔이 여행자들이 잠시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집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등에 시간과 돈을 들이지 않아서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돈을 아주 많이 가져야 하겠죠?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한 패시브하우스의 원리.

최근에는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패시브하우스라는 집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패시브하우스는 첨단 공법을 이용하여 에너지의 낭비를 최소화한 집입니다. 패시브하우스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의 정면을 남쪽으로 향하게 짓고 남쪽에 크고 작은 창을 많이 냅니다. 이렇게 하면 태양

의 빛과 열에너지를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의 벽과 지붕은 외부의 열을 차단할 수 있도록 첨단 단열공법을 사용하여 짓습니다. 그리고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신선한 바깥공기를 내부 공기와 교차시켜 온도차를 최소화한 다음 환기함으로써 열 손실을 막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난방장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따뜻하고, 여름에는 냉방장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시원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집의 형태뿐만 아니라 집 주변의 환경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 3번의 이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맹자 어머니한테 좋은 집이란 맹자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집이겠네요. 우리나라에도 현대판 ‘맹자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 환경이 좋다는 곳의 집값이 다른 지역보다 비싼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편 교통 및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지방보다 수도권, 농촌보다 대도시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도 일하는 직장이 가까이 있고, 교통이 편리하며, 다양한 문화시설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복잡한 도시를 떠나 한적한 전원생활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도시 인근에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예 생활 터전을 시골로 옮겨서 한적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파주 출판도시를 코디네이트했던 건축가 승효상 씨는 ‘좋은 집’이라는 시에서 집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승효상에게 좋은 집이란 편리함보다는 생각이 머물 수 있는 집인 것 같네요. 여러분은 어떤 집이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세요? 경기도 사람들이 살았던 여러 집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좋은 집
승효상

집은 불편할수록 좋다.
문만 열면 한 번에 해결되는 아파트식 공간은
편리함을 주는 대신 ‘생각’을 없앤다.

나가서 대문을 열어 주고
신발을 신고 뒤뜰로 나가 흙을 밟고
수돗가에서 발을 씻고
마당에서 불을 지피며
빗자루로 쓸고 닦으면서
‘생각’이란 걸 하면서 살 수 있는 집

그런 집이 좋은 집이다.

문화유산
속으로
이야기 들

고강동 청동기 유적지

청동기 시대 경기도 사람들의 집터로 유명한 것이 부천시 고강동 청동기 유적지입니다. 유적이란 과거의 인류가 남긴 생활문화의 흔적이 있는 터전으로 형태가 크며 위치를 변경시킬 수 없는 것으로 집터나 무덤 등이 대표적인 유적입니다. 유적은 땅속에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일부는 땅 위에 드러나 있기도 하고, 물속에 잠겨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무덤과 같이 처음부터 땅속에 마련된 것도 있지만, 원래 땅 위에 있었던 것도 모래나 흙, 화산재 등이 쌓여 땅속에 묻히는 수도 많습니다. 따라서 유적을 찾는 데는 고고학자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홍수나 태풍에 의해 땅이 쓸려 내려가면서 땅속에 깊이 묻혀 있던 유적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강동 선사 유적지가 바로 1995년 여름 홍수로 반달돌칼과 돌창 등이 우연히 발견되면서 드러난 유적입니다. 이렇게 발견된 고강동 선사 유적지를 통해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집들을 알아봅시다.

고강동에 살았던 청동기 사람들은 고강동 일대의 풍경이 한눈에 보이는 청룡산 최정상부인 해발 91.6미터 지점에 제사를 위한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이곳에는 제사를 올리기 위해 남북, 동서 각각 6미터의 네모난 형태로 돌을 쌓은 제단을 마련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제사에 사용한 토기가 많이 출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단 주변에는 고리 모양으로 도랑을 팠는데 이 도랑은 사람이 사는 마을과 신성한 지역을 구분 짓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 유적 아래에는 청동기시대 집터 총 21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집터들은 한강 유역에 살았던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 유적입니다. 집터를 살펴보면 대부분 사각형이고 바닥을 깊게 파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신석기시대 사람들이 바닥을 깊게 파고 대부분 원형이나 끝이 둥근 방형의 움집에서 생활한 것과 비교할 때 커다란 차이를 보입니다. 이 집터에서는 반달돌칼, 돌칼, 돌화살촉, 돌도끼, 점토띠토기와 항아리 모양의 토기가 발견되어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돌칼은 1호·6호·7호·8호·17호 집터에서 출토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8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돌칼은 칼날을 여러 차례 다시 갈아서 사용한 흔적과 손잡이 부분에 사용한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어서 사냥한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자르는 등 실생활에서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돌화살촉은 작고 빠른 짐승을 잡기 위해 활을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고강동의 집터에서는 곡식의 이삭을 따는데 사용하는 반달돌칼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청동기 시대 가장 중요한 생활모습으로 농경의 발달을 이야기하는데, 이 유물을 통해 고강동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강동의 청동기시대 사람들은 네모꼴의 집에서 살면서 농경은 물론 사냥과 물고기 잡이를 통해 먹을 것을 마련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날이 되면 신성한 제단에 가서 제사장의 주관하에 간절한 소망을 담아 제사를 지냈을 것입니다.



고강동의 집터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반달돌칼.

문화유산
속으로
이야기 셋

이원익 유적 - 양반가의 품격 관감당

임금이 신하에게 집을 지어 주겠다고 하자 신하가 사양합니다. 다시 한 번 임금이 집을 지어주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자 그 신하는 아예 고향을 떠나 멀리 가 버리겠다고 거절합니다. 임금은 지어 준다고 하고 신하는 한사코 거절하는 이런 이상한 모습은 계속 반복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리고 이 일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일은 지금으로부터 380여 년 전인 1630년 벌어진 인조 임금과 이원익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이원익은 광해군과 인조 두 임금에 걸쳐 재상을 지낸 인물입니다. 임진왜란 때는 명의 장군 이여송과 함께 평양성을 탈환하는 데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인조는 이원익이 1623년 77세의 나이로 관직에서 은퇴하자 잔치를 베풀고, '궐장'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원익이 벼슬에서 물러나 오리동에 살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이원익의 안부가 궁금한 인조가 승지를 보내 살펴보게 했습니다. 이원익의 집을 보고 온 승지는 인조에게 이원익이 비바람이 들어오는 무너져 가는 작은 집에 살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인조는 40여 년이나 재상을 지낸 이원익은 모든 관료의 스승으로 본받아야 할 인물인데 그의 집이 허술해서야 되겠냐며 집을 지어 주겠다고 한 것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신의 집을 짓는 데 백성들을 동원하여 고생시켜서는 안 된다며 거절하는 이원익에게 인조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백성들은 당신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으므로 기꺼이 집을 짓는 일에 참여할 것이요, 또한 내가 청렴한 신하에게 집을 내리는 것을 보고 다른 관료들도 많은 것을 느낄 것이니 거절하지 마시오.” 결국 이원익은 임금의 청을 받아들여 새로 지은 집에 살게 됩니다. 이 집에 인조가 현판을 내려 주었는데 그 이름이 관감당입니다. 관감당이란 신하와 백성들에게 이원익의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 자세를 “보고 느끼게 하고자 한다.”라는 뜻에서 붙여진 것입니다. 이원익 선생은 이곳에서 4년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 이 집은 1637년 병자호란으로 불에 타서 없어졌는데 그의 사후 60주년인 1694년에 다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기엔가 다시 허물어졌다가 1916년 10대손 이연철에 의해 다시 중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감당으로 들어가 조선시대 양반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집으로 들어가는 대문은 솟을대문입니다. 솟을대문이란 집주인이 가마를 탄 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높여 지은 대문으로 지금의 장관급 이상만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집안의 남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바깥채(혹은 사랑채라고도 부릅니다)와 여성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안채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안채는 내부가 드러나지 않는 ‘ㄱ’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효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양반들은 돌아가신 어른들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을 마련하였는데 보통 집의 가장 북쪽 자리에 지었습니다.

현재 이원익이 살던 곳은 13대 종손 이승규 박사와 종부인 함금자 여사가 충현박물관 및 충현문화재단도 함께 설립하여 박물관 운영은 물론이고 지역 사회의 발전과 문화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관감당 바로 앞에는 탄금암이라는 바위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원익 선생이 거문고를 즐겨 연주해서 ‘탄금암’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글을 읽는 선비는 예와 악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악기 하나 정도는 연주할 줄 알아야 진정한 선비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당시 양반들에게 인기 있던 악기가 거문고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연주할 줄 아는 악기 하나 정도는 있겠지요?



이원익의 형인 이원보 묘소, 충현박물관 내에 위치.

생각 나누기



1. 고강동 선사 유적지의 독특한 특징은 제사 유적에서 나타납니다. 고강동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제사 유적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자신들의 소망을 빌었을까요?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 ①
- ②
- ③

2. 관감당은 인조가 이원익에게 내린 집의 현판입니다. 관감당은 "보고 느끼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조는 이 집을 통해 누가, 무엇을 느끼기를 바랐던 것일까요?

3. 이원익은 선조, 광해군, 인조의 세 임금 시기에 모두 신하로서의 가장 높은 벼슬인 영의정을 지냈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나라가 어려운 시기를 백성들을 사랑 하는 마음과 임금에 대한 충성과 자신의 실력으로 극복하였습니다. 또한 청렴하게 살아 조선시대 관리의 명예인 청백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원익이 되어 좌우명을 지어 봅시다.

생각 더하기

1. 이원익은 자손들에게 남기는 유서에서 제사 등 여러 가지 의식 행사를 간소화하여 치르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생활이 그대로 드러나는 글이며, 그의 삶이 항상 일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 말이나 인물이 있다면 적어 보세요.

나의 삶에 영향을 준 말이나, 글 또는 인물.

2. 내가 살고 싶은 집은 어떤 집인가요?

조건	내용
어떤 지역에 지어졌나요?	
어떤 재료로 지어졌나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나요?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나요?	
누구와 함께 살고 있나요?	
이 집만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1 광명농악

- ◆ 지정번호: 시도무형문화재 제 20호
- ◆ 소재지: 경기 광명시 철산2동 222번지
- ◆ 경기농악의 한 종류인 광명농악은 철산동·소하동·하안동 등의 두레농악이 하나로 합쳐져 근대적인 판굿으로 발전된 농악이다. 경기도 광명시는 옛날 경기도 시흥군으로, 이곳에서는 봄철에 마당밧이, 여름철에 두레농악을 크게 쳤고, 호미걸이에서는 마을 판굿을 쳤다고 한다. 놀이의 순서는 내돌림벅구, 당산벌림, 당산돌림벅구, 고사리끼기, 피조리놀이, 쌍줄백이, 절구댕이벅구, 외돌림벅구, 길군악찰채, 외돌림벅구, 가세벌림, 사통백이, 원좌우치기, 네줄 좌우치기, 짹짹이, 굿거리, 사공운놀이, 벅구놀이, 무동놀이, 열두발상모 등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광명농악은 시민농악단이 구성되어 전승에 힘쓰고 있다.



2 광명 영회원

- ◆ 지정번호: 사적 357호
- ◆ 소재지: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산 141-20번지
- ◆ 조선 16대 인조의 첫째아들 소현세자의 부인 민회빈 강씨(1611~1646)의 무덤이다. 강감찬의 19대 손녀이자 강석기의 딸인 민회빈 강씨는 인조 5년(1627) 왕세자빈에 책봉되었다. 인조 14년(1636) 병자호란 때 소현세자와 함께 청나라의 볼모로 가게 되었고, 인조 23년(1645)에 귀국하였다. 그러나 남편 소현세자를 잃은 후, 인조의 후궁 조씨 등이 민회빈이 왕실을 저주한다는 모함을 하여, 1646년 폐위된 후 사사(賜死)되었다. 이후 숙종 44년(1718)에 죄가 없음이 밝혀져 민회빈으로 복위되었다. 무덤의 이름은 민회묘(愍懷墓)라 하였다가 고종 7년(1870) 영회원으로 높였다.



3 오리이원익종택 및 관감당(충현박물관)

- ◆ 지정번호: 시도유형문화재 161호(오리영우), 이원익선생묘 및 신도비(시도기념물 제85호), 문화재자료 제 90호 (오리이원익종택 및 관감당) 등
- ◆ 충현박물관에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청백리 재상인 오리이원익과 그의 직계 후손들의 유적 및 유물이 보존되어 있다. 전시관(충현관)에는 이원익 관련 유물과 자료, 중가의 민속생활 품 등 사대부 집안의 각종 자료가 전시되어 있으며, 야외에는 이원익영정을 모신 사당인 오리영우, 인조가 하사한 집인 관감당, 그의 후손들이 살았던 종택 등이 잘 보존되어 있다. 최근 복원된 풍욕대, 삼상대와 거문고를 연주했던 탄금암, 400년 수령의 측백나무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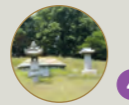




변종인 묘와 신도비



여월동 선사유적



이한규 묘



중동 장말도굿



부천석천농기고두마리



한언 묘와 묘표



한준 묘와 신도비

1 변종인 묘와 신도비

◆지정번호: 부천시 향토문화재 1호
 ◆소재지: 부천시 고강동 산 63-9
 ◆조선 초기의 무신 공장공 변종인(1433~1500)은 부평 흑양리(조선시대에는 부평군 하오정면)였었고 현재는 고강동)에서 태어났다. 변종인의 시호는 '공장'인데 이러한 시호를 내리게 된 이유는 일을 조심스럽게 하고, 임금 섬기기를 공손히 하여 '공'이고 적을 이기고 뜻이 강하므로 '장'이라고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5 부천석천농기고두마리

◆지정번호: 부천시 향토문화재 1호
 ◆소재지: 부천시 부흥로 402번길 36 (심곡동)
 ◆매년 8월 15일에 중동과 상동 일대에서 개최되는 농기고두마리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속의례로, 이웃 간의 화목과 단결을 위해 마을과 마을 간의 농기 쓰러뜨리기 경쟁을 통해 흥을 돋우고 농사로 피로해진 몸과 마음을 달랠다.



2 한언 묘와 묘표

◆지정번호: 부천시 향토문화재 2호
 ◆소재지: 부천시 계수동 산 3-23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계수동에 살았던 한언(1448~1492)은 한명진의 아들이며 영의정 한명회의 조카이다. 어릴 때부터 재능이 뛰어났던 한언은 22세가 되던 해에 진사시험에 장원급제하였고, 높은 벼슬에 올라서도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였다고 한다.



6 여월동 선사유적

◆소재지: 부천시 여월동 산59(여월공원 내)
 ◆부천여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주거지로 해발 약 40미터의 낮은 구릉 정상부에 1기가 위치하고 있다. 주거지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으로 장축 방향은 남-북방향이며 규모는 축 14.9미터, 단축 6.2미터, 최대 깊이는 25센티미터 전후이다. 내부시설로는 화덕(爐址) 5개소와 저장구덩이(貯藏孔), 기둥구멍(柱孔)은 북쪽 벽을 따라 두른 도랑(壁溝) 등이 조사되었다.



3 한준 묘와 신도비

◆지정번호: 부천시 향토문화재 3호
 ◆소재지: 부천시 계수동 산 3-22
 ◆조선 중기의 문신인 한준(1542~1601)은 24세 때 벼슬을 시작하여 깨끗한 정치로 백성들이 좋아하고 오랑캐들까지 깊이 감탄하여 떠났다고 한다.



7 중동장말도굿(경기도당굿)

◆지정번호: 국가무형문화재 제 98호
 ◆지정일자: 1990년 10월 10일
 ◆도당굿은 서울을 비롯한 한강 이북지방과 수원·인천 등지에서 마을의 평화와 풍년을 목적으로 매년 또는 2년이나 그 이상의 해를 걸러 정월 초나 봄·가을에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굿을 말한다. 경기도 도당굿은 경기도 일대의 한강이남 지역에 전해져 오는 마을 굿으로, 지금은 부천의 장말에서만 완전한 형태의 경기도 도당굿을 볼 수 있다. 경기도 도당굿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지만 마을 동산의 소나무 숲속에 300년이 넘는 도당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신 당가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를 통해 대대로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중동의 장말도당집에서 매년 10월~11월 경에 열리는 장말도당굿은 '장씨 마을 사람들이 함께하는 굿'을 의미한다. 마을 공동 제사인 도당굿은 추수감사의 성격과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4 이한규 묘

◆지정번호: 부천시 향토문화재 4호
 ◆소재지: 부천시 여월동 산 55
 ◆이한규(1662~1729)는 조선 중기 사람으로 정2품 도총관, 지중추부사, 창성방어사, 충청수군절도사, 경상우 병마절도사의 벼슬을 지냈다.



경기도의 생활문화 유산



크차시

삶을 즐길 줄 아는 경기도 사람



양주 별산대입니다.

양주시 캐릭터 꾸미.

안성 남사당놀이입니다.



안성시 캐릭터 바우덕이.



생각 열기

탈놀이 공연을 보러온 학생들



말뚝이는 우리나라 탈놀이에서 가장 개성적인 인물입니다. 주로 양반집 하인으로 나와서 양반들의 무능력함과 부패를 조롱하고 고발하지요. 서민들을 대변하는 말뚝이는 해학적이고 거침없으며 풍자적인 대사로 관객들을 울고 웃게 합니다. 이런 말뚝이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연장에서 휴대 전화에 열중하고 있던 중학생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죽하게 한마디 던진 말뚝이의 말에 중학생도 지지 않고 또박또박 말대답을 합니다.

말뚝이는 이 중학생들에게 어떤 시원스런 말을 던져 주었을까요? 말뚝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생각하며 경기도 사람들이 어떻게 문화를 즐겼는지 알아봅시다.

문화유산
속으로
이야기 하나

춤추고 노래하다

“춤추고 노래하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는 무엇이 떠오르나요? 아마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가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대부분 연예기획사에 소속되어 피나는 연습을 통하여 가수가 됩니다. 그들은 주로 젊은 세대들에게 사랑을 받는 가수면서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각종 대중매체를 통하여 자신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없던 수백 년 전 조선 후기 사람들은 “춤추고 노래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우선 판소리를 하는 소리꾼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판소리는 소리꾼 한사람이 북치는 사람의 장단에 맞추어 펼치는 음악극입니다. 내용은 서민들의 삶과 사랑, 권선징악을 다루었지만 드라마적 요소가 살아 있는 극적 구성이 있어 고도의 예술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세기에 활동한 수원 출신의 판소리 명창 한송학이 부른 <홍보가>의 한 장면으로 판소리의 극적인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오장은 육부인데, 놀부는 오장이 칠보요,
어째서 칠보나 하면 심술보 하나가 왼편 갈비 밑에 딱 매달려가고
이놈이 밥만 먹으면 심술을 부리는데 끝도 없이 나오는 것이었다.
늪은 호박에 똥칠하고, 똥 누는 놈 주저앉히고
이 앓는 놈 뺨 때리고, 봉사 보면 개천 물에 밀어 넣고
애 밴 부인네 배를 차고”

어떤 사람은 탈춤을 추는 놀이패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탈춤은 가면으로 얼굴이나 머리 전체를 가리고 다른 인물, 동물 또는 초자연적 존재(신) 등으로 분장한 후 음악에 맞추어 춤과 대사로서 연극하는 것을 말합니다. 봉산탈춤, 양주 별산대, 고성 오광대 등의 탈춤이 있습니다. 주로 탈춤은 마을 축제 때 공연되었습니다. 탈춤의 내용은 힘든 서민들의 생활을 표현하고 있으며 양반과 승려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욕심 많고 무능한 양반을 신분이 낮은 하층 계급이 시원스럽게 비웃으며 욕설을 퍼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지켜보는 공간에서 지배 계층을 비판하는 공연이 신분제 사회인 조선에서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배 계층은 마을 축제 때의 탈춤을 통해 일 년 중 하루만이라도 억눌린 백성들의 마음을 풀어 주었고, 이를 통해 백성들의 불만을 잠재우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신나게 악기를 두드리는 풍물패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풍물은 농촌에서 여럿이 모여 김매기, 모심기 등의 힘든 일을 할 때나 명절 때 흥을 돋우기 위해서 연주되는 음악입니다. 풍물은 음악과 춤을 통해 일의 능률을 올리고 협동심도 함께 북돋았습니다. ‘農者天下之大本(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쓴 농기를 세우고, 팽과리, 징, 북, 장구 등 타악기와 태평소 등 관악기 등을 연주하는데 농악놀이로도 불렸습니다. 현재에도 풍물놀이는 각종 행사의 개막식, 폐막식, 전야제 등에 연주되고 있습니다. 한편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구성의 풍물놀이를 팽과리, 장구, 북, 징의 4가지 악기의 무대 예술로 바꾼 사물놀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연되어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광명 농악.

문화유산
속으로
이야기들

양주 별산대

산대놀이는 산대라는 야외 임시무대에서 하는 공연이라는 뜻입니다. 산대는 산과 같이 거대한 임시 무대를 말하는데 고려시대부터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산대는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고정 산대의 경우 무대의 기둥 높이만 해도 25미터 이상으로 아파트 7층 정도의 높이였으며, 무대 크기도 소규모 아파트가 4채가 들어설 정도의 크기였다고 합니다. 산대는 재사용할 수 없어 해마다 다시 설치했으며, 이 때문에 인력 동원·목재 확보·각종 재료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많은 비용이 들고 설치하다가 사람이 다치는 사고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산대는 언제 설치되었을까요? 대체로 고려시대에는 팔관회와 연등회, 궁중의 새해를 맞이하여 귀신을 쫓는 행사인 나례, 사찰과 관의 행사 때 설치되었으며, 조선시대에도 중국 사신 영접, 연말 나례, 궁의 행사, 국가적 경사와 연회 등에 설치되었습니다. 즉 국가가 주도하는 큰 행사에 사용된 것이지요.

하지만 조선의 인조 때 국가 주도의 산대놀이를 폐지하면서 공연을 하던 연희자들이 생계를 위해 민간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 주도의 산대에서는 가무악과 민속극, 다양한 잡희가 공연되었으나 민간의 산대놀이는 소규모의 야외 가면극으로 운영되었습니다.



1929년 9월 경복궁 조선박람회에서 열린 공연 후 총독부박물관에서 구입한 탈로 현재 서울대학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그중 양주의 '별산대놀이'는 경기지방에 남아 있는 유일한 가면극입니다. 송파장이 설 때 크게 놀았으며, 정월 보름, 4월 초파일, 5월 단오, 7월 백중, 8월 한가위와 같은 명절에도 놀았습니다. 삼현육각(三弦六角 : 피리 2개, 젓대 1개, 해금 1개, 장고 1개,

북 1개)의 음악 반주에 춤과 재담이 어우러지면서도 특히 다양한 춤사위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탈은 모두 32개입니다.

양주 별산대놀이는 앞놀이, 본놀이, 뒷놀이의 순서로 진행하였고, 공연 시간은 제한이 없어 보통 밤 10시경에 시작하면 다음 날 새벽까지 계속되었으며, 그때그때의 흥과 형편에 따라 3~4시간으로 줄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놀이는 마을에서 놀이터로 이어지는 길놀이를 시작으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지신밧기를 겸한 집돌이를 하며 음식을 대접받습니다. 그리고 놀이터에 도착해서 울리는 고사로 끝납니다. 본놀이는 파계승에 대한 풍자, 지배 계층인 양반에 대한 모욕, 남녀의 대립과 갈등, 서민 생활의 어려움 등을 풍자와 웃음으로 표현합니다.



말뚝미와 쇠뚝미는 양반인 선님들을 돼지로 야유하고, 무능한 양반은 돼지우리를 깨끗하고 좋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양반에 대한 야유와 비판은 지배층에 대한 서민들의 비판 의식을 나타낸다.

뒷놀이는 배우뿐만 아니라 마당의 구경꾼들까지 모두 함께 춤과 노래를 즐기면서 유대감을 다지는 대동놀이입니다. 일제강점기 말에 크게 약화되어 명백만 유지하다가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어 8명의 연희자가 예능보유자로 인정되고, 사단법인 양주별산대놀이보존회가 결성되면서 새로운 계기를 맞이했습니다. 양주 별산대놀이는 약 200여 년 전의 서울 지역 본산대놀이를 현지인들이 토착화하여, 현재 본산대가 소멸된 상태에서 가장 오래된 산대놀이의 옛 형태를 이어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속으로
이야기 셋

안성 남사당놀이

남사당놀이는 말 그대로 '남자들로 구성된 유랑광대극'으로서 원래 유랑 예인들이 널리 행하던 전통 민속공연입니다.



남사당놀이

남사당놀이는 크게 풍물 공연, 가면극, 줄타기(어름), 꼭두각시놀음(탈미), 땅재주(살판), 사발돌리기(버나)의 6마당으로 구성됩니다. 남사당의 풍물놀이는 여러 지방의 풍물놀이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을 모아 구성합니다. 이는 남사당이 여러 지방을 떠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재주를 보여 주었던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버나는 버나잡이가 버나를 돌리면서 어릿광대와 재담을 주고받는데, 이는 단순히 묘기뿐 아니라 극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흥미를 더하고자 하였습니다. 줄타기를 어름이라 부르는 것은 얼음 위를 조심스럽게 건듯 매우 어려워서 일컫는 말입니다. 높이 25미터에 설치하는 줄타기는 관객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과 함께 어릿광대와 나누는 재담이 재미를 더해줍니다. 땅재주는 현대의 덩블링과 비슷한 형태의 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이의 6마당 중에서 덧뵈기(가면극)와 탈미(꼭두각시놀음)는 특히 노골적인 사회적 메시지로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희극의 등장인물들은 양반 주인과 저항하는 하인, 늙은 부부와 첩, 속세의 쾌락에 빠져 버린 승려, 끝없는 억압과 착취로 고통 받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극들은 단지 흥미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어려웠던 백성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또 남성 중심의 사

회에서 여성들의 고달픈 삶을 해학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성평등과 인간 존중의 이상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19세기 말 전국의 장터와 마을을 돌아다니며 춤, 노래, 곡예를 공연했던 한 남사당패가 있었습니다. 그 남사당패에는 구경꾼들의 눈을 잡아끄는 줄타기 광대가 있었습니다. 남자들로만 구성된 남사당패에서 유일한 여자였던 '바우덕이'라 불리는 김압덕이 있었습니다. 안성의 가난한 집안 딸로 태어난 바우덕이는 부모를 잃은 후 5살 무렵부터 남사당패 안에서 자랐습니다. 일찍이 줄타기, 무동, 풍물 등 사당패의 모든 기술들을 섭렵한 그녀는 가는 곳마다 출중한 실력으로 인기를 독차지 했으며, 결국 동료들의 인정을 받아 남사당패의 우두머리인 꼭두쇠로 선출되었습니다.



1865년 흥선대원군은 경복궁 중건에 지친 인부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름난 재인들을 불러 놀이판을 펼치게 했습니다. 초청된 바우덕이의 재주에 감명을 받은 대원군은 그녀의 재주에 감탄하며 당상관 이상의 벼슬아치만 받을 수 있는 옥관자를 하사했습니다. 이후 바우덕이가 이끄는 남사당패가 지나가면 다른 놀이패는 깃발을 숙이며 예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이끄는 남사당패는 조선 팔도에 이름을 떨쳤으나 바우덕이는 폐병에 걸려 23살, 꽃다운 나이에 죽고 맙니다.

안성에서는 바우덕이를 기리기 위해 해마다 10월에 바우덕이 축제를 엽니다. 바우덕이 축제 때는 남사당패가 나와 6마당을 공연하고 전 세계의 여러 민속 공연단이 찾아와 축제 마당을 뜨겁게 달굽니다.

생각 나누기



1. 양주 별산대 탈과 역할을 짝지어 보세요.



말뚝이: 양반집 하인으로 양반들의 무능력을 고발.



포도부장: 포도청에서 범인들을 잡는 벼슬아치인데 샌님의 첩을 빼앗는다.



옴중: 옴이 옴은 증으로 파계승이다. 거드름춤을 춘다.

2. 남사당놀이에서 탈춤인 덧보기와 꼭두각시 인형극인 덜미는 다른 놀이에 비해 양반을 노골적으로 비판하여 구경하는 서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 주었습니다. 덧보기와 덜미의 어떤 점이 다른 놀이와 그런 차이점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Blank white box for writing an answer to question 2.

생각 더하기

1. 옛날 서민들이 즐긴 놀이에는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비판 없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건전한 비판을 통해 사회는 잘못된 점을 고치고 발전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에서 고쳐야 하는 불평등한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사회의 불평등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2. 사회의 불평등을 풍자와 해학으로 비판하던 남사당놀이때에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인 바우덕이는 남성 중심의 남사당놀이때에 들어가 온갖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로지 실력으로 우두머리인 꼭두쇠에 올랐습니다. 오늘날 차별을 극복하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둔 여성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내가 찾은 여성	그의 활동
오프라 윈프리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성추행을 당하는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세계적인 토크쇼 진행자로 성공함.



1 회암사지

- ◆지정번호: 사적 제 128호
- ◆소재지: 경기 양주시 회암동 산14번지
- ◆고려 충숙왕 15년(1328) 원나라를 통해 들어온 인도의 승려 지공이 처음 지었다는 회암사가 있던 자리이다. 그러나 회암사가 지어지기 이전에도 이곳에는 이미 절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 전기 이색이 지은 『천보산회암사수조기』에 의하면, 고려 우왕 2년(1376) 지공의 제자 나옹이 “이곳에 절을 지으면 불법이 크게 번성한다.”는 말을 믿고 절을 크게 짓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조선 전기까지도 전국에서 가장 큰 절이었다고 하는데, 태조 이성계는 나옹의 제자이면서 자신의 스승인 무학대사를 이 절에 머무르게 하였고, 왕위를 물려준 뒤에는 이곳에서 수도 생활을 하기도 했다. 성종 때는 세조의 왕비 정희왕후의 명에 따라 절을 크게 넓히는 데 13년이나 걸렸다고 한다. 그 후 명종 때 문정왕후의 도움으로 전국 제일의 사찰이 되었다가, 문정왕후가 죽은 뒤에 억불정책으로 인하여 절이 불태워졌다.



4 양주 온릉

- ◆지정번호: 사적 210호
- ◆소재지: 경기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 255-41 (일영리)
- ◆온릉은 조선 제11대 중종의 첫 번째 비인 단경왕후 신씨의 무덤이다. 단경왕후는 1506년 중종반정으로 진성대군(중종)이 왕위에 추대되자 왕비에 책봉이 되었다. 그러나 아버지인 신수근이 연산군 부인의 오빠인 데다가 중종반정을 반대했기 때문에 7일 만에 폐비되어 사가에 머물다 명종 12년(1557) 71세로 소생 없이 승하하여 친정 묘역에 안장되었다. 이후 숙종 24년(1698)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냈고, 영조 15년(1739)에는 복위되어 시호를 단경, 능호를 온릉으로 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2 양주대모산성

- ◆지정번호: 사적 제 526호
- ◆소재지: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789
- ◆임진강과 한강 유역을 연결하는 길목에 자리한 대모산성은 주변의 산성 중 주 교통로에 위치하여 단지 방어만을 목적으로 축조된 것이 아니라, 행정치소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복합적 성격의 유적으로, 양주 지역의 전술적 요충지 또는 치소로서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5 양주향교

- ◆지정번호: 문화재자료 제 2호
- ◆소재지: 경기 양주시 부흥로1423번길 50 (유양동)
- ◆향교는 공자 등 성현에게 제사를 지내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 나라에서 세운 국립교육기관이다. 양주향교는 태종 원년 1401년에 처음 지었으며, 6·25전쟁 때 불타 없어진 것을 1958년 다시 지었다. 건물의 전체적인 배치를 보면 입구인 외삼문을 지나 공부하는 강당인 명륜당이 있고, 그 뒤 내삼문 안쪽에 제사 지내는 공간인 대성전과 동무서무가 있는 전학후묘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3 양주관아지

- ◆지정번호: 경기도기념물 제 167호
- ◆소재지: 경기 양주시 유양동 유양동
- ◆양주의 읍치는 원래 한양의 중심지에 있었으나 조선의 도읍을 한양으로 옮기면서 여러 차례 옮겼다가 중종 1년 지금의 자리로 옮기게 되었다.





1 청룡사대웅전

◆지정번호: 보물 제824호
 ◆소재지: 경기 안성시 서운면 청룡길 140
 ◆청룡사는 원래 고려 원종 6년(1265) 명본 국사가 세워 대장암(大藏庵)이라 불렀던 곳이다. 공민왕 13년(1364) 나옹 화상이 크게 넓히면서 청룡사라 이름을 고쳤는데 청룡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광경을 보고 지었다는 전설이 전한다. 절의 중심 법당인 대웅전은 조선 후기에 다시 지은 건물로 추측한다



2 안성 도기동 산성

◆지정번호: 사적 536호
 ◆소재지: 경기도 안성시 미양로 866 (도기동)
 ◆안성천과 잇닿은 나지막한 구릉지에 지형을 따라 축조한 안성 도기동 산성은 2015년 9월 창고를 짓기 위해 발굴조사를 하다가 삼국시대 목책성이 확인되어 긴급 보호를 위한 중요문화재(사적) 국가 지정(15.12.2) 이후, 사적으로 지정하였다. 그 구조와 출토유물로 볼 때 4~6세기 사이에 백제가 축조했고,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에는 고구려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구려가 활용한 목책성이 경기 남부지역에서 최초로 확인됨에 따라 친천 대모산성(충북 기념물 제83호), 세종 부강 남성골산성(세종 기념물 제9호) 등 기존의 고구려 관련 유적과 연계하여 한강이남 지역에서의 고구려 영역확장과 남진 경로를 살펴 볼 수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다.



3 안성유기장

◆지정번호: 중요문화재 제77호
 ◆지정일자: 1983년 6월 1일
 ◆유기장은 낫쇠로 각종 기물을 만드는 기술과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 유기의 역사는 청동기시대부터 시작되었고 신라 시대에는 유기를 만드는 국가의 전문 기관이 있었다. 고려 시대에는 더욱 발달하여 얇고 광택이 아름다운 유기를 만들었다. 조선 전기에는 기술이 퇴화한 듯하였으나 18세기에 이르러 다시 성행하여 사대부 귀족들은 안성 지역에 유기를 주문하여 생산하도록 하였다.



4 칠장사대웅전

◆지정번호: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14호
 ◆소재지: 경기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399-18 (칠장리)
 ◆칠장사는 칠장사 칠현산에 자리 잡고 있는 절로 신라 선덕여왕 5년(636)에 자장 율사가 세웠으며, 고려 현종 5년(1014)에 혜소 국사가 다시 지었다. 조선 숙종 20년(1694)에 절이 불에 타 숙종 30년에 석규 대사가 대웅전을 옮겼다. 영조 12년(1736)에 설영 대사가 고쳤으며, 그 뒤에도 여러 차례 수리하였다. 칠장사 대웅전은 석가모니를 모시는 법당으로 조선 후기에 세워져 여러 차례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



5 안성정무공오정방고택

◆지정번호: 시도유형문화재 제 175호
 ◆소재지: 경기 안성시 양성면 덕봉리 246번지
 ◆정무공 오정방(1588~1634), 천파공 오상, 총정공 오두인(1624~1689) 등 해주 오씨의 이름난 학자들을 배출한 유서 깊은 곳이다. 특히 총정공은 이 집에서 성장하였으며 나라에 큰 공헌을 한 일이 있어 우암 송시열이 글을 써서 보내오기도 하였다. 중종 5년(1510) 덕봉리에 처음 세웠으나 효종 1년(1650)에 지금의 위치로 옮겨 지었다. 현재 문간채, 안채, 검 사랑채, 사당이 남아있다.



6 안성 구포동성당

◆지정번호: 시도기념물 제 82호
 ◆소재지: 경기 안성시 해산로 33 (구포동)
 ◆안성시 구포동에 있는 천주교 성당이다. 앞면 3칸·옆면 9칸으로 되어 있으며, 중탑부에는 3개의 뾰족한 탑이 있는데, 가운데는 끝이 8각형으로 변형되었고, 양쪽의 것은 사각뿔로 되어있다. 현재 건물은 보개면 신안리에 있던 동안강당의 한옥 재료인 목조 기둥·서까래·기와 등을 사용해 만든 것으로, 건물의 내부 장식이 서양식인 반면 구조와 외곽은 전통적인 목조건축 양식을 채택하고 있다. 광무 5년(1901) 프랑스 신부인 콩베르(한국 이름 공안국)가 지은 것으로, 1922년에 새로 고쳤으며, 1955년에는 건물 앞면 입구와 중탑을 로마네스크풍의 벽돌 성당 건축으로 고쳐 세웠다.



경기도의 생활문화 유산



4차시

영원한 이별에 대처하는 경기도 사람

피주시 황희 묘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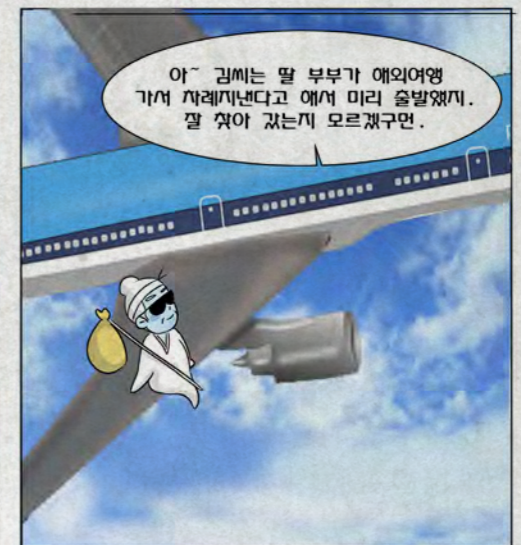


고양시 서오릉입니다.

고양시 캐릭터 고양.

생각
열기

자손들의 제사상을 기다리는 조상들



조선 사회는 유교 사회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 예가 정해져 있었으며,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회적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들어서서 종교도 다양해지고, 사람들의 생활양식이 다양해지면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 기억하고 감사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다른 방식에 대해 비난을 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제사 음식을 적게 차리더라도, 직접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지 않고 모두 사서 제사상을 차리더라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 고향 쪽을 잠깐 바라보더라도, 종교가 달라 차례를 지내지 않더라도, 연휴를 맞이하여 고향이 아닌 스키장이나 외국 여행을 가더라도 괜찮습니다. 나를 있게 해 주신 소중한 가족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문화유산
속으로
이야기 하나

경기도 사람들이 스포인 기억하는 방법

사람이 살면서 겪는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일 것입니다. 특히 영원한 이별을 뜻하는 죽음은 옛 사람 말대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 있는 사람은 ‘영원한 이별’을 ‘기억’으로 바꾸어 위로하고 살아갑니다. 이를 위해 죽은 사람을 떠나보내는 의식(장례 의식)과 무덤 조성에 힘을 쏟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기일에 제사를 지내 생전의 모습을 추억하며 기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죽음의 슬픔을 이기고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특히 무덤은 죽은 사람의 공간이자 그를 기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시대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지지만 정성을 다해 만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인 고인돌에 대해 알아보까요? 주로 경제력이 있거나 정치권력을 가진 지배층의 무덤으로 알려진 고인돌은 4개의 받침돌을 세워 돌방을 만들고 그 위에 거대하고 평평한 덮개돌을 올려서 만든 탁자식과 땅 속에 돌방을 만들고 작은 받침돌을 세운 뒤 그 위에 덮개돌을 올린 바둑관식이 있습니다. 돌방 안에는 시신과 함께 청동제 유물, 석기, 토기 등 무덤의 주인공이 사용한 물건이나 귀한 물건을 넣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석촌동 고분군에는 마치 이집트의 피라미드처럼 여러 개의 돌을 계단 모양으로 쌓은 무덤을 비롯한 많은 무덤이 있습니다. 이곳은 백제 초기의 왕이나 지배층의 무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고구려 초기의 무덤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백제를 세운 사람들이 고구려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 3호분은 무덤 한 변의 길이가 50미터에 이르는 큰 무덤으로 근초고왕의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요? 백성들이 우러러볼 수 있도록 크게 만들어 왕의 권위를 높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묘 앞에는 죽은 이의 이름, 신분, 행적 등을 기록한 글씨 돌에 새긴 묘비를 세웠습니다. 무덤에 풀이 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던 최영의 묘비를 살펴볼까요?



용인 왕산리 고인돌.



고려의
진충분좌명안사공신이셨으며,
판밀직사대장군이셨고,
문하시중이셨으며. 헉헉

??? 정말 많은
벼슬을 하셨던
분이군요.

高麗盡忠奮佐命安社功臣判密直事大將軍門下侍中
고려진충분좌명안사공신판밀직사대장군문하시중
贊成事六道都巡察使鐵元府院君諡武愍東州崔公諱 瑩之墓
찬성사육도도순찰사철원부원군익무민동주최공휘 영지묘
三韓國大夫人文化柳氏附左
삼한국대부인문화유씨부좌

복잡하지요? ‘고려의 진충분좌명안사공신이며 판밀직사대장군이자 문하시중 겸 찬성사이며 육도도순찰사인 철원부원군 무민공 동주 최씨로 휘 영의 묘, 삼한대부인 문화유씨와 합장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최영이 역임했던 관직명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그대로 매장하기도 하지만 화장을 하여 납골당에 보관을 하거나 공원묘지 등에 매장을 하기도 합니다. 화장을 하는 이유는 비용이 저렴하며 관리가 쉽기 때문입니다.

문화유산
속으로
이야기들

황희 묘소

황희는 조선 초기의 명재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개성에서 태어나고 한양에서 주로 활동한 그의 묘소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장수 황씨 선산에 있습니다. 그의 묘소가 파주에 위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파주는 황희가 관직에서 물러나 말년의 여생을 보낸 곳입니다. 그리고 고향인 개성과 벼슬을 했던 한양의 중간에 자리해 2곳 모두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 황희의 묘를 살펴볼까요? 조선 최고의 명재상으로 불리는 황희의 명성에 맞게 묘의 규모는 둘레가 34미터, 높이가 4미터로 무척 큼니다. 봉분 앞 정면에는 2단의 석축을 쌓았는데 그 양쪽으로는 마치 팔걸이를 한 것처럼 2단의 석축이 뻗어 나온 점이 매우 특이합니다. 흔히 볼 수 없는 형태인데 거대한 봉분의 흙이 누르는 힘을 분산시켜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추정됩니다. 봉분 바로 앞에는



황희 묘소

동자석 1쌍이 서로 마주 보고 서 있습니다. 동자석은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 터를 지키는 지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동자석 사이에는 장명등이 서 있습니다. 장명등은 불을 밝혀 사악한 기운을 물리친다는 뜻으로 조선 시대에는 1품 이상의 재상 묘지에

만 세울 수 있어 매장된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표시물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래 쪽에는 문인석을 한 쌍 세워 무덤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묘 아래의 언덕에는 신도비(神道碑)가 세워져 있습니다. 신도비는 왕이나 고위직 관리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정2품 이상의 대신들, 즉 판서 이상의 신하들만 세울 수 있었으며, 비문을 예조에서 확인한 후 왕의 명령에 의해서만 세울 수 있었습니다. 내용은 그 사람의 집안과 업적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황희 선생의 신도비는 신숙주가 짓고 안침이 썼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마모가 심하여 현재에는 글자를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옆에 새로 세운 신도비가 있는데, 비각을

세워 함께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그의 죽음을 매우 슬퍼하며 문종 임금의 직접 장지 인근까지 행차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묘소에서 정면으로 마주 보이는 봉우리를 임금이 다녀갔다는 의미로 지금도 어봉(御峰)이라 하고 어봉 정상에는 문종이 다녀갔음을 표시한 '문종대왕주필지비(文宗大王駐蹕之碑)'가 세워져 있습니다.

파주에는 황희묘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구정(경기도문화재자료 제12호)과 양지대, 황희 선생의 영정을 모셔 놓은 방촌영당(경기도기념물 제29호) 그리고 황희 선생의 동상 등이 있는 황희 선생 유적지가 있습니다. 반구정은 황희가 87세의 나이로 18년간 재임하던 영의정을 사임하고 관직에서 물러난 후 갈매기를 벗 삼아 여생을 보낸 곳으로 6·25전쟁 때 불탄 것을 후손들이 복구하였습니다. 양지대는 반구정이 있던 옛터로 1915년 반구정을 지금의 자리로 옮기면서 지은 것으로 황희 선생의 덕을 우려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 세조 1년(1455)년에 건립된 방촌영당에서는 지금도 매년 음력 2월 10일 선생의 탄신일에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는 후손들과 지역의 유림 등이 참석하여 그를 기리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속으로
이야기 셋

서오릉의 임금님들 이야기

조선 왕릉은 519년 동안 지속된 조선의 왕과 왕비의 무덤입니다. 왕릉은 총 42기인데, 자연 친화적인 아름다움이 뛰어나며 봉분을 세우는 방식, 석물들의 배치에서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평가됩니다. 조선 왕릉은 속세의 공간인 진입 공간(재실, 연못, 금천교), 산자가 죽은 자를 맞이하여 제사를 지내는 제향 공간(홍살문, 정자각, 수복방),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한 성역 공간(비각, 능침공간)의 3단계로 구분됩니다.

왕릉의 입구에서 있는 홍살문은 신성한 장소를 알리는 문으로 붉은색으로 만든 것은 나쁜 기운을 쫓는다는 의미입니다. 왕릉으로 가는 길인 참도는 영혼이 다니는 신도와 임금이 다니는 어도로 나뉘어 있습니다. 수라간과 수복방에서 제사에 필요한 음식이나 도구를 준비하였으며, 정자각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능침은 왕릉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임금이 모셔져 있는 봉분의 주변으로 돌로 만든 무관, 문인, 말, 양, 호랑이를 세워 능을 보호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서오릉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조선 왕실의 무덤입니다. 서오릉이라는 이름으로 보아 5개의 능이 있음을 알 수 있지요? 5개의 능은 경릉, 창릉, 익릉, 명릉, 홍릉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오릉에 묻힌 사람은 모두 몇 명일까요?

경릉은 세조의 세자인 장과 그의 비 소혜왕후의 능이므로 2명입니다. 창릉은 덕종의 아우인 예종과 그 계비 안순왕후의 능이므로 2명입니다. 익릉은 숙종의 왕비인 인경왕후의 능으로 1명이며, 홍릉은 영조의 원비 정성왕후의 능으로 1명입니다. 그리고 명릉은 숙종과 계비 인현왕후, 제2계비 인원왕후가 묻혀 있으므로 3명입니다. 이렇게 9명에다가 명종의 첫째 아들인 순회세

자 순창원이 경내에 있으며, 또한 숙종의 후궁으로 많은 역사적 일화를 남긴 장희빈의 묘가 1970년 광주군 오포면 문형리에서 이곳으로 이장되어 총 11명이 묻혀 있습니다.

서오릉에는 숙종의 부인 4명이 모두 묻혀 있는데요. 조선시대에는 임금이든 일반 양반 사대부든 남편 1명에 부인이 여러 명이라면, 남편이 일부다처제로 부인을 여러 명 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식 부인이 여러 명이라는 말의 뜻은 첫 번째 부인이 남편보다 먼저 사망했을 경우 남편이 재혼한 것이고, 두 번째 부인마저 남편보



서오릉

다 먼저 사망했을 경우, 남편은 세 번째 부인을 맞아들인 것입니다. 숙종은 임금으로 있는 동안 3차례의 큰 정치적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때마다 왕비 역시 바뀌었습니다. 1680년 서인이 권력을 잡고, 이듬해 인현왕후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1689년 인현왕후를 내보내고 장희빈을 왕비로 삼았으며 정치권력은 남인이 차지했습니다. 1694년 장희빈의 오빠 장희재가 숙빈 최씨를 독살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장희빈은 희빈으로 강등되고 인현왕후가 복귀하였으며, 서인이 권력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숙종의 사랑을 독차지한 장희빈이 본처인 인현왕후를 쫓아냈다가 나중에 숙종의 사랑을 잃게 되자 음모를 꾸미고 마침내 사약을 먹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사극으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인과 남인이라는 봉당 간의 대립 사이에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숙종이 장희빈과 인현왕후를 이용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생각 나누기



1. 황희 묘와 황희선생 유적지를 통해 후세 사람들이 어떻게 황희를 기억하고 있는지 찾아 쓰세요.

황희선생 관련 유적	내용
신도비	황희의 행적을 돌에 새겨 자세히 기록하였다.
방촌영당	
양지대	
반구정	
문중대왕주필지비	

2. 다음 그림은 조선 왕릉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림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을 찾아 쓰시오.



- ① 곡장 ② 봉분
- ③ 병풍석 ④ 난간석
- ⑤ 석양 ⑥ 석호
- ⑦ 망주석 ⑧ 혼유석
- ⑨ 장명등 ⑩ 문석인
- ⑪ 무석인 ⑫ 석마
- ⑬ 예감 ⑭ 산신석
- ⑮ 정자각 ⑯ 비각
- ⑰ 수복방 ⑱ 수라간
- ⑲ 향로, 어로
- ⑳ 판위 ㉑ 홍살문
- ㉒ 금천교 ㉓ 재실

가. 왕릉을 지키는 호랑이 모양의 석물



나. 능력과 속세를 구분하는 돌다리



다. 제례 때 사용한 축문을 태우는 곳



라. 신성한 지역임을 표시하는 붉은 기둥의 문



마. 왕을 호위하는 무인을 상징하는 석물



생각 더하기

1. 조선시대 사대부의 무덤 앞에는 그의 행적을 기록하고 추모하는 묘지명을 새긴 묘비를 세웁니다. 묘지명은 보통 후손이나 제자들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 스스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계 이황은 자신의 묘지명을 스스로 써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였습니다.

자명(自銘) - 퇴계

나면서 어리석고 자라서는 병도 많아
 중간에 어찌하다 학문을 즐겼는데
 만년에는 어찌하여 벼슬을 받았던고!
 학문은 구할수록 더욱 멀어지고
 벼슬은 마다해도 더욱더 주어졌네.
 나가서는 넘어지고, 물러서서는 곧게 감추니
 나라 은혜 심히 부끄럽고 성현 말씀 진실로 두렵구나.
 산은 높고 또 높으며 물은 깊고 또 깊어라.
 관복을 벗어 버려 모든 비방 씻었거니
 내 마음을 제 모르니 나의 가짐 뉘 즐길까!
 생각건대 옛사람은 내 마음 이미 알겠거늘
 뒷날에 오늘 일을 어찌 몰라 즐까 보나.
 근심 속에 낙이 있고 낙 속에 근심 있는 법.
 조화 타고 돌아 가니 무얼 다시 구하랴.

여러분들도 퇴계 선생님의 명문처럼 지금까지의 삶을 정리한 명문을 써 봅시다.

자명 -

나면서 _____ 많아

자라면서 _____ 즐겼는데

지금은 어찌하여 _____

뒷날에 _____



1 오두산성

- ◆지정번호: 사적 제 351호
- ◆소재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산86번지 외
- ◆오두산의 정상을 둘러싼 길이 620미터의 백제 성이다. 경사가 가파르고 서쪽은 임진강, 남쪽은 한강·동쪽은 농경지·북쪽은 산으로 이어진다. 성벽은 서쪽 부근이 잘 남아 있다. 성벽 쌓기 수법을 보면 밖으로는 위로 올라가면서 돌을 안으로 들여쌓고, 성벽 내부는 돌로 채웠다. 이러한 성곽의 형태는 백제 성곽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광개토태왕릉비와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나오는 관미성이 이 바로 오두산성이라는 주장이 있으며,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는 이곳을 관미성이라 기록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4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

- ◆지정번호: 사적 148호
- ◆소재지: 경기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산46번지
- ◆지석묘는 청동기시대 사람들이 만든 무덤으로 고인돌이라고도 하는데, 지상에 책상처럼 세운 탁자식(북방식)과 큰 돌을 조그만 받침돌로 고이거나 판석만을 놓은 비독판식(남방식)이 있다. 경기도 파주 덕은리에서는 20여 기의 탁자식 고인돌과 선사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터가 함께 발견되었다. 가장 큰 고인돌의 덮개돌 길이는 3.3미터, 너비 1.9미터로 조개날돌도끼(양인석부)와 숫돌 등이 나왔다.



2 파주 이이 유적

- ◆지정번호: 사적 제 537호
-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산 5-1
- ◆조선 중기 유학자이자 경세가인 이이는 퇴계 이황의 학문을 더욱 발전시켜 중국의 성리학을 차별되는 조선 성리학의 토대를 닦은 인물로서 우리나라 정신사에 지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율곡 이이를 배향한 자운서원, 율곡 이이와 신사임당의 묘소를 포함한 가족 묘역이 한 공간에 모여 있는 ‘파주 이이 유적’은 율곡 이이 관련 유적을 대표하는 곳으로, 한 인물에서 근원한 문화유산이 모여 있는 장소성의 가치가 큰 곳이다.



5 파주 삼릉

- ◆지정번호: 사적 205호
- ◆소재지: 경기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89 (봉일천리)
- ◆파주삼릉은 공릉(장순왕후)과 순릉(공혜왕후), 영릉(효장세자와 효순왕후)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릉은 조선 8대 예종의 원비인 장순왕후(1445~1461)의 무덤이다. 장순왕후는 한명회의 딸로 1460년에 세자빈에 책봉되었으나 이듬해 죽었다. 처음에 왕후릉이 아닌 세자빈 무덤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병풍석, 난간석, 망주석은 없다. 다만 양석과 돌레돌을 둘러 무덤을 보호하게 하였다. 순릉은 성종의 원비 공혜왕후(1456~1474)의 무덤으로 공혜왕후는 왕비로 봉해진 후 5년 뒤에 세상을 떠났다. 무덤 밑 돌레에는 12칸의 난간석이 둘러져 있고 양석, 호석, 망주석 등의 석물이 서 있다. 영릉은 죽은 후에 왕으로 추존된 영조의 첫째 아들 진종(효장세자)과 부인인 효순왕후(1715~1751)의 무덤이다. 왕릉과 비릉은 쌍릉으로 병풍석과 난간석은 세우지 않았으나, 석상을 앞에 두었다. 장명등은 중간에 배치하였으며 무덤 밑 돌레에 양석과 호석을 둘러 무덤을 보호하게 하였다.



3 파주혜음원지

- ◆지정번호: 사적 464호
- ◆소재지: 경기 파주시 광탄면 용미4리 134-1번지 일원 234-1
- ◆혜음원은 남경과 개성간을 통행하는 관료 및 백성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고려 예종 17년(1122)에 건립된 국립숙박시설이며 국왕의 행차에 대비하여 별원(別院)도 축조되었다고 전한다. 고려 및 조선시대에 중요한 교통로로 이용되었던 혜음령이라는 명칭의 유래에서 그 위치가 추정되어 오다가 1999년 주민의 제보에 의해 행해진 조사에서 「惠蔭院」이라고 새겨진 암막새가 수습됨에



현장 체험 학습

고양시 문화유산 안내도



1 서삼릉

- ◆지정번호: 사적 제200호
-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길 233-126(원당동, 서삼릉)
- ◆서삼릉(西三陵)은 희릉(禧陵), 효릉(孝陵), 예릉(睿陵)의 3기의 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종 계비 장경왕후의 무덤인 희릉이 처음 들어선 이후 인종과 인종비 인성왕후의 무덤 효릉, 철종과 철종비 철인왕후의 무덤인 예릉이 들어서면서 서삼릉이란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곳에는 3기의 능 이외에도 태실, 공주·옹주묘, 소경원, 효창원 등이 있다.



2 고려공양왕릉

- ◆지정번호: 사적 제191호
- ◆소재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65-1번지 산65-6
- ◆태조 3년(1394) 축조된 고려 공양왕과 순비 노씨의 능으로 쌍릉 형식을 이루고 있다. 비석, 상석, 석등, 석호, 문인석, 무인석 등 능 주위에 배치된 석물들은 그 양식과 수법이 간략하고 소박해 고려왕릉의 전통적인 특징을 잘 보여준다.



3 행주산성

- ◆지정번호: 사적 제56호
- ◆소재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산26번지
- ◆임진왜란(1592) 때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으로 널리 알려진 곳으로 흙을 이용하여 쌓은 토축산성이다. 성을 쌓은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험한 절벽을 이용하면서 펼쳐지는 넓은 평야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삼국시대 전기의 산성 형식과 같다. 성은 동서로 약간 긴 형태로 1킬로미터 가량의 테뫼식 산성이다.



4 북한산성

- ◆지정번호: 사적 제162호
- ◆소재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1번지 외 서울 은평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일원
- ◆백제가 수도를 하남 위례성으로 정했을 때 도성을 지키던 북방



의 성이다. 백제 개루왕 5년(132)에 세워진 곳으로, 11세기 초 거란의 침입이 있을 때 현종이 고려 태조의 관을 이곳으로 옮겨 오기도 했다. 고려 고종 19년(1232)에 몽고군과의 격전이 있었고, 우왕 13년(1387)에 성을 다시 고쳐 지었다. 조선시대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도성 외곽을 고쳐 짓자는 의견이 일어나 숙종 37년(1711) 왕명으로 토성을 석성으로 고쳐지었다.

5 고양 벽제관지

- ◆지정번호: 사적 제144호
- ◆소재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벽제관로 34-16 (고양동)
- ◆조선 성종 7년(1476) 11월에 세운 벽제관은 우리나라에 오는 중국 사신의 공용숙박시설이 있었던 곳이다. 중국 사신들은 여기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 날 예를 갖추어 서울에 들어가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다. 또한 이곳이 중국으로 통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으로 가는 우리나라 사신들도 여기서 머물며 휴식을 취하곤 했다. 특히 임진왜란 때 명나라 이여송 장군이 이끄는 군대와 왜군과의 벽제관 싸움이 있던 자리이기도 하다. 지금의 자리는 인조 3년(1625)에 고양군을 옮길 때 세운 객관으로, 그 후의 보수 흔적은 확실하지 않다. 6·25전쟁으로 불타고 현재는 그 터만 남아 있다.



6 고양 서오릉

- ◆지정번호: 사적 제198호
- ◆소재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75-92번지
- ◆서오릉(西五陵)은 동구릉(東九陵) 다음으로 규모가 큰 조선왕실의 왕릉군으로, 5기의 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조 3년(1457) 세조의 장자 의경세자(덕종)의 묘(현 경릉)를 처음으로 만든 이후 의경세자가 덕종으로 추존되면서 경릉(敬陵)이라고 개명하고, 덕종비 소혜왕후가 훗날 경릉에 같이 안장된다. 이후 8대 예종과 계비 안순왕후의 창릉(昌陵), 19대 숙종의 원비인 인경왕후의 익릉(翼陵), 숙종과 제1계비 인현왕후·제2계비 인원왕후의 명릉(明陵), 21대 영조의 원비인 정성왕후의 홍릉(弘陵)이 차례로 조영되었다.



경기도의 나간수호 유적



5차시

중국과 맞선 고구려의 용맹



연천군 캐릭터 고훈이와 미룡이.

연천군 호로고루입니다.
임진강을 옆에 끼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에
세워졌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 보루입
니다.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장악하며 세웠지요.



구리시 캐릭터 이리미.



생각 열기

당태종의 침략을 막아낸 고구려



고구려는 중국 세력과 얼굴을 맞대고 성장한 나라입니다. 중국 세력의 거센 침략을 막기 위해 고구려 사람들은 지혜와 힘을 다했습니다. 특히 험준한 산의 지형을 이용하여 튼튼한 성을 쌓고 성에 들어가 적의 침입을 막아 내는 전술을 사용하여 외적의 침입을 물리쳤지요. 수의 백만 대군도 고구려의 튼튼한 성곽을 이용한 전술에 휘둘리다가 커다란 희생만 치르고 물러났습니다. 당 태종의 공격 역시 안시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그만 물러났어요. 우리는 고구려의 성곽이 중국과 북한에만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경기도에도 고구려의 성곽이 남아 있어 고구려 사람들의 씩씩한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에 남아 있는 고구려의 성곽을 찾아가 볼까요?

문화유산
속으로
이야기 하나

중국 세력을 막아낸 고구려의 성곽의 비밀

성곽이란 보통 적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 흙이나 돌 또는 벽돌 등의 재료를 이용해 높이 쌓아 올린 담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곽은 성벽만 의미하지는 않아요. 성벽 안쪽에 사람들이 살기 위한 생활공간, 또는 성을 지키는 군사시설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성을 많이 쌓았습니다.

1 이 방법은 장군총 같은 거대한 돌무지무덤을 쌓을 때도 사용했다. 그랭이법을 사용하면 바닥의 암석층과 1층의 기단석이 서로 맞물려 딱 잡아주기 때문에 외부의 충격에도 잘 견딜 수 있다. 하지만 바닥의 암석 모양을 따라 돌을 다듬어야 하기 때문에 돌 다듬는 기술이 필요하다.

고구려 산성은 대부분 돌을 쌓아 올린 석성입니다. 고구려는 중국의 위협 속에서 성장해야 했기에 수준 높은 기술을 사용하여 튼튼하게 쌓았어요. 성벽의 아래쪽에는 크고 무거운 돌을 한두 층 쌓았는데 그 이유는 돌로 쌓은 성벽 윗부분의 무게를 이겨내기 위해서였어요. 특히 바닥에 암석이 있는 경우에는 암석을 다듬지 않고 암석의 모양에 따라 바닥에 올릴 돌의 모양을 맞추어서 쌓았어요. 이러한 공법을 ‘그랭이법’이라고 합니다.¹

고구려가 성을 쌓을 때 사용한 돌은 옥수수 알 모양처럼 생긴 썰기돌이에요. 이 돌로 성벽을 쌓으면 바깥 면은 옥수수처럼 가지런하고 빈틈이 없어요. 그리고 썰기돌 안쪽의 꼬리 부분은 흙과 잡석에 의해 딱 맞물려서 쉽게 빠지지 않아요. 이렇게 쌓은 성벽은 혹시 일부 성벽의 돌이 뽑히거나 적의 공격으로 성벽 밑 부분의 성돌이 뽑히더라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아요. 마치 이빨이 빠져도 다른 이빨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고구려 성벽을 살펴보면 성벽의 밑 부분은 한 층씩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들어 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기술을 ‘퇴물려 쌓기’라고 해요. 이런 방법은 성벽의 기초 부분을 튼튼하게 하는 중요한 기술이에요. 퇴물려 쌓기는 성벽의 무게중심을 낮게 유지해서 여러 가지 충격으로부터 성벽을 보호할 수 있어요. 고구려가 수많은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면서 동북아시아의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된 것은 튼튼한 성벽을 쌓고 이를 이용할 줄 아는 기술과 지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호로그루 성벽. 썰기돌을 딱 물려 쌓아서 성돌 일부가 빠져도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은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울보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에게 시집가서 흑독한

훈련으로 바보를 훌륭한 장수로 성장시킨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비극으로 끝납니다. 온달이 신라에게 빼앗긴 아단성을 되찾는 싸움에서 화살에 맞아 죽었기 때문입니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 원한이 사무쳤기 때문일까요? 온달의 시신을 넣은 관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아 장례를 치루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평강공주가 와서 관을 어루만지며 울며 달래자 그제야 관이 움직여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삼국사기』에 전해지는 이 슬픈 이야기 속에서 온달이 죽은 곳은 아단성입니다. 그런데 현재 아단성이라고 주장하는 곳이 단양의 온달산성과 경기도 구리시와 서울시에 걸쳐 있는 아차산성, 이렇게 2곳입니다. 단양에서는 온달산성을 관광지로 홍보하면서 온달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리시와 서울시에서는 아차산성의 옛 이름이 아단성이었고 백제 개로왕이 한성이 함락되면서 고구려군에 의해 죽은 곳이 아단성 아래였기 때문에 온달이 죽은 아단성이 바로 아차산성이라고 주장합니다.

온달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을 쌓은 이야기, 성을 공격한 이야기 등 성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사적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곳도 성이랍니다.



단양군과 광진구는 평강공주와 온달 캐릭터도 각자 만들어 홍보 캐릭터로 활용하고 있다. 위쪽이 충청북도 단양군의 온달과 평강공주, 아래쪽이 서울시 광진구의 온달과 평강공주다.

문화유산
속으로
이야기 풀

연천의 호로그루

임진강은 강원도에서 발원하여 연천군을 거쳐 개성시 판문군과 경기도 파주군 사이에서 한강으로 흘러드는 강입니다. 임진강 유역에는 호로그루, 당포성, 은대리성 등 고구려가 쌓은 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 사적 제467호로 지정된 호로그루²는 임진강 북쪽의 현무암 절벽 위에 있는 삼각형의 평지성입니다. 호로그루가 있는 지역은 삼국시대부터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임진강은 배를 타지 않고 병사들이 걸어서 강을 건널 수 있는 최초의 여울목이어서 삼국 통일 전쟁 시기에 고구려와 신라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것은 물론 신라와 당 사이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평양과 서울을 잇는 주요 도로는 호로그루 앞의 여울목을 건너 의정부 방향으로 가는 장단도로가 주로 이용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호로탄이라 하여 장단을 통해 개성으로 들어가는 주요 길목이었으며, 한국전쟁 때에는 북한의 주력 전차 부대가 개성을 지나 문산 쪽으로 직진하지 않고 우회해서 이곳 호로그루 앞에서 강을 건너 남한으로 치고 내려왔답니다.

² 호로그루는 고구려 말로 '고을'을 뜻하는 '홀(호로)'과 '성'을 뜻하는 '고루'가 합쳐져 '호로하 근처에 있는 성'이라는 뜻으로 불린 듯하다.

호로그루 위치 지도. 호로그루가 있는 곳은 임진강에서 배를 타지 않고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알은 여울목이 처음 나타나는 곳이다. 출처: 고구려 유적의 보고, 경기도, 경기도박물관.



임진강과 한강 유역의 고구려 군 경로와 고구려 성. 고구려 군의 이동 경로가 임진강 유역의 고구려 성을 지나 한강 유역으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우리걸의 고구려, 경기도박물관.

성의 전체 둘레는 대략 401미터 정도이고, 성 내부의 면적은 6,000제곱미터 정도이지만 성벽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과 외곽의 일부를 제외하면 실제 사용이 가능한 면적은 약 4,800제곱미터 정도였습니다. 축구장 면적이 7,350제곱미터 정도니까 축구장보다 작은 규모네요. 성벽은 평지인 '한들벌'로 이어지는 동쪽 부분만 거대한 성벽을 조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두 벽은 높이 약 20미터의 절벽이 자연 성벽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높이 4~5미터 정도만 성벽을 쌓았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이 자연 지형을 잘 이용하여 꼭 필요한 만큼만 성을 쌓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호로그루에 살았던 고구려군의 생활 모습을 살펴볼까요? 성벽과 성 내부에서는 토기, 벼루, 철기, 기와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특히 기와는 남한 지역에서 발견된 고구려 유적 중 가장 많은 양이 출토되었습니다. 삼국시대에는 관청이나 지휘관 숙소 등 중요한 건물에만 기와를 올렸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호로그루는 비록 규모는 작지만 행정적·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흙을 구워 만든 '相鼓(상고)'라고 새겨진 고구려의 북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이 북은 병사들의 신호용으로 썼거나, 의례용 악기로 썼을 것입니다. 한편 병사들의 밥그릇으로 보이는 토기는 매우 커서 고구려 병사들이 오늘날 우리보다 적어도 4배나 많은 양의 밥을 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 쌀, 콩, 팥 등의 곡식과 소, 말, 개, 멧돼지, 사슴, 노루 등의 동물 뼈가 출토되어 당시 고구려 병사들의 식생활도 알 수 있습니다.

삼국 간의 전쟁이 신라의 승리로 끝나면서 호로그루의 주인도 신라로 바뀝니다. 신라는 무너진 호로그루를 수리해서 다시 사용했어요. 그래서 호로그루에서는 고구려와 신라의 성 쌓기 방법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동쪽에서 바라본 호로그루 원경. (평지로 연결되는 동벽만 거대한 성벽을 쌓았다. 출처: 경기일보.



아차산 보루군

사적 제455호로 지정된 아차산 보루군은 경기도 구리시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걸쳐 있는 삼국시대의 작은 성들입니다. 둘레가 300미터 이내의 작은 성을 ‘보루’라고 부른답니다. 아차산 일원에는 산봉우리마다 보루가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 고구려가 장수왕 때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유역을 차지한 후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 쌓은 것입니다. 아차산 주변에는 중랑천과 왕숙천이 흐릅니다. 이 하천들이 고대에는 남북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로였습니다. 아차산에서는 이 교통로와 한강 이남 및 아차산 주변의 평야지대가 한눈에 들어와 적의 접근과 움직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부터 지금까지 군사적 요충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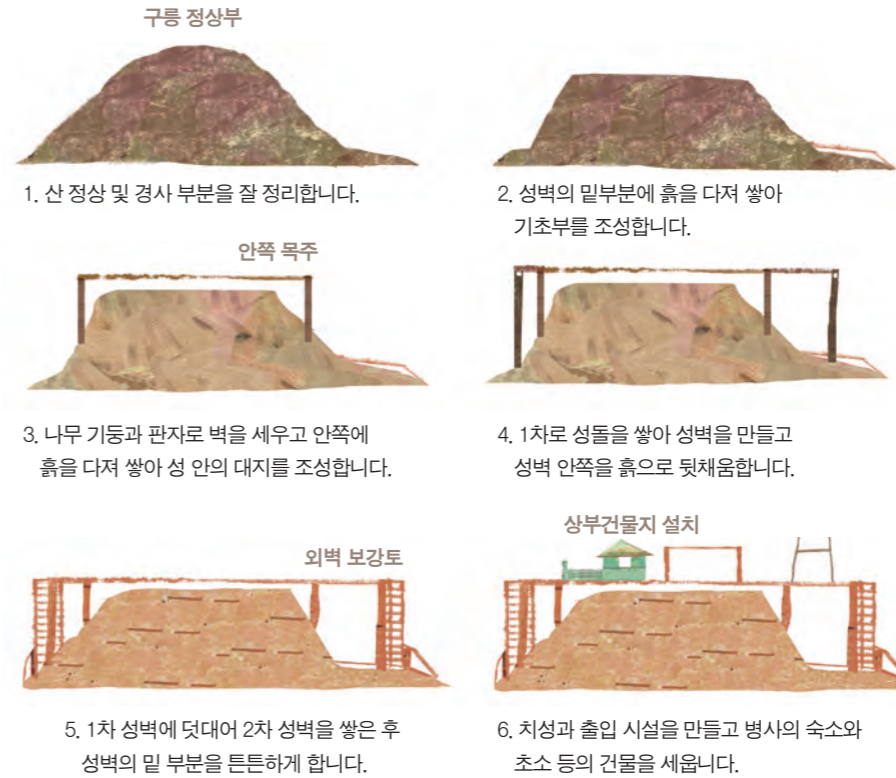
고구려의 산성 중에서 중국의 랴오둥 지역과 지안 일대, 그리고 평양과 황해도 일대에 분포하는 성들이 대체로 수 킬로미터에서 10킬로미터가 넘는 대규모인데 비해, 남한 지역에 축조되는 고구려의 성들은 거의 대부분 규모가 작은 보루들입니다.

왜 고구려는 한반도 남쪽 성곽을 작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당시 삼국의 관계를 고려한 고구려의 한반도 정책과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구려의 보루들이 이처럼 소규모인 이유는 당시 고구려의 한반도 남부 지역에 대한 전략이 점령 지역에 대한 정치·경제적인 통솔권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한 군사작전을 펼치는 것이 주목적이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규모가 큰 성을 쌓을 때는 장기간에 걸쳐 많은 사람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또 큰 성을 유지하는 데에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신라와 백제의 군사 작전에 대응하여 신속한 작전을 펼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마병을 위주로 한 소규모의 병력으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보루 위주의 방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었을 것입니다.

아차산 보루군은 봉우리 정상부를 둘러싸고 원형 또는 기다란 타원형의 석축 성벽을 쌓아 방어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성벽의 밑 부분에는 열을 지어 나무 기둥을 세운 흔적이 있습니다. 이는 석축 성벽의 뒷부분에 흙을 다져 채우는데 사용된 나무 기둥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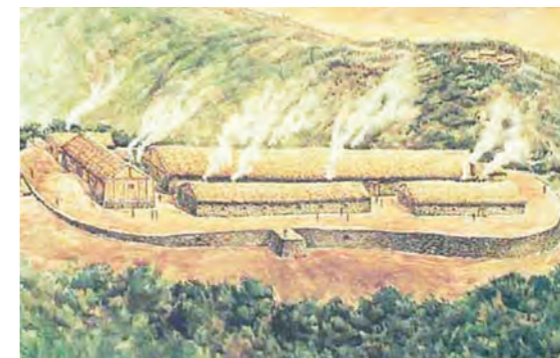
아차산 보루 쌓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홍련동 1보루 축조 모식도. 보루의 축조 과정을 추측하여 그린 도면이다. 아차산 보루군 대부분이 비슷한 축조 과정을 가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출처: 고구려 성 연구.

성벽을 쌓는 데 사용된 성돌은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화강암을 이용했습니다. 아차산 4보루의 경우 잘 다듬은 돌을 질서 있게 쌓았지만 대부분 보루는 잘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성벽에는 방어를 위해 바깥에 덧붙여 돌출된 성벽인 ‘치’가 1~2개씩 설치되었습니다.




봉우리 마다 설치된 보루와 보루 간의 거리는 대략 400~500미터 정도입니다. 보루의 출입 시설도 보루 간에 연결되는 방향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출입 시설 하면 보통 성문을 떠올리지만 보루에는 성문을 설치하기보다는 계단식 오름 시설이나 아니면 사다리를 이용한 출입 시설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보루 안에는 여러 채의 건물들과 저장 시설, 방앗간, 철을 불에 달궈 버리는 단야 시설 등의 유적이 발견되어 당시 고구려 병사들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추운 날씨를 이겨내기 위한 난방 시설로 우리 민족 고유의 온돌이 있어 고구려 사람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아차산 4보루 복원 조감도. 출처: 구리시청.

생각 나누기

1. ()안에 들어갈 고구려의 성벽 쌓는 기술을 적어 봅시다.

()법	()돌	()법
기단석의 밑면을 바닥의 암석의 모양에 따라 다듬어 맞추는 방법이다. 이 공법은 대단히 어렵지만 정확하게 맞물리면 매우 안정적이다.	석성을 쌓을 때 사용하는 옥수수알갱이 모양의 잘 다듬어진 돌. 잘 다듬어진 옥수수 모양의 ()돌을 머리가 큰 부분을 벽 바깥쪽으로 놓으며 성벽의 경사에 따라 뒷부분의 두께를 조정한다.	성벽의 밑 부분에서 한 층씩 쌓을 때마다 조금씩 안으로 들여쌓는 방법. 성벽의 무게중심이 아래로 내려가 구조적인 안정성이 갖춰진다. 성벽을 방어하기 위해 튀어나온 치에 잘 드러난다.
 자연 암반을 그대로 이용해서 성벽을 쌓은 모습. 고구려 성산산성. 고구려성. 출처: 한국방송공사.	 성벽 쌓기에 사용한 ()돌	 고구려 백암성 북벽의 치 (고구려 유적의 어제와 오늘, 동북아역사재단)

2. 임진강 유역의 고구려 성들이 남쪽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도록 위치를 정한 이유를 2번째 이야기를 참고하여 적어 봅시다.

3. 북한과 중국에 위치하고 있는 고구려 성과 아차산 보루군의 형태적 차이를 설명하고 그 이유를 고구려의 한반도 정책과 연결지어 적어 봅시다.

한반도 북부의 성곽과 임진강 유역 성곽과의 차이점:

차이가 생긴 이유:

생각 더하기

1. 다음 3가지의 공통점을 찾아 보세요.



잇몸에 단단히 박혀 있는 이빨



옥수수 알갱이



고구려 성산산성의 성돌이 서로 맞물린 모습
출처: 동북아역사넷.

1-1. 이빨과 옥수수 알갱이, 그리고 고구려 성돌의 생김새는 어떠한가요?

1-2. 이러한 생김새를 가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2. 다음은 토지박물관에서 우리나라의 시대별 밥 공기의 크기를 비교한 사진입니다. 현대 한국인이 고구려 사람보다 밥을 적게 먹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생각을 적어 봅시다.



현재 밥그릇 조선시대 백자사발 고려시대 청동주발 고구려 밥그릇



1 연천 지역 고구려 3대성

- ◆사적: 제467호
- ◆소재지: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57-1
- ◆강가 언덕 위 평지에 세워진 성으로 고구려의 기상을 확인할 수 있다. 당포성은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은 국가 지질공원으로 역사와 지질 그리고 임진강의 수려한 경관을 볼 수 있다. 호로고루의 홍보관에서는 실물 크기의 광개토태왕릉비를 재현하여 전시하고 있다.

가. 은대리성

- ◆주사적: 제469호
- ◆소재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577 등



나. 당포성

- ◆사적: 제468호
- ◆소재지: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778 등



다. 호로고루



2 연천전곡리 유적 (전곡선사박물관)

- ◆소재지: 전곡리 양연로 1510 전곡리 평화로 443번길 2
- ◆동아시아 최초로 주먹도끼가 발견된 세계적인 구석기 유적이다. 전곡리 구석기 문화와 세계 구석기 문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선사박물관이 산책로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구석기 시대의 조형물과 다채로운 체험 활동을 통해 즐겁고 쉽게 선사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3 연천 송의전지

- ◆소재지: 미산면 송의전로 382-27
- ◆고려 4왕(태조, 현종, 문종, 원종)과 고려 16공신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냈던 사당터이다. 매년 10월 첫째 일요일을 전후로 연천 고려문화제가 개최된다.



4 명승지(재인폭포)

- ◆소재지: 연천읍 부곡리 192
- ◆한탄강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형 중의 한 곳으로 연천군의 대표적인 명승지이다. 지장봉에서 흘러내린 계곡물이 평지가 움푹 내려앉으며 폭포를 이루었다. 이곳에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도 전해진다.



5 경순왕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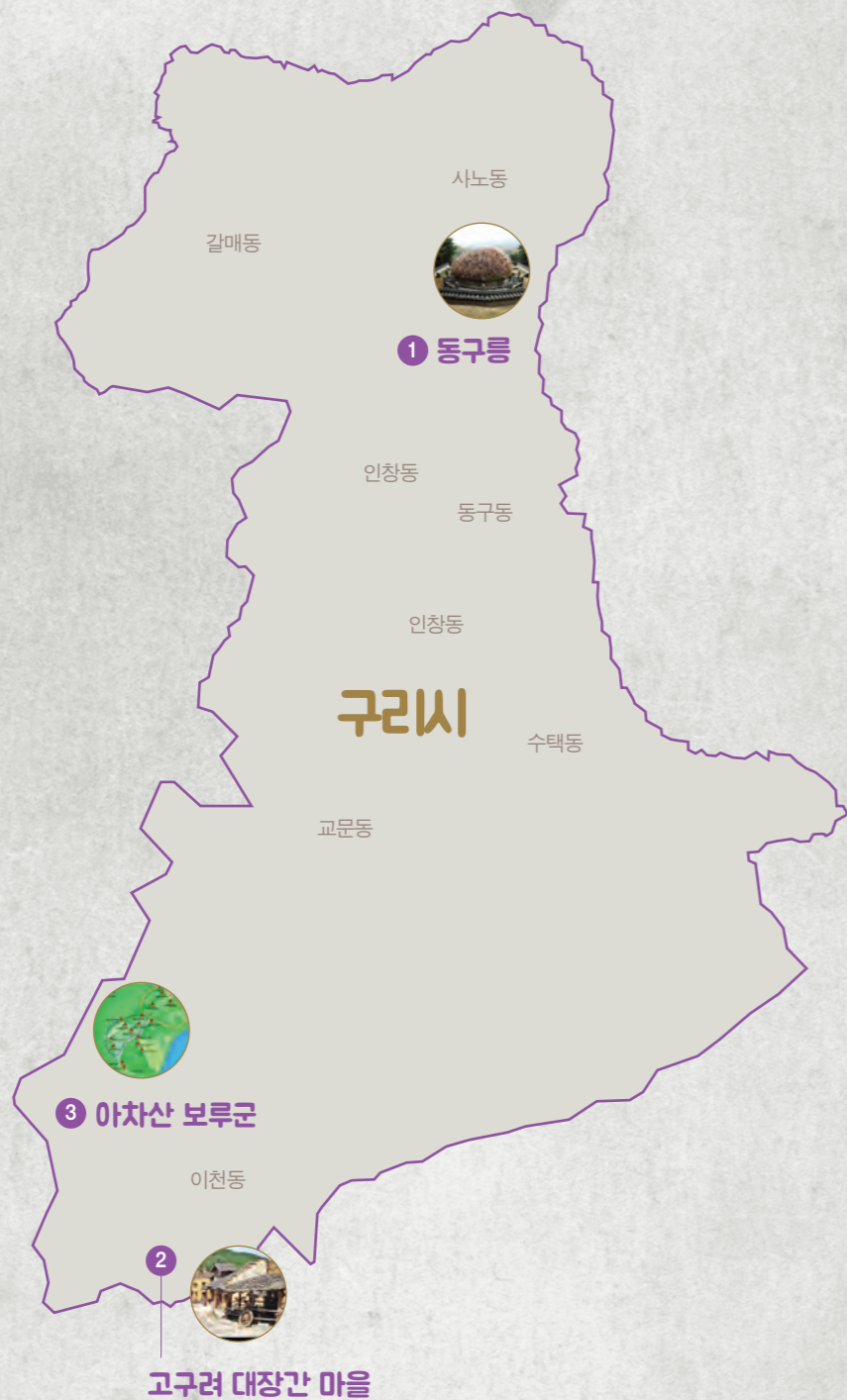
- ◆소재지: 장남면 고랑포리 산18-2
- ◆신라 56대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무덤으로 경기도에 있는 유일한 신라 왕릉이다. 고려 왕건에게 나라를 바치고 경주를 식읍으로 받아 개성에서 여생을 보낸 경순왕 김부의 일생을 느낄 수 있다.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과 10월 3일, 봄과 가을에 후손들이 모여 제사를 크게 지낸다.



6 연천역 급수탑

- ◆소재지: 연천읍 연천로 275-1
- ◆일제 강점기 경원선을 운행하던 증기기관차에 물을 공급하던 시설이다. 6·25전쟁 당시 입은 총탄 자국을 확인할 수 있다.





1 동구릉

- ◆소재지: 동구릉로 197
- ◆조선 태조 이성계의 무덤인 건원릉을 비롯하여 순조의 아들의 무덤인 수릉까지 9개의 조선 왕릉이 조성되어 있다. 특히 건원릉은 조선 왕릉 제도의 표본으로 봉분을 잔디로 덮은 다른 왕릉과는 달리 역새풀로 덮었다.



4 석장(石匠)

- ◆국가 무형문화재 제120호
- ◆돌을 이용하여 구조물을 만들고 조각을 새기는 장인을 말한다. 구리시의 이재순 석장은 석조불상의 복원과 정비, 각종 불상 및 석비의 재현과 제작에 참여하여 주로 석조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2 고구려 대장간 마을

- ◆소재지: 경기도 구리시 우미내길 (아천동)
- ◆고구려 유적 공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고 드라마 <태왕사신기>의 세트장이기도 하다. 고구려 벽화의 대장장이 신을 근거로 조성한 간이 대장간 터 등이 흥미롭고, 아차산에서 출토된 고구려 토기와 철기류 350여 점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3 아차산 보루군

- ◆사적 제455호
- ◆소재지: 경기도 구리시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랑구, 노원구 일대
- ◆아차산 일대의 보루 17개는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삼국의 상호 경쟁을 보여주는 중요한 군사유적이다. 특히 남한 내에 가장 집중적으로 분포된 고구려 관련 유적으로 성곽 축조기술과 무기는 물론 고구려의 생활 문화까지 엿볼 수 있다.



경기도의 나간수호 유적



6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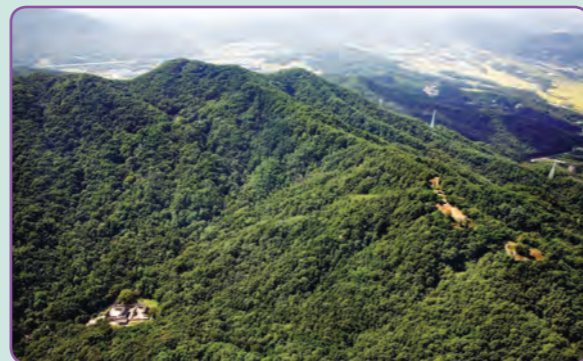
삼국 통일을 이룬 신라의 저력



하남시 캐릭터 하남이.

하남시의 이성산성입니다. 신라가 한강 유역을 장악하고 지역을 관할하기 위해 세웠습니다.

이천시의 설봉산성입니다.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장악하며 세웠지요.



이천시 캐릭터 '아리(쌀)'와 '도기(도자기)', '온이(온천)', '홍이(복숭아)'.

생각 열기

한강 유역을 차지한 진흥왕



6세기 후반 그동안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서 숨죽이고 있었던 신라가 힘을 키워 대등한 자리까지 올라옵니다. 진흥왕은 백제와의 군사 동맹을 깨고 군대를 동원해 백제의 옛 중심지인 한강 하류를 차지하지요. 이로부터 촉발된 한반도 통일 전쟁은 결국 당과의 군사 동맹을 성공적으로 이용한 신라의 승리로 막을 내립니다. 그동안 수많은 전쟁들이 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백제의 성왕도 관산성에서 전사합니다. 이후 백제의 공격으로 대야성에서 성주인 김춘추의 사위 김품석과 김춘추의 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결국 백제는 나당 연합군의 마지막 공격으로 도성인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멸망합니다. 이렇듯 삼국의 통일 과정에서 성을 둘러싼 많은 전쟁이 벌어졌고 마침내 신라의 승리로 돌아갔는데요, 경기도에 있는 신라의 성들을 통해 당시 치열한 전쟁의 현장으로 함께 가 볼까요?

문화유산
속으로
이야기 하나

한강 지배와 삼국 통일의 기반이 된 경기도의 신라 성곽

경기도 지역의 신라 성곽들은 신라가 한강 유역을 장악하는 6세기 중엽부터 만들어집니다. 한강 유역을 둘러싼 삼국 간의 항쟁은 치열하다 못해 치절하기까지 했습니다. 삼국 중 마지막으로 한강 유역을 차지한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의 공격에 맞서 이 지역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튼튼한 성곽이 반드시 필요했겠죠? 그래서 6세기 중엽부터 7세기 중엽까지 경기도 지역에 가장 많은 신라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고구려 멸망 이후 한반도를 차지하고자 했던 당을 몰아내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던 시기에도 많은 성을 쌓는데요, 특히 대당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675년 이후에는 예성강 이남의 점령 지역에 성을 본격적으로 쌓는데, 이때 호로그루, 당포성 등의 고구려 성곽을 확장하거나 고쳐서 쌓았습니다.



이성산성의 성벽 내부. 성벽 안쪽은 잡석으로 채우고 바깥쪽은 규격화된 성돌로 쌓았다.

그럼 경기도 지역의 신라 성곽의 특징을 알아보까요? 먼저 대부분 산성입니다. 백제는 평지나 낮은 구릉지를 배경으로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 등을 쌓았어요. 경기도의 고구려 성곽은 호로그루처럼 강을 끼고 있는 높은 대지에 있습니다. 신라는 산의 정상에 주로 성을 쌓았습니다.

2번째 특징은 대부분 돌을 쌓은 석성이라는 점입니다. 경기도의 신라 성곽은 잘 다듬은 화강암 등의 성돌로 쌓았습니다. 백제가 한강 유역에 쌓은 성들이 흙을 단단히 다져 쌓은 토성이라는 점과 비교해 보면 신라 성곽의 특징을 잘 알 수 있습니다.

3번째 특징은 둘레가 1킬로미터 정도 되는 성들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방사상의 모습을 띠고 분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성이 적군을 막아 내는 군사적 기능은 물론 지방 행정 단위를 다스리는 행정적인 기능까지 함께 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위해 대부분 신라성은 교통상의 요충지에 배후에 넓은 평야를 갖춘 곳에 위치합니다.



이성산성 성벽. 성벽의 맨 아랫단은 큰 돌을 쌓아 성벽의 무게를 지탱하게 하였다.

4번째 특징은 성문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문이라고 하면 대부분 커다란 문이 양쪽에서 열리고 닫히는 문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신라의 성문은 계단식으로 성벽을 쌓은 다음, 사다리를 놓아야 오르내릴 수 있는 현문식 성문이 대부분입니다. 현문식 성벽은 출입은 불편하지만 사다리만 치우면 일반 성벽과 큰 차이가 없어 방어에 편리합니다.

마지막 특징은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성벽의 밑부분에 성벽을 덧붙여 쌓는 보축을 했다는 점입니다. 성벽을 돌로 높이 쌓으면 성벽의 무게가 엄청납니다. 이 무게를 지탱하는 밑부분을 튼튼하게 쌓지 않으면 적의 공격이 문제가 아니라 지진, 홍수 등의 자연재해, 혹은 구조상의 결함 때문에 폭삭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일직선상으로 곧게 쌓아 올린 성벽은 보기에는 매끈하지만 안정적인 구조는 아닙니다. 좌우로 움직이는 움직임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벽의 밑부분에 성돌을 덧붙여 쌓아 구조적인 안정을 꾀하는 방법이 보축입니다.



사다리를 놓아야 들어올 수 있는 현문식 성문.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한강 유역을 기반으로 한 해상활동을 통해 삼국의 각축전에서 가장 먼저 앞서 나간 해상 국가 백제도, 만주 벌판을 호령하며 중국의 통일 왕조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대제국 고구려도 삼국 통일의 승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반도 동남부의 경주 지방을 중심으로 가장 늦게 국가 발전을 이룩한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라의 통일을 끌어들이 거저 얻은 것이라고 비난하지만 경기도 지역의 신라 성들을 보면 신라인들이 삼국 통일을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반도 최초의 통일 국가 건설이라는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화유산
속으로
이야기들

하남시 이성산성

사적 제422호인 이성산성은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이성산에 있는 높이 209미터의 포곡형 산성입니다. 포곡식이란 산정상은 물론 계곡까지 포함해서 크게 쌓은 산성을 말합니다. 돌로 쌓은 성벽의 둘레는 총 1,665미터이고, 성 안의 면적은 160,361제곱미터로 상당히 넓습니다. 이 산성은 북쪽으로는 한강 유역의 넓은 지역을 조망할 수 있고, 서쪽으로는 시야가 트여 있어 아차산 일대와 풍납토성, 몽촌토성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한강을 점령한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의 위협으로부터 한강 유역을 지키는 데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1986년부터 현재까지 13차례 발굴 조사가 이루어져서 사각형 건물지와 함께 8각, 9각, 12각 등의 다각형 건물지, 성벽이 급격히 꺾이는 부분에 설치한 치, 성 안에서 사용하는 물을 저장하는 네모꼴의 저수지 2곳 등의 구조물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9각형 건물지는 우리나라 건물 형태로는 유일한 것입니다. 9각형 건물은 어떤 기능을 했을까요? 9라는 숫자는 고대에는 하늘을 상징하는 숫자였습니다. 따라서 9각형 건물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성스러운 제단의 기능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 안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건물이 있다는 것은 이성산성이 경기도의 다른 신라 성에 비해 더 높은 위상을 가진 중요한 곳이었음을 보여 줍니다. 그래서 이성산성은 신라가 6세기 중엽 한강 하류 지역을 장악하고 설치한 행정 구역인 신주의 중심지로 쌓았고, 이후 신주가 한산주로 바뀐 7세기 중엽 이후에도 중심지로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산성 9각형 건물지. 9는 하늘을 상징하는 숫자로 이 건물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신성한 공간이었을 것이다.

저수지 안에서도 쇠도끼와 쇠스랑, 벼루 등의 생활용품과 함께 목간이 출토되었습니다. 목간이란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 글을 적는 데 사용한 자 모양의 얇은 나무쪽을 말합니다. 저수지에서 출토된 목간 중에는 '무진년', '남한성', '도사' 등의 글자가 먹으로 쓰여진 일명 '무진년 목간'이 있습니다. 이 목간의 기록을 통해 이성산성이 당시 '남한성'으로 불렸으며 도사 등의 지방관이 다른 성으로 행정 명령을 내렸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벽은 2차에 걸쳐서 쌓은 것으로 보이는데 1차 성벽을 쌓은 후 시간이 지나 성

벽이 무너지자 1차 성벽의 바깥쪽으로 대략 3.8미터 지점에서 새로운 성벽을 덧붙여 쌓았습니다. 1차 성벽과 2차 성벽은 성 쌓기 기법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1차 성벽은 옆으로 긴 돌 다듬어진 성돌을 이용하여 퇴물림 없이 거의 수직에 가깝게 쌓아 올렸습니다. 이에 비해 2차 성벽은 성벽의 바닥 부분을 다진 후 바닥에 커다란 성돌을 지대석으로 삼아 성벽을 든든하게 받치는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그 위에 쌓은 성돌도 표명과 모서리를 정교하게 다듬은 폭 30센티미터 내외의 옥수수 알갱이 모양의 돌을 사용했습니다. 성벽을 쌓아 올린 형태도 수직이 아닌 밑 부분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씩 들쭉날쭉한 퇴물림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성산성은 규모와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 백제의 도읍인 하남 위례성으로 추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발굴 조사 결과 신라가 한강 유역을 장악하고 신주를 설치한 후 점령 지역의 군사적, 행정적 중심지로 쌓은 성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발굴 조사는 유적의 정체를 정확히 드러내어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9각, 12각 등의 특수 건물지 건립된 것으로 보아 이성산성이야말로 백제의 초기 도읍인 하남 위례성입니다.

그렇다면 백제의 유물이 나와야 하는데 신라 유물만 나오네요. 또한 성벽 축조 방식이 신라의 성 쌓기 방식이므로 신라의 성곽으로 추정됩니다.

문화유산
속으로
이야기 셋

백제가 처음 쌓고 신라가 증축한 설봉산성(이천시)

이천 지방은 비옥한 평야 지대이며 한강을 이용한 교통의 요지입니다. 고대에는 한성 백제시대와 고구려 점령기를 거쳐 신라가 한강 유역을 진출하여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이곳의 중요성은 신라의 지방 군사조직인 '십정+亭' 중 하나인 남천정南川亭이 설치된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사적 제423호인 설봉산성은 이천 시내를 감싸고 있는 설봉산에 위치한 삼국시대의 산성입니다. 관고리성지 또는 무안산성이라고도 불리며 설봉산의 정상부에서 동쪽으로 약 700미터 떨어진 봉우리의 능선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은 물론 주변 지역을 넓게 조망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에 해당합니다. 성벽의 전체 둘레는 1,079미터이고, 남북의 길이 380미터이고, 동서의 길이 226미터인 장방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 내의 면적은 85,880제곱미터로서 삼국시대의 성 중에는 비교적 큰 규모에 속하는 산성입니다.

성 안에서 가장 높은 칼바위 부근에는 신라가 축조한 것으로 보이는 장대지가 있습니다. 장대가 성 안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대란 전투가 벌어졌을 때 혹은 군사훈련을 할 때 장수가 군사를 지휘하는 곳입니다. 군사를 지휘하기 위해서는 장수가 전투의 상황이나 아군과 적군의 위치 등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변 상황이 내려다보이는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지요? 정면 5칸, 측면 2칸 정도의 규모의 장대지에서는 담장이나 온돌 등의 시설이 발견되지 않아서 사방이 트인 누각 형태의 장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설봉산성은 백제가 처음 쌓은 성을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성벽을 고치고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등 증축한 산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단국대학교에 의한 발굴 조사 결과 정상부인 칼바위 부근의 토광과 서문지 하부에서 백제의 토기가 다수 출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서문지는 그 이전에 백제가 쌓은 성벽이 있었던 것을 신라가 허물고 문으로 만든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출토된 백제토기들이 백제가 한성을 수도로 삼았던 시기의 것들이므로 보아 백제가 몽촌토성이나 풍납토성 등 흙으로 쌓은 토성뿐만 아니라 석성을 쌓기도 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설봉산성 장대지 부근의 깃봉. 군대를 상징하는 깃발을 꽂았던 흙이 보인다. 주변에 성벽 방어를 위해 쌓아둔 돌무더기도 3곳이 남아 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설봉산의 정상 주변에도 조그만 성이 2기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성들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1기는 설봉산 정상부를 둘러싼 테피식 산성이고, 다른 하나는 이 산성에서 약 80미터 떨어진 북동쪽 봉우리에 있습니다. 이 두 성은 조그만 규모의 성으로 규모가 작고 식수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병사들이 주둔하기는 힘듭니다. 설봉산성을 보완하기 위해 쌓은 작은 성으로 추정됩니다. 설봉산성에서는 서남쪽이 정상부에 가로막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상부에 2개의 작은 성을 쌓은 것이지요. 그리고 설봉산성에서 이 두 산성까지는 폭 2미터 내외의 자연 능선이 연결되어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능선의 양쪽은 거의 절벽이라 자연 성벽의 역할까지 담당합니다.



설봉산성 성벽과 성벽 앞에 설치된 목책 말뚝.

백제가 쌓은 성을 고구려가 차지했다가 다시 신라가 빼앗아 새로 고친 것이 설봉산성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5세기 후반 고구려의 남하 정책으로 촉발된 삼국 간의 상호 경쟁이 한강 유역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전개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의 흔적이 경기도의 성곽 속에 그대로 남아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생각 나누기



1. 위 글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신라성의 특징을 5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2. 한강 유역을 점령한 신라가 이성산성을 쌓은 이유를 지리적인 이점과 연관 지어 설명해 봅시다.

3. 설봉산성은 백제가 처음 쌓은 성을 신라가 차지한 후 새로 고쳐 쌓은 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어떻게 밝혀졌을까요?

생각 더하기

1. 다음 문제의 정답을 아래 표에서 찾아 표시해 봅시다.

- 가. 이성산성에서 출토된 목간에 새겨진 연도
- 나. 대야성 성주로 김춘추의 사위
- 다. 성벽 밑부분에 덧대어 쌓아 성벽을 지탱하는 방법
- 라. 설봉산성에 설치된 신라의 지방 군사조직 명칭
- 마. 이성산성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낸 곳으로 보이는 곳.
- 바. 설봉산성은 사적 제 몇 호일까요?

방	소	자	시	트	와	이	스
샘	탄	9	유	사	랑	8	백
보	총	무	각	학	본	각	제
축	두	진	년	건	년	제	경
완	소	년	왕	단	물	단	기
남	5	김	연	양	회	지	문
천	산	0	김	품	석	7	화
정	4	2	3	만	세	해	요



1 미사리 선사유적지

- ◆ 사적 제269호
- ◆ 소재지: 하남시 미사동 557-1
- ◆ 1962년 발견된 유적으로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를 거쳐 원삼국 시대, 백제까지 여러 시대에 걸친 문화유적이 각각 층위를 이룬 채 발견되었다. 신석기시대 층에서는 빗살무늬토기, 어망추 등이, 청동기시대 층에서는 무문토기와 당시 집터가, 백제 시대층에서는 국내 최초로 대규모의 발이 발굴되었다.



4 하남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

- ◆ 보물 제981호
- ◆ 소재지: 하남시 교산동 산10-3
- ◆ 삼각형 바위에 조각된 높이 93c센티미터의 마애불로서 정교한 조각 솜씨에 불상 몸체의 비례도 훌륭하다. 왼손에 약그릇을 들고 있어 병을 고쳐주는 약사불임을 알 수 있다. 불상의 왼편에는 “태평 2년(977) 정축 7월 29일에 옛 석불이 있던 것을 중수하오니 지금 황제의 만세를 기원합니다.” 라는 뜻의 한문이 새겨져 있다. 옆에는 객산 폭포와 약수터가 있다.



2 하남동사지

- ◆ 사적 제352호
- ◆ 소재지: 하남시 서하남로418번길 122 (춘궁동)
- ◆ 고려 초기에 창건된 거대 규모의 절터로서, 금당 규모가 경주 황룡사 금당에 필적하는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1988년 발굴 작업 시 ‘桐寺(동사)’라는 이름의 명문기와가 출토되어 절터임이 확인되었다. 고려 시대에 제작된 보물 제12호인 오층석탑과 보물 제13호인 삼층석탑이 있다.



5 밀성군 묘역 및 신도비

- ◆ 향토유적 제2호
- ◆ 소재지: 하남시 초이동 56 (초이동)
- ◆ 조선조 세종의 열두 번째 아들인 밀성군(密成君, 1430~1479) 이침의 묘이다. 묘역 앞에는 신도비가 세워져 있다. 근처에 아들인 운산군 이계의 무덤이 있고(초이동 산4-1), 덕풍1동에는 조선의 2대 국왕인 정종의 넷째 아들 선성군 이무행과 그 자손들의 묘역인 선성군 묘역 및 석물(향토유적 제9호)이 있다.



3 광주향교

- ◆ 문화재자료 제13호
- ◆ 소재지: 하남시 대성로 126-13(교산동)
- ◆ 정확한 창건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숙종 29년(1703)에 이성산성 아래에서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 공립학교로서 15세 이상의 양반자제들이 공부했다. 광주향교는 지금의 수원, 화성, 의왕, 성남, 광주, 강동, 강남, 송파까지 관장하던 전국에서 제일 큰 향교였다고 한다. 향교에는 대성전, 명륜당, 동무, 서무를 비롯한 6동의 건물이 있다.



현장 체험 학습

이천시 문화유산 안내도



1 영월암 마애여래입상

- ◆보물 제822호
- ◆소재지: 이천시 관고동 산64-1 설봉산
- ◆높이 약 10미터의 자연 암석을 다듬고 바위면 전체에 꼭 채워 조각한 마애불로 전체적으로 장대하며 힘찬 솜씨를 보이고 있어 고려 초기에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 말 고승인 나옹 선사가 부모님의 명복을 기원하기 위해 조성한 것이라는 유래가 전해오고 있다.



5 지석리 지석묘

- ◆향토유적 제4호
- ◆소재지: 이천시 신둔면 수하리 746-2
- ◆지석리 마을 진입로에서 오른쪽으로 10미터가량 떨어진 논두렁에 위치해 있는 청동기시대 유적이다. 무덤방을 지하에 두고 그 위에 개석을 얹은 탁자식으로, 마을 어른들에 의하면 오래전 이곳에서 돌칼, 돌화살촉 등의 유물이 출토 되었다고 하나 그 행방은 알 수 없다. 지석묘가 위치한 지역 일대에는 청동기시대와 백제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무덤들이 있어 청동기 시대 또는 백제 초기의 고분 연구에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2 이천백송

- ◆천연기념물 제253호
- ◆소재지: 이천시 백사면 신대리 산32
- ◆백송은 소나무과에 속한 바늘잎 상록수이다. 중국이 원산지로서 우리나라에는 서울에 4그루, 밀양, 보은, 예산에 각각 1그루, 그리고 이천에 1그루 등 모두 8그루밖에 없는 매우 희귀한 종이다. 마을 뒷동산에 있는 이 백송은 과거에는 그 껍질이 약재가 된다는 속설 때문에 물지각한 사람들이 몰래 껍질을 벗겨가는 등 수난을 겪기도 했다. 근처인 백사면 도립리에는 천연기념물 제381호인 반룡송이 있다. 반룡송은 용의 모습을 한 소나무라는 뜻으로 신라 말 도선 대사가 심었다는 전설이 있다.



6 서희테마파크 내 서희역사관

- ◆소재지: 이천시 부발읍 무촌로18번길 130
- ◆고려시대 외교관인 서희의 활동을 이해하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역사를 체험하고 미래상을 그려 볼 수 있도록 전시관, 체험관, 영상관, 추모관 등의 공간으로 구성된 복합문화의 장이다. 서희테마파크 안에는 서희 선생의 일대기를 이야기로 엮어 30종의 조각품으로 형상화한 서희 역사 산책로가 있어 서희의 생애를 체험할 수 있다.



3 어재연 장군 생가

- ◆중요민속문화재 제127호
- ◆소재지: 이천시 울면 일생로 897번길 22-47(산성리 74)
- ◆1871년 신미양요 때 미국 로저스 제독이 지휘하는 군함과 광성진에서 전투를 벌이던 중 전사한 어재연(1823~1871) 장군의 생가다. 19세기 초의 건물로 변형 없이 원형대로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7 이천거북놀이

-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0호
- ◆소재지: 하남시 교산동 산10-3
- ◆이천 거북놀이는 이천 지역에서 음력 8월 15일 한가윗날 행하던 민속놀이이다. 1978년 이후 이천의 대표적인 민속놀이로 재현되고 있다. 거북놀이는 준비 과정부터 실제 놀이까지 마을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대동놀이의 성격을 지닌다. 또한 장승굿, 우물굿, 터주굿, 문굿, 조왕굿, 대청굿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 놀이 과정은 전통 신앙의 모습도 보여준다. 2004년부터 매년 <거북놀이축제>가 개최된다.



4 이천향교

-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22호
- ◆소재지: 경기도 이천시 향교로 1
- ◆망현산(아리산, 향교산, 또는 위후산으로 불림) 밑에 자리 잡은 이천향교는 조선개국 11년 태종 2년(1402)에 변인달에 의해



경기도의 나간수호 유적



7차시

외적에 맞서는 경기도 사람의 지혜



용인시의 처인성입니다. 고려시대 몽골의 침입에 맞서 김윤후가 적의 장군 살리타를 사살한 곳이지요.

용인시 캐릭터 미래 소년.

성남시의 천림산 봉수지입니다. 조선시대 지방에서 올라온 신호가 이곳에서 서울로 전달되었습니다.



성남시 캐릭터 새남이와 새롱이.



생각 열기

왜구의 침입을 알린 봉수대



지금 우리는 친구나 가족들과 빠른 연락을 하기 위해서 휴대 전화를 사용합니다. 그럼 휴대 전화가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소식을 전했을까요? 사람을 통해 편지를 전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없었어요. 하지만 외적의 침입 등 나라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소식은 빨리 전할수록 좋겠지요? 그래서 만들어진 통신 제도가 봉수입니다. 봉이란 횃불이란 뜻이고, 수는 연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봉수는 횃불과 연기로 멀리 떨어진 곳에 정보를 전달하는 이동통신 제도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나라는 외침에 대비해서 전국의 중요한 지점에 봉수를 설치해서 각 지방의 중요하고 급한 소식을 빨리 전할 수 있도록 했어요. 오늘은 고려시대 몽골의 침입을 막아 낸 용인 처인성과 외적의 침입 등을 빨리 알려 대비하게 해주는 통신 제도인 천림산 봉수에 대해 알아보까요?

문화유산
속으로
이야기 하나

옛날의 이동통신, 봉수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 중 하나가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말과 글을 통해 정보를 나누고, 지식을 전수하고 발전시킵니다. 함께 어울려 공동으로 일하는 인간에게 언어를 사용한 소통은 없어서는 안되겠죠. 하지만 멀리 떨어져 소리 쳐도 들리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를 위해 사람들은 깃발이나 몸짓 등의 다양한 신호를 사용한 통신 수단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런 통신 수단 중에서 가장 체계화된 것 중 하나가 바로 봉수입니다. 봉수는 해안이나 국경 지역 등에서 외적의 침입이 있었을 때 이를 약속한 신호를 이용해 중앙에 전달하는 통신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목적의 통신 제도인 것이죠.

- 봉화의 신호 방법**
- 1봉 평 시
 - 2봉 적의 출현
 - 3봉 적의 접근
 - 4봉 적의 침입
 - 5봉 점진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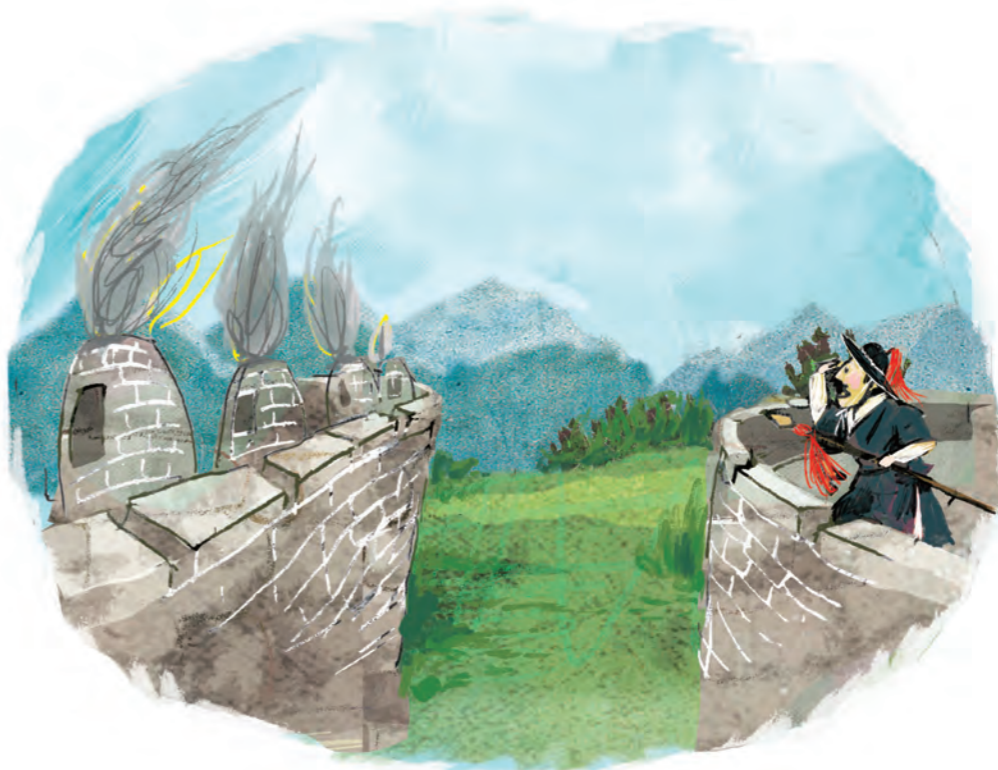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는 봉수를 언제부터 사용했을까요?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등의 기록을 보면 삼국시대부터 봉수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약속한 신호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도 않았고 봉수대가 전국적으로 잘 갖추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불과 연기로 필요한 때 신호를 해서 전투에 활용한 것일 뿐입니다. 봉수가 잘 정비된 신호 체계를 갖춘 것은 고려 전기부터입니다. 이때부터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신호를 전하되 그 위급 수준에 따라 피우는 횟수가 달랐습니다. 즉 평상시에는 1번씩 올리고, 2급에는 2번, 3급에는 3번, 4급에는 4번 불이나 연기를 피워 신호를 하도록 약속을 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비가 오거나 바람이 세게 불면 연기가 제대로 피워 오르지 못하고 불도 꺼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럴 때에는 징이나 팽가리, 북 등의 악기를 사용하여 신호를 하거나, 색이 다른 깃발을 활용해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봉수꾼이 직접 다음 봉수대로 달려가서 소식을 전하는 방법이었습니. 봉수대는 보통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해안가나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비바람이 불어 불과 연기를 피울 수 없을 때 봉수꾼들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 갔을 것입니다. 다음 봉수까지 산 넘고 물 건너 달려가야 하니까요.

봉수와 봉수 간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불과 연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까워야 하지만 너무 가까우면 봉수를 많이 만들어야 해서 관리가 힘들지요. 봉수 간에 서로 연락이 가능한 거리는 대략 10킬로미터 내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호

를 주고받기 좋은 산 정상이나 능선을 따라 대략 10킬로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변방에서 서울까지 봉수를 설치했습니다.

그럼 국경의 소식이 봉수를 통해 서울까지 전해지는 데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조선시대 남산에는 봉수대가 5개가 있었습니다. 이 봉수대들이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봉수 신호를 모아 정리하는 최종 목적지였어요. 이곳에서 모인 각 지역의 정보가 병조를 통해 임금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국경에 설치된 봉수대 간의 거리는 조밀한 편이고, 내륙으로 갈수록 봉수대 사이의 거리를 멀게 두었다고 하는데요. 12시간 정도면 국경의 소식을 서울에서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휴대 전화만 꺼내면 전국은 물론 전 세계의 어디서나 바로바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지금하고 비교하면 대단히 느리지요. 평상시에는 병조에서 매일 새벽 승정원에 보고를 해서 임금에게 전달했지만 전쟁이나 반란 등의 급한 소식은 밤중이라도 즉시 승정원에 알려서 임금께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문화유산
속으로
이야기들

몽골의 침략을 물리친 용인시 처인성

경기도 기념물 제44호인 처인성은 용인시와 안성시, 평택시의 경계가 되는 지점에 있는 남사 저수지 북쪽에 있습니다. 야트막한 야산의 끝자락인 구릉 위에 흙으로 쌓아 올린 토성으로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에 성벽이 훼손되어 동·서·남쪽에만 성벽이 낮게 남아 있습니다. 전체 형태는 사다리꼴 형태이며 둘레가 총 425미터, 현재 남아 있는 성벽의 길이는 약 250미터 정도의 작은 규모로 멀리서 보면 자그마한 야산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변듯한 군사시설이나 웅장한 성벽도 없는 불품없는 야산처럼 보이는 이 성에서 지금부터 800여 년 전 세계 최강의 몽골군을 물리친 처인성 전투가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처인성 전투에 대해서 알아보을까요?

몽골군이 침입하였을 때 고려는 무신정변으로 권력을 잡은 최씨 무신 정권의 시대였습니다.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최우는 몽골의 침략에 맞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없었던 채 임시방편으로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고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이때 농민과 천민들이 스스로 방어군을 편성하여 몽골군의 침입에 맞섰습니다. 처인성 전투는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처인성 전투가 벌어진 이곳은 고려시대 처인부곡¹으로 불렸던 곳입니다. 나라로부터 차별을 받았지만 몽골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기에 빠지자 처인부곡의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뭉쳐서 세계 최강으로 이름을 떨치는 몽골의 군대와 용감히 맞섰습니다.

이 용감한 대열의 맨 앞에 선 사람은 고려의 용맹한 장군도 아닌 부처를 모시는 승려 김윤후였습니다.

김윤후는 누구일까요? 김윤후는 승려로 백현원에 살다가 몽골군이 쳐들어오자 처인성으로 몸을 피합니다. 이때 몽골군



처인성 앞에 세워진 승첩기념비.

의 원수 살리타가 전쟁에서 중요한 지역이었던 광주를 함락시키지 못하자, 그 아래에 위치한 처인성을 공격하였습니다. 이때 김윤후가 몽골군의 장군 살리타를 화살로 쏘 죽이자 몽골군은 서둘러 철수하였습니다. 당시 왕은 그에게 상장군의 관직을 주려하였지만 그는 너무 큰 상을 받을 수 없다고 사양했습니다. 결국 낮은 관직인 섭랑장을 받았으며, 처인부곡도 백성들의 용감한 항쟁을 인정받아 처인현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이 성에서 북쪽으로 마주 모이는 곳에 말안장 모양의 야산이 있는데, 여기서 살리타가 화살을 맞고 전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사장死將터'라고 부릅니다.



이후 몽골군의 5차 침입 때에는 충주산성 방호별감으로 충주성을 지켰습니다. 당시 몽골군의 침입에 맞서 70여 일을 버텼지만 식량이 떨어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그는 “힘써 싸워 이기면 귀천을 가리지 않고 관직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며 관청 노비들의 명부를 불태우고 몽골군으로부터 빼앗은 소와 말을 나누어 주며 충주성민의 사기를 올렸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용감히 싸워 마침내 몽골군을 물리쳤습니다.

평화의 시기에는 누구나 자신이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몸 바쳐 싸우겠다고 나서지만 정작 전쟁의 시기에 몸 바쳐 싸우는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런 비겁한 모습은 부와 권력을 가진 지배층들에게서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처인성 전투에서 활약한 승려 김윤후를 비롯한 처인부곡민의 용감한 항쟁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비로소 자신을 드러낸 ‘진짜 영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문화유산
속으로
이야기 셋

조선시대 이동통신 시설, 천림산 봉수(성남시)

경기도 기념물 제179호인 천림산 봉수지는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과 상적동 옛골 간의 청계산 동쪽 기슭인 해발 약 170미터 가량의 나지막한 구릉능선에 있습니다. 봉수의 형태는 동서 방향으로 긴 타원형이며 전체 둘레 약 80미터, 동서 길이 33.6미터, 남북 길이 12미터, 전체 면적은 333제곱미터입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봉수가 54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천림산 봉수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천림산 봉수가 조선 초기 봉수의 전형적인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존하는 봉수 중에 가장 크며, 구조적으로 가장 완벽한 5개의 연기 구멍, 방호벽과 담장 시설 등 옛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보호 가치가 높은 문화재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봉수는 조선시대 5개의 봉수 노선 중 제2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2로는 부산 동래 다대포진 응봉에서 시작하여 경상도, 충청도를 거쳐 경기도로 들어오면 안성 망이성과 용인 석성산 봉수를 거쳐 천림산 봉수에 도달합니다. 천림산 봉수는 경기도의 마지막 봉수로 일본의 동향을 서울 남산의 경봉수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봉수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근무를 했을까요? 봉수꾼은 그 지역의 주민을 강제로 뽑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기피하면서 봉수꾼의 신분은 점점 낮아졌고, 결국 조선시대 가장 천하고 고된 직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천림산 봉수에는 봉군이 25명, 봉군보 75명이 배치되었습니다. 25명의 봉군이 5명이 한 조를 이루어 5교대로 월 평균 6일씩 근무를 했습니다. 봉군보 75명은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를 서는 봉군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봉군 1명당 3명의 봉군보가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천림산 봉수의 발굴 모습.



봉수대의 소식은 나라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봉수꾼이 근무를 게을리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엄한 벌로 다스렸습니다. 특히 적과 싸우고 있는데도 신호를 울리지 않은 경우 봉수꾼은 물론 그 지방 수령까지 사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산꼭대기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봉화를 피워야 하는 일은 매우 고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책임까지 무거우니 사람들이 하기 싫어했겠죠. 고되고 천한 일을 한다고 알보는 풍토는 어느 시대나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되고 천하게 여기는 일이라고 아무도 봉수대를 지키지 않았다면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지 못하고 결국 모든 국민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낮은 곳에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일이 힘든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회야말로 모두 함께 잘 사는 사회라는 것을 해안가나 산꼭대기의 봉수대를 묵묵히 지키는 봉수꾼을 통해 생각해 봅시다.



1 용인서리고려백자요지

- ◆사적 제329호
- ◆소재지: 용인시 이동면 중덕로 7
- ◆고려 초기에 백자를 구워낸 가마터이다. 거대한 퇴적층과 벽돌·진흙 가마의 존재, 다양한 모양의 백자 조각 등이 발견되어 통일신라 말기부터 고려 전기에 이르는 도자기의 발전 과정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백자의 발생과 변천 과정을 연구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삼고 신앙의 대상이 되었던 선돌이다. 뒷면이 한쪽으로 뾰족하여 마치 칼을 꽂아 놓은 듯하여 '검바위'라고도 부른다. 선돌이 쓰러지면 재앙이 일어난다는 말이 있어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 잘 돌보고 있다.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의 사암리 선돌(용인시 향토유적 제22호)도 민간 신앙을 잘 보여 주는 선돌이다.

2 용인심곡서원

- ◆사적 제530호
- ◆소재지: 용인시 수지구 심곡로 16-9
- ◆기묘사화로 목숨을 잃은 사람 개혁의 대명사 정암 조광조를 배향한 서원이다.



5 정몽주 선생묘

- ◆경기도 기념물 제1호
- ◆소재지: 용인시 모현면 능곡로 45
- ◆'살아서 진천, 죽어서 용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용인에는 유명한 역사 인물들의 무덤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고려 말의 충신인 정몽주의 묘이다. 묘 옆에는 정몽주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충렬서원이 있고 정몽주의 초상이 소장되어 있다. 이외에도 세종 때 대마도 정벌에 나선 이종무, 정조의 정책을 보좌한 재상 채제공, 을사늑약의 강제 체결에 항거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민영환, 조선 후기 대표적 실학자인 유형원 선생의 묘가 용인시에 있다.



3 백자대호

- ◆국보 제262호
- ◆소재지: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로 134 용인대박물관
- ◆용인에는 경기도박물관을 비롯하여 명지대박물관, 석주선박물관, 호암미술관, 아모레퍼시픽박물관 등 많은 박물관에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용인대 박물관에는 '달항아리'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백자대호와 함께 국보 제263호인 청화백자산수화조문대호, 보물 제1286호인 수월관음도 등이 소장되어 있다.



6 경기민요

- ◆중요무형문화제 제57호
- ◆소재지: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358번길 17
- ◆서울과 경기 지역에 전승되는 민요를 경기민요라고 한다.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경기 민요에는 <경기십이잡가>와 <청춘가>, <창부타령> 등의 경기민요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경기민요 보유자인 이춘희 선생은 경기민요를 공연하고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다.

4 용인 남사면 창리 선돌

-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61호
- ◆소재지: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창리 487-1번지
- ◆마을 입구에 세워져 마을 표식으로





1 한산이씨 묘역

◆도기념물 제116호
 ◆소재지: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50
 ◆분당 신도시 개발 당시인 1989년 한산 이씨 묘역의 보존을 결정하고, 경기도기념물 제116호로 일괄 지정하여 수내동 중앙공원 안에 조성하여 보존하고 있다. 묘역은 조선 중기부터 후기에 걸쳐 영장산 일대에 조성되었는데, 전체 규모는 약 287,000제곱미터에 이른다. 묘역에는 토정 이지함의 조부로 봉화현감을 지낸 이장윤(1455~1528)의 묘를 비롯하여 임진왜란 때 상주에서 싸우다 목숨을 잃은 충신 이경류(1564~1592)와 정부인 횡성 조씨, 그가 타던 말의 무덤 등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중앙공원 탄천변의 비각에는 1715년 세워진 이증 신도비와 1728년에 세워진 이정룡 신도비가 있다. 그 옆에는 이경류의 충신정려문과 1728년에 건립한 한산이씨삼세유사비가 나란히 서 있다. 한산이씨 묘역은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 당대를 대표할 만한 사대부의 세장 묘역이라 평가된다.



2 수내동 가옥

◆도문화재 자료 제78호
 ◆소재지: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253
 ◆수내동 가옥은 분당 신도시 개발 이전, 이곳에 모여 살았던 한산 이씨 집안의 살림집 중 한 채로 이택구가 거주하였던 집이다. 과거 수내동 지역은 약 70호 가량이 마을을 이루고 있었으며, 그중 한산 이씨는 30여 호 가량 되는 집성촌이었다. 현재는 분당지구 개발로 인하여 철거되고 이 집만 남았다. 이 가옥은 대략 150~200년 전에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집 주위에는 마을 어귀에 있던 큰 느티나무와 연못, 정자터 등이 보존되어 있다. 조선 후기 경기 지역 살림집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



3 판교박물관

◆소재지: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191
 ◆삼국시대 고분의 실제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고분 전문' 박물관이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판교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발견된 삼국시대의 고분과 각종 유물을 옮겨 놓았다. 특히 박물관에는 4~5세기 한성백제시대 돌방무덤 7기와 고구려 돌방무덤 2기 등 모두 9기의 삼국시대 고분(시향토문화재 제11호)이 전시되어 있는데, 고분을 해체하지 않고 통째로 옮겨 전시하는 방식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됐다. 전시실



4 봉국사 대광명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1호
 ◆소재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로 79
 ◆봉국사는 영장산 기슭에 있는 절로 고려 현종 19년에 처음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봉국사라는 이름은 조선 현종 15년에 현종 임금 이 어려서 일찍 죽은 명혜, 명선 두 공주의 명복을 빌기 위해 공주의 능 근처에 있던 이 절을 다시 지으면서 정해진 것이다. 그러나 점점 절의 세력이 기울어 대광명전과 승방만 보존되어 오다가 1970년대 들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대광명전은 조선 현종 때의 건물은 아니고 19세기 말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광명전은 원래 비로자나불을 모시는 법당을 뜻하지만 봉국사의 대광명전은 목조아미타여래좌상(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09호)이 모셔져 있다. 또한 뒤쪽 벽면에는 아미타 불회도(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10호)가 있다. 건물 기단의 양쪽에는 사자 형태를 한 조각상이 있어서 특이하다.



5 매듭장

◆중요무형문화재 제22호
 ◆기능 보유자: 정봉섭
 ◆매듭장이란 끈목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종류의 매듭을 짓고, 술을 만드는 기술 또는 그러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끈목은 여러 가닥의 실을 합해서 3가닥 이상의 끈을 짜는 것을 말하는데, 그 종류에는 돌레가 둥근 끈으로 노리개나 주머니 끈에 주로 쓰이는 동다화와 넓고 납작한 끈으로 허리띠에 자주 사용되는 광다화가 있다. 복식이나 의식도구 장식에 사용되는 매듭은 '격답' '결자'라고 한다. 매듭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조선시대에는 국가 소속의 매듭장이 있었다. 매듭에 사용되는 끈의 색깔, 굵기, 맺는 방법에 따라 형태가 다양하며 지방에 따라 그 이름도 다르다. 매듭의 이름은 생쪽, 나비, 잠자리, 국화 등 우리가 쉽게 보고 사용하는 온갖 물건, 꽃, 곤충에서 따왔다. 끈이나 매듭의 하단에 다는 것을 술이라 하는데 각종 악기, 교통 용구, 불교 도구 등의 장식에 사용하였다. 술 또한 쓰임새에 따라 딸기술, 봉술, 호패술, 선추 등 다양하다.

경기도의 자연수호 유적



바자시

전쟁을 극복한 경기도 사람



오산시 캐릭터 까산이.

오산시의 독산성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권율이 이끄는 조선군이 일본군을 격퇴한 곳이지요.

광주시의 남한산성입니다. 남한산성은 백제 때부터 쌓은 성으로 조선시대 청의 침략에 맞서 인조가 피신하여 항전한 곳입니다.



광주시 캐릭터 그리니와 크리니.



생각 열기

남한산성을 쌓은 이희의 억울한 죽음



남한산성 수어장대 밑의 매바위에는 억울하게 죽은 이희 장군의 전설이 전해집니다. 하지만 무능한 왕에 의해 희생당한 장군이라는 스토리는 우리 민족 역사에서 지배층의 무능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남한산성을 쌓은 일이 힘들었기에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 것은 아닐까요? 2014년 우리나라의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세계에 자랑할 만한 문화유산인 남한산성에는 조선시대 병자호란이라는 뼈아픈 전쟁의 기억이 서려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이 겪은 두 차례의 전쟁, 임진왜란·병자호란과 관련된 경기도의 성곽에 대해 공부해 볼까요?

문화유산
속으로
이야기 하나

조선이 겪은 두 차례의 전쟁,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1392년 이성계와 신진사대부에 의해 조선이 건국된 이후 200년 동안 전쟁 없는 평화로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조선은 중국의 명에 대해서 황제로 섬기며 조공을 바치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여진, 일본 등의 주변 국가들과는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누는 정책을 폈죠. 이를 '사대교린'이라고 합니다. 사대교린 외교 정책의 목적은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세상에 좋은 전쟁이란 없습니다. 전쟁은 아무리 명분이 옳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재산을 없애는 파괴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조선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사대교린은 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외교정책이다.”



하지만 우리가 평화를 외친다고 해도 주변 국가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침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거나 집에서 쉬고 있을 때 흉기로 위협하여 돈을 빼앗는 강도가 있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성을 쌓고 군사를 훈련시켰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절이 계속되면서 성은 점점 낡고, 창과 칼은 녹슬어 무뎠지고, 군사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땀땀이를 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던 평화를 깬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전국시대의 혼란을 수습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동안 전쟁에 길들여진 수십만의 군사들을 서양의 신식 무기인 조총으로 무장시켜서 조선은 물론 나아가 중국을 차지하겠다는 욕망을 가지고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이 전쟁을 임진왜란이라고 합니다. 조선은 전쟁 초반에는 수도 한양은 물론 평양성까지 빼앗겼고, 임금인 선조는 의주까지 피난을 가는 등 크게 고전했습니다. 하지만 온 나라의 여기저기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일어난 의병,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을 비롯한 관군의 반격, 그리고 조선이 함락되면 자신이 위협해질 것을 염려해 파견된 명의 도움 등으로 결국 물리쳤습니다.

임진왜란은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재로 만들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쟁 때문에 농사를 짓지도 물건을 만들지도 못해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전쟁은 주변 국가들의 상황도 바꿔 놓았습니다. 조선을 도운 명은 점점 힘이 없어졌고, 이를 틈타 만주족(여진족)의 세력이 점점 커졌습니다. 일본은 비록 전쟁에는 졌지만 전쟁 중 우리나라에서 도공을 비롯한 많은 기술자와 학자들을 포로로 잡아가 자신들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이용하였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조선을 다시 세우려는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광해군은 전후 복구 사업을 실시하고, 동의보감의 완성, 대동법의 경기도 시행 등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여진족의 세력이 커지자 명과 여진족이 세운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펼쳐 전쟁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운 명을 돕지 않는 것은 의리 없는 짓이라는 생각을 한 서인을 비롯한 양반들의 반정으로 광해군은 왕에서 쫓겨납니다. 새로 왕위에 오른 인조가 펼친 후금을 배척하고 명과 친하게 지내는 정책은 후금이 조선을 침략하는 빌미가 됩니다. 후금은 2차례나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이를 호란이라고 합니다.

정묘호란과 나라 이름을 후금에서 청으로 바꾸고 쳐들어온 병자호란은 임진왜란의 뒷수습도 제대로 하지 못한 조선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남한산성으로 피신했던 인조가 청의 황제에게 무릎 꿇고 3번 절하면서 9번 고개를 조아리는 치욕을 겪으면서 청의 제후국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청으로 끌려가는 고통을 겪으면서 전쟁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할 성들에는 조선이 겪은 2번의 전쟁이 주는 교훈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하나씩 찾아가 볼까요?

문화유산
속으로
이야기 들

임진왜간의 전환점이 된 독산성 전투(오산시)

오산시 지곶동에는 사적 제140호로 지정된 독산성이 있습니다. 독산성(雋山城)은 독성(雋城), 독산성(雋山城), 독왕산성(雋王山城), 독추성(雋鷲城) 등으로 불렸습니다. '독산'이란 무슨 뜻일까요? 산 정상부가 울창한 숲이 아닌 나무가 없어 험박은 모습으로 보여 머리가 벗겨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속알머리가 없는' 대머리 아저씨처럼 보여 '민동산' 속칭 '대머리산'으로 불린 것을 한자로 대머리 '독' 자를 써서 독산이 된 것입니다. 이곳에는 일찍부터 산성이 있었기에 '독성산'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성은 원래 삼국시대 백제가 쌓은 것을 통일신라와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고쳐 쌓으면서 계속 이용하였습니다. 성은 둘레가 1,100미터이고 오산과 수원, 화성의 평야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변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에 해당합니다. 이곳은 행주대첩으로 유명한 권율 장군이 군사를 지휘하여 일본군을 물리친 독산성 전투가 벌어진 곳입니다.

권율이 이끄는 조선군은 어떻게 일본군을 물리쳤을까요? 1592년 7월 이치 전투에서 승리한 권율은 군사를 이끌고 왜적의 수중에 떨어진 한성을 되찾기 위해 서울로 올라오다가 12월 독산성에 진지를 구축합니다. 권율 휘하의 3,000여 명 가운데 약 1,000여 명은 수원부사였던 조경과 수원관관 홍계남이 이끄는 수원 지역의 군사들이었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살육과 노략질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한성에 주둔하던 왜군 총사령관 우키타 히데이에겐 권율이 호남에서 대군을 이끌고 올라오다가 독산성에 주둔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후방과의 연락 및 보급선이 차단될 것을 우려하여 왜군을 보내어 독산성을 포위하고 공격합니다.

독산성에 진을 친 후 5일 동안 왜군이 싸움을 걸어도 권율은 바로 싸우지 않고 성곽을 견고하게 하면서 방어에 힘씁니다. 왜군의 전략이 조선군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우세한 조총 부대를 이용하여 승리를 거두려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권율은 왜군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주로 밤에 정예부대인 기병을 이용하여 적의 소규모 부대와 진지를 기습 공격하였습니다. 특히 기병 수백 명을 준비시켰다가 불시에 성문을 열고 돌진하여 적진에 화살을 퍼붓고 돌아오는가 하면, 힘 좋은 병사로 하

여금 도끼와 창 등을 가지고 적들이 다니는 길목에 숨어 있다가 지나는 왜군을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밤에는 횃불을 들고 적진을 에워싼 후 나발을 붙여 적들이 잠을 못자 기세가 꺾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독산성 외곽에서는 최철견, 변사정, 임희진 등이 이끈 의병들이 깃발을 들고 북을 울리며 밤낮으로 왜적 주변을 돌며 견제작전을 펼치고, 왜군의 급수원을 차단하는 등으로 적을 괴롭혔습니다.



왜군은 결국 5일간 수원 독산성을 공격하다 크게 실패하고 피해만을 입은 채 한성으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독산성 전투의 승리로 땅에서도 왜군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졌고, 독산성 전투의 전략과 자신감은 마침내 행주대첩의 승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성 안에는 세마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말을 씻기는 곳’이라는 뜻인데 어떤 이야기가 전해질까요? 세마대에는 임진왜란 당시 권율의 번득이는 재치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원래 독산성은 물이 부족하여 많은 병사들이 머무르기에는 좋지 않은 곳입니다. 이를 눈치챈 왜군이 물지게에 물을 실어 성안으로 들여보내 조롱했다고 합니다. 이때 권율 장군이 성 꼭대기에 말을 끌고 가서 말의 등에 쌀을 끼어 마치 물로 씻는 듯 속이자 왜군이 성 안에 물이 풍부한 것으로 여기고 퇴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후 이곳을 말을 씻은 곳이라는 이름의 세마대로 불렸습니다.



독산성 세마대. 세마대 현판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썼다고 전한다.

독산성은 정조 임금의 그리워한 아버지 사도세자의 추억도 들어 있습니다. 어떤 추억일까요? 사도세자가 온천에 갈 때 장마로 세림교의 물이 넘쳐 독산성에 들른 일이 있었답니다. 이때 사도세자는 “이 성은 들 가운데에 이와 같이 우뚝 솟아 있으니 적이 만약 이를 만만히 보고 가벼이 침범할 때는 낭패할 것이다. 권율이 승리를 거둔 것은 본래 이리해서이다.”라고 독산성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사도세자가 비참한 죽음을 당한 뒤 세월이 흘러 아들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정조 임금입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화성으로 옮기고 참배를 자주 왔습니다. 정조 14년(1790)에 찾아왔을 때에는 독산성에 들러 이곳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사도세자가 들렀을 때의 일을 물어보며 그리운 아버지의 자취를 찾았고, 성내의 집집마다 쌀과 재물을 내려 주었다고 합니다.

문화유산
속으로
이야기 셋

병자호란의 아픔을 기억하는 남한산성 수어장대(광주시)

사적 제57호인 남한산성은 경기도 광주시와 성남시, 하남시에 걸쳐 있는 남한산에 있는 산성입니다. 이곳에는 백제를 세운 온조왕의 사당이 있습니다. 왜 이곳에 사당이 있을까요? 남한산성을 처음 쌓은 시기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려사에는 백제의 시조인 온조가 처음 수도에서 온조 13년(기원전 5)에 수도를 옮긴 곳이 이곳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이 조선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이어져 하남위례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온조왕묘를 건립하고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온조왕의 사당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을 발굴한 결과 성벽 쌓는 기술, 건물터와 출토 유물 등을 종합해 볼 때 신라가 한강 유역을 점령하고 이곳을 통치하기 위해 쌓은 주장성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은 조선시대 병자호란 당시 인조가 몸을 피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인조는 왜 남한산성으로 왔을까요? 1636년 12월 청군이 조선을 침략했을 당시 원래 조선의 전략은 인조를 비롯한 지도층이 강화도로 옮겨서 전쟁을 길게 끌며 청군이 지쳐서 물러나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청군이 개성을 지났다는 소식을 듣자 먼저 종묘사직의 신주와 세자빈을 비롯한 왕족들, 그리고 양반 관료들의 가족들이 강화도로 옮겨갔습니다. 인조와 신하들도 강화도로 가려 했지만 청군의 빠른 진격으로 강화도로 가는 길이 막혀 할 수 없이 1만 3,000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남한산성에서 장기 항전을 계획합니다. 남한산성은 튼튼한 성벽이 둘러싸고 있고 여러 개의 우물을 비롯하여 비상시를 대비한 식량도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인조는 남한산성을 나와서 청의 황제에게 무릎을 꿇었을까요? 당시의 상황을 살펴봅시다. 마침내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청군과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집



온조왕의 사당이 있는 송렬전(출처: 경기뉴스포털 제공). 원래 건물 이름이 온조왕사였는데 정조대에 송렬전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남한산성 축성의 총책임자였고 병자호란 때 싸우다 죽은 이서의 위패를 함께 모셨다.

니다. 운제와 화포 등의 공성 무기를 동원한 여러 차례 청군의 공격을 조선군은 용감하게 싸워서 격퇴시킵니다. 청군은 공격이 수포로 돌아가자 성을 포위하고 물자의 보급을 끊어 남한산성을 고립시킵니다. 성 안의 식량은 1만 3,000여 명이 2달간 버틸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성안에는 군사들과 왕족을 비롯한 문무관료와 일반 백성들을 합쳐 2만 7,000여 명이 있었기 때문에 식량은 곧 부족해졌습니다.



포위된 남한산성의 인조는 지원군이 남한산성을 포위한 청군을 물리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지원군마저 청군에게 대패하면서 인조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전국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의병이 별때처럼 일어나기를 기대했는데 임진왜란 때처럼 활발하게 의병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옆 친 데 덮친 격으로 2월 초 강화도가 함락되면서 왕자와 세자빈을 비롯한 왕족들과 관료들의 가족들이 인질로 잡혔습니다.

성 안에서는 식량이 떨어지고, 혹독한 추위에 얼어 죽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인조의 선택은 청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청의 황제에게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며 끝까지 항복을 반대한 김상헌 등의 의견을 뒤로 한 채 결국 인조는 삼전도(지금의 잠실 부근)에서 신하의 예를 올립니다. 청군의 침략으로 수만 명이 죽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질로 끌려가서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된 병자호란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가장 나쁜 평화도 가장 좋은 전쟁보다 낫다.”라는 에라스무스의 말이 있습니다. 의리와 명분을 내세우며 전쟁을 피하지 못했던 인조를 비롯한 지배층의 무능이 국민들의 생명을 빼앗고 재산을 불태웠습니다. 평화를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소중한다는 것을 남한산성을 돌아보며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 나누기



1. 독산성 전투에서 조선군이 승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 다음은 남한산성에서 청에게 항복할 것인가를 두고 벌어진 논쟁입니다. 두 사람의 말을 잘 읽고 어느 주장에 찬성하는지 자신의 주장과 그 이유를 적어 봅시다. 그리고 다른 친구의 의견도 적어 봅시다.

최명길: 우리가 나라를 지켜서 보존할 생각은 하지 않고 명나라에 의리를 지키기 위해 청과 맞서 싸우다 죽자고 하는 것은 필부가 절개를 지킨다며 개울에 빠져 죽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작은 신의에 해당하지 대의는 아닙니다.

김상헌: 사람은 언젠가 죽게 마련입니다. 나라도 언젠가는 망합니다. 죽는 것과 망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명분과 의리라는 가치를 버려서야 하겠습니까? 단지 살기 위해서 의리를 저버리고 청에 항복한다면 의리와 예의라는 원칙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원칙을 버리고 살아남으면 백성들이 우리를 저버릴 것입니다.

나는 ()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내 친구 ()의 생각

생각 더하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SNS 홍보하기!

1. 다음은 남한산성에 대한 주요 정보들입니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남한산성을 홍보하는 글을 SNS에 올려 봅시다.

가. 기본 정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위치: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 하남시 일원

등재연도: 2014년

설명:

남한산성은 조선시대에 유사시를 대비하여 임시 수도로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건설된 산성이다. 남한산성은 7세기 경 처음 건설된 이후 여러 차례 축성되었다. 특히 17세기 초 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여러 차례 개축되었다. 남한산성은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전해온 성제(城制)의 영향과 서구의 화기(火器) 도입에 따라 변화된 축성 기술의 양상을 반영하면서 당시의 방어적 군사 공학 개념의 총체를 구현한 성채이다. 오랜 세월 동안 경기도 광주군의 중심으로 남한산성의 성 안에는 당시에 만들어진 다양한 형태의 군사·민간·종교 시설 건축물의 증거가 남아 있다. 남한산성은 외세의 침입에 맞서 한민족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하다.

나. 주요 시설



종목: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호

명칭: 수어장대

면적: 19,256제곱미터

지정일: 2007.06.08.

소재지: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 784-29 외

설명: 산성 서편의 수어장대는 방어를 맡은 장군이 지휘, 명령하는 곳이다. 건립 당시는 단층누각으로 '서장대'라 하였고, 영조때 2층 누각을 증축하여 내편은 무망루, 외편은 수어장대라 하였다. 수어장대는 병자호란 때 인조가 군대를 친히 지휘한 곳이라고 한다.



종목: 사적 제480호

명칭: 남한산성행궁

면적: 19,256제곱미터

지정일: 2007.06.08.

소재지: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 784-29 외

설명: 남한산성행궁은 정무시설은 물론 다른 행궁에 없는 중요사직 위패 봉안 건물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조선시대 행궁 제도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다.



1 오산시 궤리사

- ◆경기도기념물 제147호
- ◆소재지: 오산시 매홀로 3
- ◆궤리사는 유학의 시조인 공자를 모신 사당이다. 이곳은 노성의 궤리사와 함께 우리나라 제 2대 궤리사 중 하나로 1792년 정조 16년에 창건되어 사액되었다. 이곳은 공자의 64대손인 공서린이 제자를 가르치며 여생을 보내던 곳으로, 공서린 별세 후 폐허가 되었다가 200여 년이 지난 정조 때 재건되었고 현재의 건물은 1981년에 다시 지어졌다.



2 보적사

- ◆전통사찰 제34호
- ◆소재지: 오산시 지곶동 150
- ◆독산성 동문 안에 위치한 불교 사찰이다. 백제 아신왕 10년(401)에 전쟁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보적사'라는 명칭에는 재미난 유래가 전해지는데 옛날 삶이 궁핍한 노부부가 쌀 2되만 남게 되자 구차하게 굶어 죽느니 부처님께 공양하기로 마음먹고 공양 후 집에 돌아오니 곡간에 쌀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 이후 열심히 공양하면 보화가 쌓이는 사찰이라 하여 보적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3 금암리 지석묘군 고인돌 공원

- ◆경기도기념물 제112호
- ◆소재지: 오산시 수목원로 449
- ◆금암리 지석묘군은 금암동 172-1번지 일대와 주변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고인돌 군으로 총11기가 확인되는데, 현재 9기가 경기도 기념물 제112호(1988년 12월 2일)로 지정되었으며 그 외 2기는 고인돌로 추정되는 것이다. 고인돌군은 서쪽 해발 81미터의 구릉에서 동쪽으로 내려오는 평탄지에 자리하고 있다.



4 외삼미동 고인돌

- ◆경기도기념물 제211호
- ◆소재지: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384
- ◆외삼미동 지석묘는 외삼미동 384번지 일대 완만한 구릉에 2기가 위치한 것으로 경기도 기념물 제211호(2006년 1월 23일)로 지정되어 있다. 한신대학교 박물관 조사에 의하면 북쪽의 것이 1호, 남쪽의 것이 2호이고 1호 고인돌의 경우 탁자식으로 덮개돌과 받침돌이 온전하게 잘 남아 있는 형태이다.



5 유엔군 초전 기념관

- ◆소재지: 오산시 경기대로 742
- ◆유엔군 참전 기념관은 유엔군과 북한군이 처음으로 전투를 벌인 죽미령에 위치하고 있다. 오산 죽미령은 유엔군이 참여한 6·25전쟁의 최초 전투지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유엔군 초전 기념비(1982) 및 유엔군 초전 기념관(2013)을 건립했다. 기념관 내에는 다양한 상설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매년 7월 5일 유엔군 초전기념 및 전몰장병 추도식이 거행되고 있다.





1 광주조선백자요지

◆사적 제314호
 ◆소재지: 광주시 초월, 곤지암, 도척, 남종, 남한산성, 퇴촌, 송정(7개 읍면동)
 ◆요지는 자기나 도기를 구워내던 가마터를 말한다. 남종면·남한산성면·퇴촌면 등 광주시 일대에는 도자기를 굽는 데 필요한 흙이 나오며, 나무와 물이 풍부하다. 제품의 공급지인 서울과 가깝고 한강을 이용한 운반의 편리성으로 인해, 조선 영조 28년(1752) 궁중 음식을 담당하던 사옹원의 분원이 광주에 설치되었다. 그 후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130여 년 동안 285개소의 가마터가 이 일대에서 번창했다.



4 곤지암

◆경기도문화재자료 제63호
 ◆소재지: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로 72 외 2필지
 ◆곤지암은 조선 선조 때의 명장인 신립 장군에 얽힌 전설이 있는 바위이다. 화강암의 큰 바위와 작은 바위 2개가 조금 떨어져 있는데, 큰 바위는 높이 3.6미터에 폭이 5.9미터이고, 작은 바위는 높이 2미터에 폭 4미터 크기다. 바위 위쪽에는 약 400년 된 향나무가 자리 잡고 있어 서로 잘 어울린다.



2 남한산성행궁

◆사적 제480호
 ◆소재지: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 784-29 외
 ◆왕이 도성 안의 왕궁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머물렀던 건물을 행궁이라고 한다. 남한산성 행궁은 북한산성 행궁, 화성 행궁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행궁의 하나이다. 인조 3년(1625) 행궁을 건립했고 이듬해 완공했다. 남한산성 행궁은 정무 시설은 물론 다른 행궁에 없는 중요사직 위패 봉안 건물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5 신익희 선생 생가

◆경기도기념물 제134호
 ◆소재지: 광주시 초월읍 서하길 6-25
 ◆정치가이며 독립운동가인 해공 신익희(1894~1956) 선생의 생가이다. 가옥은 안채와 비갈채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래 지금 있는 자리에서 동남쪽으로 약 200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한다. 고종 2년(1865) 대흥수로 집이 파손되어 옮긴 건물은, 전체적으로 20세기 초에 크게 고쳐 지은 것으로 짐작한다.



3 허난설헌 묘

◆경기도기념물 제90호
 ◆소재지: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산29-5
 ◆조선 중기의 여류시인 허난설헌(1563~1589)의 묘이다.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의 누이로 용모가 아름답고 성품이 뛰어났으며, 8살 때 광한전 백옥루 상량문을 지어서 신동으로 일컬어졌다. 작품의 일부는 허균에 의해 중국에 전해져 『난설헌집』으로 간행되어 격찬을 받았다. 묘는 현재의 위치에서 약 500미터 우측에 있었으나 중부고속도로 개설로 1985년 현 위치로 이전되었다. 문인석을 제외한 무덤의 다른 석물들은 근래에 만들었다.



6 광주 산성소주 제조기능

◆경기도무형문화재 제13호
 ◆소재지: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 555-3
 ◆이 술은 광주시에 위치한 남한산성에서 전승된 민속주라서 남한산성 소주라고 부른다. 광주는 옛날부터 작은 서울이라 불릴 만큼 경치가 뛰어나고 부자들이 많이 살았으며, 여러 가지 궁중 음식을 본떠 만든 독특한 음식들이 많았다. 그중에서도 산성막걸리와 산성소주는 이 고장의 특산물이었다. 특히 산성소주는 처음에는 건강주로 만들어 먹던 것이었는데, 널리 알려지면서 제사 술로 사용되었고 귀한 손님 대접이나 선물로도 쓰였다. 최초로 빚은 시기는 남한산성을 축조한 선조(재위 1567~1608) 때로 추정되며, 그 후 임금께도 진상되었다 한다.



3단원



경기도의 사상과 종교 유산

- 9차시
부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다 불교사찰
- 10차시
학문을 닦는 목적을 묻다 향교와 충의각
- 11차시
소박한 기원이 담긴 민간 신앙 성황제와 산신각
- 12차시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 기독교 근대 유산



漢水以南稱燕左屬邑二十二以北稱爲右道屬邑十五合爲三十七宮
原道 西抵大海南抵忠清道 西北抵黃海道及海
兩千九百八十二結八員八束
七百二十結六十七束內 雜頃除
萬六千三百六十八結十九員七束
六驛三等馬四百四十九疋
上等九十
中等二百八十一
下等二百六十七疋
戰缸六隻
缺原
金化
戶 男二十八萬三千七百八十口
女二十九萬四千十口
八道路程依皇明例用周尺六尺爲一步
三百六十步爲一里
三十里爲一息
西路貴驛樓 自京至義州四十五站

玉林所屬 慶信 盤孔 石谷 雲輪 終生 南州
慶安所屬 德豐 楊花 新津 平阿 吾川 吾春
桃源所屬 仇和 白麻 玉湊 村東 湘水
靈巖所屬 雲璋 馬山 車坡 下坪 悅悅 中連
良才所屬 樂土 駒興 金廟 法贊 分行 無極 康福 加川 菁好 長昌
平丘所屬 綠陽 安奇 翠文 奉安 娛賓 雙樹 田谷 白冬 佳谷 甘泉

各殺物都數
軍餉米五千四百九十九石八斗
各孫運糧三千七百六十三百二十二石零

32967
京城國圖

경기도의 사상과 종교 유산



9차시

부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다



용주사 대웅보전.



화성시 캐릭터 화성 엔시스.

용주사는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웅릉)을 지키고 명복을 빌기 위해 다시 지은 절입니다.



안양사.

안양사는 고려 태조 왕건의 이야기가 전해 오는 전통 사찰입니다.



안양시 캐릭터 포동이.

생각 열기

불교에서 이름을 빌려온 산봉우리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크리스티교는 유럽과 미국 등 여러 곳에 퍼져 있고요. 불교는 주로 아시아 여러 나라에 퍼져 있습니다. 최근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슬람교는 서남아시아의 대부분 나라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에 불교가 전래되었습니다. 이후 불교는 우리의 정신문화는 물론 예술에서도 많은 영향을 주었지요. 최근에는 불교 신자가 많이 감소하고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교를 믿었고 이와 함께 불교와 관련한 문화가 화려하게 꽃을 피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의 불교 문화유산에 대해 살펴볼까요?

문화유산
속으로
이야기 하나

불교

여러분은 ‘불교’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절, 불상, 부처님, 불경? 네.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불교가 처음 시작된 나라는 인도입니다. 불교를 처음 연 싯다르타는 인도 북부의 조그만 왕국의 왕자였어요.

싯다르타의 신비한 탄생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인도 북부의 카필라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싯다르타의 어머니 마야부인은 그를 임신하기 전에 흰 코끼리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 신기한 꿈을 꾸었대요.



그 후 마야부인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이를 낳을 무렵이 되자 출산을 위해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서둘러 길가에 자리를 마련하고 아이를 출산했는데 이게 웬열!!! 아이가 옆구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야부인의 몸 밖으로 나오자마자 7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걸었던 발자국에는 연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7걸음을 걸은 아이는 한 손은 땅을 가리

키고,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낭랑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말은 “하늘과 땅 사이에 오직 내가 홀로 귀한 존재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나’란 싯다르타 혼자만 귀하다는 뜻이 아니고 ‘인간’ 그 자체가 각각 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아이가 깨달음을 얻어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서 구원하는 부처인 석가모니가 되었습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그의 제자들을 통해 인도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동남아시아, 중국 등 여러 곳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중국에 들어간 불교는 다시 우리나라에 전해졌고, 또다시 일본으로 전파되었죠. 그런데 믿기 어렵겠지만, 지금 인도는 80퍼센트 이상의 사람들이 힌두교를 믿고 있고 불교를 믿는 사람은 1퍼센트도 안 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시기는 삼국시대인데, 당시에는 각 나라들마다 불교를 받아들인데 적극적이었습니다. 왜냐구요? 불교를 통해 국민들의 정신을 하나로 통일하고, 왕권을 강화하며 국가 체제를 정비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전국 곳곳에 절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 중에는 ‘원찰’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절도 있어요. 원찰은 절을 지은 사람이 자신의 소원을 빌거나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특별히 건립하는 절을 말해요. 예를 들자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신문왕이 아버지 문무왕의 통일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지은 절이 ‘감은사’라는 사실 몰랐죠? 이러한 사찰을 ‘원찰’이라고 하는데 이런 전통은 고려시대에도 계속 건립되었고, 조선시대까지도 계승되었는데 태조 이성계는 왕비가 죽자 1405년 정릉에 장사 지내고 그 옆에 흥천사라는 절을 세워 원찰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역대 왕이나 왕비의 능 근처에는 대부분 원찰이 건립되었습니다.



신문왕이 돌아가신 아버지 문무왕을 기리기 위해 지은 ‘원찰’인 감은사 터.

문화유산
속으로
이야기 들

화성 용주사

화성 용주사는 원래 신라 문성왕 16년(854)에 염거화상이 창건한 갈양사(葛陽寺)라는 절이었습니다. 고려 광종 21년(970)에는 청정하기로 유명한 절이었으나, 조선 시대 병자호란으로 소실된 채 숲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훗날 조선 제22대 왕 정조가 비참하게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크게 다시 짓고(1790) 원찰로 삼았습니다.

용주사가 사도세자의 원찰이 되기까지는 보경당이라는 스님의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보경스님은 용릉(사도세자의 묘)을 조성할 장소를 찾아다니는 정조를 만나기 위해 가까운 곳에 머물며 『부모은중경』¹을 설파하고, 가까운 지역에 능으로 쓰기에 좋은 곳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조는 『부모은중경』 설법에 깊이 감동을 받아, 보경스님에게 용주사 중창의 총책임을 맡겨 4년 만에 절을 완성했습니다. 전국에서 들어온 시주가 8만 냥이 넘었으며, 145칸을 갖춘 큰 사찰의 면모였습니다. 절을 완공하고 성대하게 치러진 낙성식 날 밤 정조가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절 이름을 용 ‘용龍’, 구슬 ‘주珠’를 써서 용주사(龍珠寺)로 정했다고 합니다.

¹ 불교 경전의 하나로 부모의 은혜가 한량없이 크고 깊음을 설하여 그 은혜에 보답할 것을 가르친 경전이다. 조선시대에 용주사, 송광사 등 여러 사찰에서 1권으로 간행되었다.



용주사는 돌아가신 사도세자를 위한 왕실의 원찰이다 보니 일반 사찰에서 볼 수 없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사천왕문이 있어야 할 자리에 궁궐의 대문처럼 보이는 삼문각이 놓여 있고, 그 양옆으론 마치 양반집 행랑채와 같은 건물이 길게 전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절을 방문하는 임금의 행차를 위한 건물로 추정됩니다. 삼문을 들어서면 역시 궁궐에서나 볼 수 있는 ‘천보루(天寶樓)’라는 누각이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기도문화재 제36호인 천보루는 대웅보전 안마당으로 들어가는 입구 역할을 겸하고 있는 2층의 누각입니다. 천보루 앞에는 작은 석탑 한 기가 세워져 있는데 이 역시 왕실의 원찰인 용주사의 성격을 보여주는 특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탑은 부처님이 계신 대웅전 앞에 세워지지 일반 건물 앞에 세우지는 않거든요.

예술적 안목이 뛰어난 정조는 당대 최고의 화가 김홍도를 이곳에 머물게 하며 『부모은중경』을 그림으로 그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목판에 새겼는데 이것이 효심의 상징으로 용주사가 갖추게 된 대표적인 문화유산의 하나인 <부모은중경판>입니다. 목판, 석판, 동판 등 모두 73판으로 이뤄진 <부모은중경판> 중 목판에는 한역본과 국역본 변상도, 석판에는 한역본, 동판에는 변상도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변상도는 경전의 내용을 21장면으로 나타내었는데 부모의 은혜를 돌이키는 부처의 일화, 자식에 대한 부모의 10가지 은혜와 보은의 막중함, 그리고 효도의 결과가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모님의 10가지 은혜에 대해 알아보까요?

어머니께서 품에 품고 지켜준 은혜, 해산 때 고통을 이기시는 은혜,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는 은혜, 쓴 것을 삼키고 단것을 뱉어 먹이는 은혜, 진자리 마른자리 가려 누이는 은혜, 젖을 먹여 기르는 은혜, 손발이 닳도록 깨끗이 씻어 주시는 은혜, 먼 길을 떠났을 때 걱정해 주시는 은혜, 자식을 위하여 나쁜 일까지 마다하지 않는 은혜,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시는 은혜가 부모님의 10가지 은혜입니다.

용주사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또 꼽는다면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6호로 김홍도의 감독하에 조성된 대웅전 후불탱화를 들 수 있습니다. 후불탱화란 대웅보전의 석가모니 불상 뒤편에 걸린 그림을 말합니다. 용주사의 후불탱화는 우리나라 최초로 탱화에 서양화 기법인 원근법과 음영법을 도입한 것이라고 합니다. 탱화 속에는 석가모니불과 아미타불, 약사불, 이렇게 세 부처님과 보살, 석가모니의 제자 등 다양한 불교의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용주사 대웅전 후불탱화. 이 그림 속 등장 인물들은 모두 불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문화유산
속으로
이야기 셋

안양시의 안양사

경기도 중부에 위치하고 있는 인구 58만여 명의 안양시는 관악산과 삼성산에 둘러싸인 평탄한 분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양’이라는 이름은 불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불교에서 ‘안양’은 극락정토를 말하며, 천국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안양시는 ‘극락정토의 도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양시의 지명이 탄생한 배경에는 고려를 세운 왕건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왕건이 고려를 아직 세우기 전인 900년의 일입니다. 왕건이 금주(지금의 시흥)와 과주(지금의 과천) 등의 지역을 살피러 삼성산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꼭대기의 구름이 5가지 빛을 띠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살피게 했다고 합니다. 이때 구름 밑에서 능정이란 늙은 스님을 만났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보니 후삼국의 혼란을 끝내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한 왕건의 뜻과 같아서 삼성산 아래에 안양사를 창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안양시의 명칭은 평화로운 나라를 꿈꾼 왕건의 염원이 담긴 안양사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²에는 고려 때 최영 장군이 칠층전탑³을 세우고 왕이 환관을 시켜 향을 보냈으며, 승려 1,000명이 불사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어 옛 안양사의 화려했던 모습을 짐작케 합니다. 고려시대에는 웅장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았을 안양사는 고려 말에 쇠락하여 조선시대에는 유학을 숭상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기록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안양사는 삼성산에 있다. 절 남쪽에 고려 태조가 세운 칠층전탑이 있고 김부식이 지은 비문은 결락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칠층전탑과 탑비만 남아 있는 폐사지가 되어 점점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졌습니다.

1959년 한 제약회사의 공장이 들어섰다가 2006년에 이곳을 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계획이 세워지면서 발굴 조사를 실시, 건물 터가 발견되었고, 강당 터에서 ‘안양사’라 적힌 기와가 발견되어 고려시대의 절 안양사의 터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에 조성 계획이 전면적으로 수정되고, 안양사지를 보존하면서 건물들을 리모델링한 뒤 2014년에 김중업박물관이 개관합니다. 그리고 출토된 유물은 현재 안양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원래 안양사가 있던 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비구니 스님이 건립한 ‘안양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 절의 대웅전 앞에 고려시대의 귀부가 세워져 있는데 기록에 전해지는 고려시대 때 『삼국사기』를 지은 김부식이 글을 지은 그 비의 일부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탑비는 비석 받침인 귀부, 몸통이 비신, 머릿돌이 이수로 구성되는데, 현재 안양사의 탑비는 비석 받침인 귀부만 남아 있습니다. 비석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나 아름답고 세련된 모양으로 보아 아마도 이름 있는 승려였을 것입니다. 귀부는 용의 머리를 하고 있으며 땅을 힘차게 움켜지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생동감 있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탑비의 정면에는 고려시대의 승탑이 있습니다. 승탑은 오랜 수행을 하고 돌아가신 스님의 몸에서 나온 사리나 유골을 안치하는 일종의 묘와 같은 역할을 한 탑입니다. 이 승탑 역시 고려시대 어느 스님의 사리나 유골이 안치되어 있었지요? 이 승탑의 가운데 부분은 거꾸로 놓여 있습니다.



현재 안양사 대웅전 마당에 있는 고려시대 탑비와 승탑. 탑비는 비석 받침에 해당하는 귀부만 남아 있고, 승탑 역시 받침과 지붕만 남아 있다. 게다가 승탑의 연꽃 모양 받침은 거꾸로 뒤집혀 있다.

생각 나누기



1. 친구들이 절에 가면 볼 수 있는 문들을 적어 보세요.

2. 우리가 절에 가서 본 적이 있는 건물을 0로 표시해 보세요.

<p style="text-align: center;">대웅전</p> <p>석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봉안한 건물로 가람의 중심 건물이다.</p>	<p style="text-align: center;">대적광전</p> <p>화엄경의 사상을 바탕으로 진리의 빛이 가득한 대적정의 세계를 의미하는 연화장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극락전</p> <p>미타전이라고도 불리는 극락전은 서방 극락정토의 주불인 아미타불을 봉안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약사전</p> <p>약사유리광여래를 주존불로 봉안한 건물로 약사불은 한 손에 약병을 들고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관음전</p> <p>관세음보살을 주불로 봉안한 건물로 원통전이라고도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미륵전</p> <p>미래세의 부처인 미륵불 또는 미륵보살을 봉안한 곳이다.</p>
<p style="text-align: center;">명부전</p> <p>지장전 또는 시왕전이라고 하며 명부전에는 염라대왕을 비롯한 명부 10왕이 봉안되어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응진전</p> <p>나한전이라고도 불린다. 부처님의 제자 16나한이나 500나한을 봉안하기도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팔상전</p> <p>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8가지 일화를 선정하여 그림이나 조각상 등으로 묘사한 뒤 봉안해 두는 곳이다.</p>

생각 더하기

1. 다음 그림은 <부모은중경>의 10가지 은혜 중 '자식을 위하여 나쁜 일까지 마다하지 않는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림을 색칠하며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2. 안양사의 승탑을 복원해 봅시다. 왼쪽은 고려시대 대표적인 승탑인 여주 고달사지 승탑입니다. 왼쪽 사진을 참고로 해서 안양사 승탑의 나머지 부분을 유추해서 그려 봅시다.





1 용주사 동종

- ◆종목: 국보 제120호
- ◆소재지: 경기 화성시 용주로 136, 용주사 (송산동)
- ◆신라 중 양식을 보이는 고려시대 초기에 만들어진 거대한 범종으로, 높이 1.44미터, 입지름 0.87미터, 무게 1.5톤이다. 용통에 약간 금이 가고 유두가 부서진 것 외에는 보존 상태가 좋으며, 조각한 수법이 뛰어나 고려 종의 걸작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2 불설대보부모은중경판

- ◆종목: 보물 제1754호
-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용주로 136-0 (송산동, 용주사)
- ◆오늘날 용주사 간행의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전으로 칭송하고 있다. 그것은 정조의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심을 바탕으로, 당대 최고의 장인들이 혼신을 쏟아 조성한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3 용건릉

- ◆종목: 사적 제206호
-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481번길 21
- ◆용릉은 추존 장조의황제와 헌경의황후 홍씨의 능으로 합장릉의 형태이다. 용릉은 정조 13년(1789년)에 배봉산에서 현재의 자리로 옮기면서 현릉원(顯隆園)으로 이름을 바꾸고 원을 다시 조성하였다. 건릉은 조선 22대 정조선황제와 효의선황후 김씨의 능이다. 건릉은 같은 봉분에 왕과 왕비를 같이 모신 합장릉의 형식이다.



4 화성 봉림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 ◆종목: 보물 제980호
-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주석로80번길 139 (남양읍, 화성봉림사)
- ◆봉림사 법당에 모셔져 있는 목불좌상으로 1978년 불상 몸에 다시 금칠을 할 때 발견된 기록을 통해 고려 공민왕 11년(1362)을 하한으로 아미타불상이 조성되었음이 밝혀졌다.

5 안성 청원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복장전적



- ◆종목: 보물 제1795호
-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용주로 136-0 (송산동, 용주사)
-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주본권12, 40, 41(紺紙銀泥大方廣佛華嚴經周本卷12, 40, 41)』, 『사경(寫經)』 3권은 실차난타가 번역한 80권본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중에서 3개 권에 해당된다.

6 화성 봉림사 목조아미타불좌상복장전적일괄

- ◆종목: 보물 제1095호
- ◆소재지: 경기 화성시 용주로 136, 용주사 (송산동)
- ◆화성 봉림사 목조아미타불좌상복장전적일괄은 당시 방대한 화엄경을 은니로 사성한 것 가운데 잔권(殘卷)이나 고려 말에 사경 신앙의 면모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1 삼막사

◆종목: 전통사찰 제9호
 ◆소재지: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241-54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인 용주사(龍珠寺)의 말사이다. 문무왕 67년(677) 원효(元曉)·의상(義湘)·윤필(尹弼) 등이 암자를 짓고 수도를 한 것이 이 절의 기원이다. 그래서 절은 삼막사(三幕寺), 산 이름은 삼성산(三聖山)이라 하였다고 한다. 그 후 신라 말에 도선(道詵)이 중건하고 관음사(觀音寺)라 불렀는데, 고려 태조가 중수하고 다시 삼막사로 고쳤다. 조선 전기에는 무학(無學)이 한양 천도(漢陽遷都)에 즈음하여 절을 중수하고 국운이 융성하기를 빌었다고 한다. 조선 시대부터는 남월 삼막(南月三幕)이라 하여, 남서울의 수찰(首刹)로서 서울 주변 4대 명찰의 하나로 꼽혔다. 현재 당우(堂宇)는 대웅전·명부전·망해루(望海樓)·대방(大房)·요사채·칠성각 등이 있다.



3 중초사지 당간지주

◆종목: 보물 제4호
 ◆소재지: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03번길
 ◆안양 유원지 북쪽에 중초사지삼층석탑(경기유형문화재 164호)과 나란히 있다. 현재는 유유산업 구내에 있으나 부근에서 많은 기와 조각들이 출토되어 일대가 사찰지임을 알 수 있다. 지주 내면에는 아무 조각이 없으며 외면에도 조식이 없고 상부에는 약간의 가공이 있어 고식(古式)을 보인다. 현재 지주의 기반부가 잔존하지 않으므로 그 원형은 알 수 없다. 다만 기저에 장대석(長臺石:1.82미터)의 기반석을 지주 사이와 양 지주 바깥쪽에 각 1매씩 깔아서 기대를 삼고 있을 뿐이다. 서쪽 지주 바깥면에 명문(銘文)이 새겨져 있어 절의 이름과 조성 연대를 알게 되었다. 섬세한 조식은 없어도 단아한 형태로서 조성 연대가 뚜렷한 귀중한 예이다.



2 석수동 마애종

◆종목: 경기도유형문화재 제92호
 ◆소재지: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산 32
 ◆스님이 달아 놓은 종을 치고 있는 장면을 거대한 바위에 묘사한 것으로서, 한국에서 유일한 마애종이다. 사각형의 결구 형식에 쇠사슬로 연결된 종은 음통을 갖춘 비교적 정교한 종뉴 아래에 약간 벌어진 형태의 종신이 연결되어 있다. 종신의 표면에는 상대와 붙어 있는 유곽, 종복에 있는 연화무늬 당좌(撞座), 뚜렷하지 못한 문양을 새긴 하대가 매우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공간의 균형감이 있어 보이며, 전체적으로도 안정감이 있는 종을 표현하였다. 조각 수법이나 종뉴·종신의 표현 등에서 신라 말이나 고려 초의 작품으로 생각되며 마애종의 유일한 예로서 귀중한 자료이다.



4 만안교

◆종목: 경기도유형문화재자료 제38호
 ◆소재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679
 ◆조선시대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1735~1762)의 능인 용릉(현릉원)을 참배하러 가기 위해 정조 19년(1795)에 축조한 홍예(虹霓) 양식의 석교이다. 당시 서울에서 수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용산, 노량진, 동작, 과천을 통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으나 중간에 교량이 많고 남태령 고개 때문에 행차로를 닦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때까지 왕이 행차하는 길에는 임시로 나무다리를 가설했다가 끝난 뒤 바로 철거하는 것이 상례였으나 행차 때마다 놓았다 헐었다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평상시에도 백성들이 편히 다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정조의 명으로 영구적인 돌다리를 놓게 되었다. 만안교(萬安橋)라는 명칭은 만년 동안 사람들이 편안하게 다리를 건널 수 있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기도의 사상과 종교 유산



10차시

학문을 닦는 목적을 묻다



과천 향교



과천시 캐릭터 아리.

과천 향교는 과천 시내에서
가깝게 있으며 지금도
석전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한온 장군은 을묘왜변 때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왜군을
크게 무찌른 분으로 나라에서
정문을 내려 주었습니다.



평택시 캐릭터 평택이.



한온장군충신정문.

생각 열기

나를 지키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공부



형은 왜 군대 안가? 형 친구들은
모두 군대를 갔잖아?
(나도 제발 혼자 방을 좀 써보자.)



응, 난 대학생이잖아.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를 계속하면 군대 입대를
연기할 수 있어.(허세 뽐뽐!!)



조선시대에도 향교와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군역을
면제해 주었거든.(아는 체 작렬!)

공부하는 일이 나라
지키는 일보다 중요한 거야?



글쎄. 날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ㅋㅋㅋ

조선시대에 양반으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구요? 하하, 바로 공부입니다. 양반가의 젊은이들은 모두 과거에 합격하여 관리가 되어 가문의 명예를 높이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합격이 만만치 않지요. 기본적으로는 3년마다 치르기 때문에 한번 낙방하면 다시 3년이란 세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과거 합격자의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5살 때부터 30대 초반까지 20여 년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었지요.

갖은 고난 끝에 과거에 합격하여 관리가 되어도 나라일에 필요한 공부를 게을리 할 수 없었죠. 그러니 평생 공부를 쉬지 않아야 했어요. 오늘은 조선시대 학교인 향교와 주요 공부 과목인 유학의 실천 덕목인 충과 효를 실천한 사람에게 내리는 충의문에 대해 살펴볼까요?

문화유산
속으로
이야기 하나

사감답게 사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유학

유학은 중국 고대의 학자인 공자의 사상과 가르침을 근본으로 삼는 학문입니다. 공자의 사상은 그의 제자들을 거치면서 체계적인 학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국가의 운영 방침으로 삼았는데, 훗날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정치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상일 뿐만 아니라 사회와 개인의 생활을 규정하는 규범이 되었습니다.

유학에서 말하는 ‘유^儒’란 어진 이가 가르친 도^道를 배우고 익혀서 자기 몸에 짓게 하고 남에게도 부드럽게 가르쳐 평화로운 삶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또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유학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비’가 이들입니다.



조선시대 최고 교육 기관인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유생들의 모습.
출처: 서울사랑, 서울시청 제공.

유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예절은 부모에 대한 ‘효도’입니다. 유교의 최고 성인인 공자는 “젊은이는 집에 들어와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밖에 나와서는 공손하며, 행동은 타인을 배려하며, 말을 성실하게 하며, 널리 사람을 사랑하되 생각이 밝고 긍정적인 이와 가깝게 지내

야 한다. 이것을 실천하고 힘이 남거든 글을 배워야 한다.”라고 효의 실천이 학문을 닦는 것보다 먼저임을 강조했습니다.

유학은 사람을 ‘사회적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인간은 사회 속에서 다양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예로 들자면, 집에서는 부모님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 학교에서는 OO중학교 1학년 학생, 또래 아이들과는 친구 등등 다양한 위치를 갖지요. 나이 들면 좀 더 다양한 사회에서 다양한 위치를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각각의 위치에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예절과 규범이 있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겠죠?

물론 이러한 사회적인 약속들은 지키지 않는다고 범죄자가 되어 ‘쇠고랑을 차

고 경찰에 끌려가는 것’은 아니지만 약속을 지키며 사는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겠죠? 개인이 각자의 위치와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면서 사는 것이 ‘함께 어울려 사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유학은 강조합니다. 유학에서는 이러한 사회를 크게 어울려 하나 되는 사회라는 의미로 ‘대동^{大同}’이라고 표현합니다.

유교는 지나간 시대의 낡은 생각이 아니라, ‘사회’라는 인간관계의 그물 속에서 개인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며 살 것인가라는 깊은 고민의 결과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집에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밖에서는 어른을 공경하는 실천을 먼저 해야 한다. 그리고 힘이 남는다면 공부를 하는 거란다.

우리 부모님은 제가 공부 잘하는 게 최고의 효도라고 하시는데요?



문화유산 속으로 이야기들

과천 향교

향교는 지방의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세운 조선시대의 지방 교육기관입니다. 또한 공자를 비롯하여 유명한 유학자들의 제사를 지내며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다짐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과천 향교는 조선시대 초기인 태조 7년(1398)에 처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불이 나서 다시 지었다가, 숙종 16년(1690)에 지금의 자리에 새로 지었습니다.

과천 향교 건물의 배치는 제사를 지내는 공간인 '대성전'이 뒤쪽에 위치하고, 학생들의 배움터인 '명륜당'이 앞쪽에 위치하는 전학후묘前學後廟¹의 배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천 향교의 입구에는 사악한 것을 막아주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삼가는 마음가짐을 갖고 들어오라는 의미의 홍살문이 세워져 있습니다. 홍살문을 지나고 외삼문을 지나면 오늘날의 교실에 해당하는 명륜당이 나오고, 그 뒤에 있는 내삼문에 들어서면 제사 공간인 대성전이 있습니다.

¹ 건물의 배치 구조를 이르는 용어로 앞에는 명륜당, 뒤에는 대성전을 짓는다는 뜻이다.



과천 향교 명륜당.

공자를 비롯하여 중국과 우리나라에 있는 유명한 유학자들의 위패를 모신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작은 규모의 건물로 지붕은 맞배지붕입니다. 명륜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이던 것을 학생들의 수가 늘어나 공간이 부족해지자 좌우 양쪽으로 1칸씩 증축하였

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나라에서 향교에 교수와 훈도를 각 1명씩 파견하여 학생들을 가르쳤고, 향교의 운영을 위해 토지와 노비, 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명륜당에서 훈도의 지도 아래 낭랑하게 유교 경전을 읽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끊어지고 매년 음력 2월과 8월에 제사만 지내고 있습니다.

향교에서 지내는 제사를 '석전제'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최고 교육기관이 있던

한양의 성균관 대성전에서는 공자를 중심으로 그 제자들과 한국의 유학자 설총과 최치원 등 16위의 위패를 모셔 놓고 지냈습니다. 이곳에 모셔진 인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의 유학자로는 공자를 비롯하여 안자, 증자, 자사, 맹자, 송나라의 정호, 주희 등 6분이 모셔졌습니다. 우리나라 인물로는 설총, 최치원, 안유, 정몽주,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이황, 김인후, 이이, 성혼, 김장생, 조현, 김집, 송시열, 송준길, 박세채 등 18분이 모셔졌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공자가 가장 아낀 제자 안회를 소개할까 합니다. 공자와 같은 고향 출신인 안회는 어려서 매우 가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총명하고 지혜롭고 배우기를 좋아하여 공자를 스승으로 모신 후 평생을 함께했습니다. 특히 단 한 번도 공자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은 것이 없고 공자의 뜻을 거역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어느 날 공자가 제자인 자로를 불러서 “너와 안회 중에서 누가 더 나은가?”라고 물었습니다. 자로는 “제가 어찌 안회에게 비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를 들으면 둘을 알 뿐이지만 안회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압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라는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석전제를 지내면서 향교의 학생들은 안회의 총명함이 자신에게도 전달되어 어려운 유학 공부를 쉽게 하기를 기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화유산
속으로
이야기 셋

평택 한운장군충신정문과 충의각

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이 바로 충과 효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유학의 덕목을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규범으로 삼았습니다. 조선 정부는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한 인물들을 기념하는 시설물들을 전국 방방곡곡에 만들어서 충과 효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충과 효를 다한 인물에게 정문을 내리고, 비각을 세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에는 조선시대 중기에 활동한 충신 한운 장군을 기리는 정문(旌門)이 있습니다. 한운은 조선 명종 때의 사람입니다.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에서 태어난 그는 20세에 과거에 급제하였고, 38세 때 전라도 장흥부사로 부임하여 백성의 어려움을 보살피어 사람들의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그런데 왜구들이 전남 영암·강진·진도 일대에 침입하는 을묘왜변이 일어났습니다.

조선을 7년 동안이나 침략했던 임진왜란은 알지요? 하지만 임진왜란 전에도 일본의 왜구들이 조선을 침입한 적이 꽤 있습니다. 조선 정부는 왜구들의 행패가 있을 때마다 이에 대한 제재 조치로 그들의 무역선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이에 조선으로부터 물자의 보급을 받아야 했던 왜구들은 이를 풀어 달라고 요구했으나 조선 정부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조선 정부의 통제에 대해 불만을 품은 왜구가 1555년 70여 척의 배를 끌고 전라도의 해안 지역을 습격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건이 을묘왜변입니다.

이때 장흥·강진에 침입한 왜구를 물리치기 위해 장흥부사였던 한운은 절도사 원적, 영암군수 이덕견과 더불어 달량진으로 달려갔습니다. 한운 등이 성에 들어가 왜구와 맞서 싸웠지만 적의 숫자는 많았고 기다리는 지원병은 오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식량이 떨어지는 어려움 속에서 마침내 왜구와 최후의 일전을 벌이다가 절도사 원적과 함께 전사하였습니다. 마지막 전투에서 그는 적을 베던 칼이 두 동강나자 칼을 버리고 맨몸으로 적과 싸우다가 마침내 장렬히 전사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훗날 숙종 22년(1696) 그의 충절을 기려 충의(忠義)라는 시호를 내리고 충신정문을 세우게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평택시 이충동에는 충의각이 있습니다. 이충동이라는 마을 이름은 중종 때 개혁 정치를 펼치다 기묘사화로 숨진 조광조와 병자호란 당시 청과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하다 숨진 오달제, 이렇게 두 명의 충신이 살았던 마을이라는 뜻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충의각에는 순조 1년(1800) 진위에 살고 있던 유림들이 나라에 건의하여 세운 조광조와 오달제의 유허비²가 있습니다. 유허비가 세워진 곳은 오달제의 옛 집터가 있는 산 윗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충의각과 유허비는 1950년대까지 길 옆에 방치되어 있다가 1960년대부터 동령마을 주민들에 의해 보호·관리되었으며, 1990년에 기와를 보수하고 단청을 다시 하였습니다.

² 유허비(遺墟碑)는 선인들의 자취가 남아 있는 곳에 그들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비를 말한다.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충의각.

생각 나누기



1. 유교의 가장 큰 실천 덕목인 효와 충의 실천 방안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친구들과 의논하여 아래 빈 칸을 채워 봅시다.

덕목	조선시대	현대
효	머리카락과 수염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이니 깎지 않는다.	
	아침과 저녁에는 부모님의 방에 들어가 이부자리를 살피고 문안 인사를 올린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간 묘를 지키는 삼년상을 치른다.	
충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는 임금에게 충성을 바친다.	공무원은
	관리는 위로는 임금을 섬기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잘 다스린다.	공무원은
	임금은 부모와 같은 분이니 절대로 복종한다.	

생각 더하기

다음은 조선시대 관리를 뽑을 때 임금이 낸 문제들입니다.

책문에 나온 조선시대 과거 시험 문제~

- 법의 폐단을 고치는 방법은 무엇인가? — 세종
- 인재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 세종
- 술의 폐해를 논하라 — 중종
- 그대가 공자라면 어떻게 정치를 하겠는가? — 중종
- 외교관은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가? — 중종
-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는 정치란 무엇인가? — 중종
- 나라를 망치지 않으려면, 왕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명종
- 6부의 관리를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가? — 명종
- 교육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 명종
- 정벌이나 화친이나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가? — 선조
- 지금 가장 시급한 나라일은 무엇인가? — 광해군
- 지금 이 나라가 처한 위기를 구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광해군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하여 일을 해야 합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여러분이 면접을 한다면 다음 대상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국방부 장관 후보자	
외교부 장관 후보자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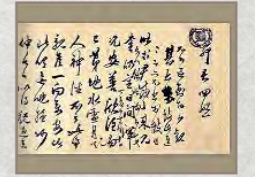
1 조선방역지도

◆종목: 국보 제248호
 ◆소재지: 과천시 교육원로 86 국사편찬위원회 내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으며, 국보급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1557 - 1558. 2)이며, 1989년 8월 1일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조선방역지도는 조선전도인지도와 그 밑에 좌목이 있으며, 비단바탕에 채색 안료로 그린 63x138센티미터(지도 63x98.5센티미터)크기의 지도로서 제용감에서 공물의 진상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이신 등 24명에 의해 제작된 것이다. 임진왜란 때 왜군에 의해 약탈되어 대마번의 종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을 조선총독부산하 조선사편수회에서 조선사 편찬사업과 식민 통치의 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1926년과 1938년 종가문서와 함께 구입하여 관리하다가 해방 후 국사편찬위원회에 인계되어 이들 종가문서를 분류하다 발견된 것이다.



4 추사 김정희서신

◆종목: 경기도지정 유형문화재 제244호
 ◆소재지: 과천시 추사로 78 추사박물관 내
 ◆일제강점기 시절 추사 연구자였던 후지쓰카 치카시(1879~1948)가 소장하고 있던 자료를 그의 아들 후지쓰카 아키나오(1912~2006)가 과천시에 기증한 자료의 하나로, 추사 김정희 선생의 친필 편지이다. 추사 선생의 두 동생(김명희와 김상희)에게 보낸 13통, 역관 제자인 이상적에게 보낸 4통, 권문인과 민태호에게 보낸 편지 6통이다.



2 효령대군영정

◆종목: 경기도지정 유형문화재 제81호
 ◆소재지: 과천시 자하동길 63
 ◆82x110센티미터의 액내에 71x99센티미터 크기의 비단에 그린 영정은 머리에 익선관 형태의 황색 관모를 쓰고 있으며, 홍의의 도포를 걸친 채 탑형의 용봉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정면관으로 그린 전신좌상이다. 가슴에는 관대를 착용했고, 오른손으로 잡은 홀의 고리가 발까지 흘러내림과 동시에 무릎사이에는 옷 주름이 묘사되고 있다. 얼굴은 눈썹과 수염이 섬세한 필치로 그려져 있고 반개한 눈은 하향하고 있다.



5 연주대

◆종목: 경기도지정 기념물 제20호
 ◆소재지: 과천시 자하동길 62
 ◆연주대는 관악산정 연주봉의 죽순처럼 솟아있는 바위들에 30미터의 축대를 쌓고 나한전(응진전: 應眞殿)을 지은 곳을 말한다. 관악산 연주암지에 의하면 신라 문무왕 17년(677)의 상조사가 한강 남쪽에 유회하다가 관악산의 명미 수려함을 수하여 산정에 의상대를 창건하는 동시에 관악사를 개산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6 효자 최사립정문

◆종목: 과천시 향토유적 제3호
 ◆소재지: 과천시 문원로 40-2
 ◆최사립은 1505년 과천 막계에서 출생하여 살았던 효자로서 『조선왕조실록』에 그 지극한 효행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정각은 소실되고 하사받은 액자만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으므로, 충효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과천시에서 1995년에 정각을 복원하고 2011년도에 지금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3 온온사

◆종목: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0호
 ◆소재지: 과천시 관악산길 58
 ◆온온사는 조선시대 과천현의 관아에 부속된 객사의 정당 건물이다. 객사는 각 고을에 설치하였던 관사(객사)로 지방을 여행하는 관리의 숙소 역할과 함께 궐패와 전패를 모셔 놓고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향궐망배를 행하는 곳이었다.





1 원릉군원군선무공신교서

- ◆종목: 국가 지정보물 제1133호
- ◆소재지: 경기 평택시 도일동 원릉군길 96-3 (도일동)
- ◆이 교서는 선조 37년(1604) 10월에 원릉군(原陵君) 원균(元均, 1540~1597)에게 내려진 공신교서이다. 원균은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무과에 급제한 이후 임진왜란 때 왜군과 대적하여 크게 격파하였고, 정유재란 때 통제사(統制使)가 되어 적을 물리치다가 전사하였다. 그는 혁혁한 공적으로 1604년 이순신·권율(權慄)과 함께 선무공신(宣武功臣) 1등으로 책록되었다.



2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 ◆종목: 국가 지정보물 제565호
- ◆소재지: 경기 평택시 현덕면 덕목5길 47-24
- ◆평택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현덕면 덕목리에 위치하고 있는 조계종 사찰인 심복사의 대적광전(大寂光殿)에 모셔져 있다.



3 평택농악

- ◆종목: 문화재명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 ◆소재지: 경기 평택시 팽성읍 팽성2길 18-5
- ◆평택은 소넷들이라는 넓은 들을 끼고 있어 예로부터 농산물이 풍부하였고, 이는 평택농악을 이루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또한 평택 근처의 청룡사(靑龍寺)는 일찍부터 사당패들의 근거지가 되어 조선 말기에는 그들의 농악이 크게 발달하였다. 그래서 평택농악은 두레농악인 동시에 걸립패농악(승려들이 팽과리치면서 엮불하고 공양하는 일)의 성격을 갖는다. 전문 연희패의 영향을 받아 더욱 발전해 오던 평택농악은 인근의 안성·화성 등지와 함께 농악의 중심역할을 해오던 중 1985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받으면서 명실공히 웃다리가락의 대표적인 농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4 대동법시행기념비

- ◆종목: 경기도유형문화재 제40호
- ◆소재지: 경기 평택시 소사동 140-1
- ◆대동법(大同法)의 실시를 알리기 위해 세운 비이다. 이 비는 효종 10년(1659) 김육이 죽은 뒤 충청도 백성들이 호서(호서=충청도)에



실시한 대동법에 감사하여 그 은공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다. 비의 본래 이름은 김육대동균역만세불망비(金瑯大同均役萬世不忘碑)이며, 비문은 홍문관부제학 이민구(李敏求)가 짓고 의정부 우참찬 오준(吳峻)이 썼다. 본래 위치는 현재보다 마을 쪽으로 1백여 미터 아래 옛 소사원 터에 있었지만 1970년 현재 위치로 옮겼다. 높이는 300센티미터, 너비 85센티미터, 두께 24센티미터이다.

5 팽성읍 객사

- ◆종목: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37호
- ◆소재지: 경기 평택시 팽성읍 동서촌로 101-3
- ◆팽성읍 객사는 조선 성종 19년(1488)에 지어졌다. 조선시대 평택현의 중심은 팽성읍 객사리였는데, 그것은 이 시대 고을의 중심에는 관아 시설과 향교, 객사가 있었고, 관속들과 군졸, 관아에 딸린 천민들 그리고 상공업,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이다.



6 평택향교

- ◆종목: 경기도문화재자료 제4호
- ◆소재지: 경기 평택시 팽성읍 부용로 17번길 40
- ◆향교는 공자와 여러 성현께 제사를 지내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 나라에서 세운 국립교육기관이다. 평택향교는 조선 태종13년(1413)에 처음 지었는데, 병자호란으로 불타 없어진 것을 여러 차례 고쳐 오늘에 이른다. 가장 오래된 건물은 17세기 중엽에 중수된 대성전이며 명륜당은 19세기 말에 중수되었다.



7 안재홍생가

- ◆종목: 경기도기념물 제135호
- ◆소재지: 경기 평택시 고덕면 계루지1길 7
- ◆정치가이며 독립운동가인 안재홍(1891~1965) 선생이 태어나 살던 집이다. 가옥은 계루지 마을 야산 기슭에 남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원래는 대문간채까지 남아 있던 큰 집이었으나 현재는 1994년~1995년에 보수한 안채와 사랑채, 담장, 화장실, 대문 등만이 남아 있다. 20세기에 들어서 전통가옥들이 생활의 편의를 수용하여 변화하게 되는데, 이 집의 경우가 이러한 변화된 경기지역 살림집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의 사상과 종교 유산



11차시

소박한 기원이 담긴 민간 신앙



남양주시 덕릉마을에 있는 산신각입니다. 보통 절에 있는 산신각과 달리 이것은 마을에 있어요.



남양주시 캐릭터 정약용.

시흥시 군자봉 성황제의 모습입니다. 커다란 당산나무 아래에서 나라의 평안과 마을 사람들의 안녕을 비는 제사가 행해지고 있네요.



시흥시 캐릭터 소통이.



생각 열기

간절하게 소원을 비는 마음



선돌과 솟대 그리고 장승을 아시나요? 이 문화유산들은 먼 옛날부터 마을 입구에 세워져 마을 사람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을 드나들면서 이곳에서 평안과 안녕을 빌었지요. 솟대는 긴 나무 끝에 새가 달려 있는 형태입니다. 장승은 보통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무서운 얼굴을 하고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등의 이름이 가슴팍에 새겨져 있어요. 선돌은 어른 키보다 커다란 바위를 세운 것입니다. 이들 3가지는 모두 마을 입구에 세워져 마을의 이정표 역할과 함께 마을 사람들의 소원을 비는 장소이기도 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가족은 물론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빌었습니다. 이렇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전통 신앙을 민간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 사람들이 예로부터 마음속 깊이 믿었던 민간 신앙들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요?

문화유산
속으로
이야기 하나

민간 신앙

동짓날 학교 급식으로 팔죽을 먹어 본 적이 있지요? 왜 팔죽을 먹을까요? 먼 옛날 동짓날 죽은 사람이 병을 옮기는 귀신이 되어 사람들에게 병을 옮겼습니다. 이 귀신이 사람이었을 때 가장 싫어했던 것이 팔이었던답니다. 그래서 팔죽을 찌어 집 대문과 집안 곳곳에 뿌리고 가족들이 먹으면 병을 옮기는 귀신이 감히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팔죽을 먹는 풍습이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또 아이들이 어릴 때 생일 날 수수팔떡을 해 먹고, 큰 행사를 앞두고 고사를 지낼 때 팔 시루떡을 올렸습니다. 팔의 붉은 색이 나쁜 일을 일으키는 귀신을 물리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팔은 열을 내리고 설사를 멈추게 하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영양소를 갖추고 있어 자라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임산부에게도 좋습니다. 팔을 많이 먹으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팔이 병을 옮기는 귀신을 물리친다는 민간 신앙이 생긴 것은 아닐까요?



2018년 1월 31일 '슈퍼블루블러드문'이 떠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구의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으로 어두운 핏빛을 띠는 '블러드문', 한 달

에 2번째로 뜨는 보름달 '블루문', 달이 지구와 가까워 평소보다 크게 보이는 '슈퍼문' 현상이 함께 일어난 특별한 달이었던 것입니다. 지구가 갖고 있는 유일한 위성인 달은 동양과 서양,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달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보름달만 보면 늑대로 변하는 늑대인간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름달이 뜨는 밤에는 사람들이 어두운 숲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팔월 한가위와 정월 대보름에 뜨는 달을 보고 소원을 비는 풍습이 이어져 내려옵니다. 정월 대보름에는 밤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달집을 태우며 하늘의 달에 소원을 비는 풍습이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의 큰 달은 풍요를 상징하고 달집을 태우는 불은 사악한 것을 태워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해 동안 더럽고 사악한 것을 물리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달집을 태우고 소원을 비는 민간 신앙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산을 오르다 보면 탐처럼 돌무더기를 쌓아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등산객들이 하나둘 올려놓은 돌이 어느덧 제법 큰 돌무더기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도 가끔 이곳에 돌을 쌓으며 소원을 빈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돌무더기는 예전에는 마을 입구에 많이 있었어요. 마을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아내는 민간 신앙의 대상물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소원을 빌면서 하나하나 쌓아 올린 것입니다. 돌무더기에는 마을을 지키고 가꾸는 실용적인 성격도 있었습니다. 먼 옛날 적들이 마을로 쳐들어오면 돌맹이를 던져 마을을 지켰어요. 그래서 마을을 지키기 위한 무기로 마을 입구에 돌맹이를 쌓아 올린 것이지요. 한편 마을길에 흩어져 있는 돌맹이들은 사람들이 다니는 데 어려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돌들을 모아서 마을 환경을 깨끗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역할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소박한 민간 신앙에는 마을에 살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실용적인 해결이 신앙으로 바뀐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지만 어떤 문제들은 우리 힘으로 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어떤 손길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이러한 간절한 바람들이 구체적인 신앙의 대상이 되거나, 특별한 기원 의식으로 나타난 것이 민간 신앙이라고 할 수 있지요.

문화유산
속으로
이야기 들

시흥시 군자봉 성황제

경기도 시흥시 군자봉은 해발 약 200미터 정도의 얇은 산입니다. 군자봉의 정상에 커다란 느티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400년은 족히 넘어 보이는 이 나무의 아래에서 해마다 음력 10월 3일이 되면 큰 성황제가 열립니다.

성황제란 무엇일까요?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을 성황신이라고 하는데 이 성황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마을의 안녕과 마을 사람들의 복을 기원하는 의식을 성황제라고 합니다. 성황제는 고려시대에도 마을마다 크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럼 군자봉 성황제는 언제부터 지냈을까요? 군자봉 성황제의 기원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고려시대 서희가 송으로 건너갈 때 시흥에서 출발했다고 해요. 그런데 배만 타면 풍랑이 일어 떠나지를 못했답니다. 어느 날 서희의 꿈에 경순왕의 부인인 순흥 안씨와 친정 엄마인 남양 홍씨가 나타나 경순왕을 위해 제사를 지내 주면 바다를 잔잔하게 해 주겠다고 합니다. 다음 날 이들을 위해 제를 올리자 거짓말처럼 바다가 잔잔해져 서희가 무사히 송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 설화를 보면 성황제가 고려시대부터 행해졌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기록으로 나타난 것은 조선시대부터입니다.

나는 경순왕의 부인인 순흥 안씨입니다. 우리 남편 경순왕을 위해 제사를 지내 주면 바다를 잔잔하게 해서 당신이 편안하게 바다를 건널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인문지리서인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¹에 “안산에는 2개의 성황사가 있는데 하나는 군(읍치)에서 2리 떨어져 있고, 또 하나는 32리에 있다.”라는 기록이 있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성황제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사진에서 부채를 들고 서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군자봉 성황제를 주관하는 사람은 무속인입니다. 성황제의 의식을 진행하며 마을의 안녕, 특히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이 안전한 항해를 기원합니다.



¹ 중종 25년(1530) 이행(李衍)·윤은보(尹殷輔)·신공제(申公濟)·홍언필(洪彦弼)·이사균(李思鈞) 등이 『동국여지승람』을 증수하여 국가에서 편찬한 인문지리서이다.

군자봉 성황제 모습.

군자봉 성황제는 유가 행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유가 행렬은 무엇일까요? 원래 ‘유가遊街’는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고향에 와서 임금님이 하사한 어사화(御賜花)를 꽃고 마을을 도는 행사를 말합니다. 군자봉 성황제의 유가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마을을 돌면서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가 행렬의 맨 앞에는 ‘경순대왕’이라고 쓴 깃발이 서고 그 뒤를 성황신을 상징하는 ‘서낭대’ 깃발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풍물패가 악기를 연주하며 흥을 돋웁니다. 이때 각 가정에서는 성황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얼마씩 쌀이나 돈을 기부하였다고 합니다.

서낭대는 길이가 약 10미터에 달하는 대나무에 오색 천을 감아 장식하였는데, 5가지 색깔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5가지 색깔을 오방색이라고 합니다. 오방색은 한국의 전통 색상으로 오방정색이라고도 하며 황黃, 청靑, 백白, 적赤, 흑黑의 5가지 색을 말합니다. 오방색은 동서남북과 중앙을 나타내는데, 황黃은 중앙, 청靑은 동, 백白은 서, 적赤은 남, 흑黑은 북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황제를 미신이라고 꺼리지 않나요? 무속인이 주관하는 행사라고 미신으로 꺼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간 마을의 평안과 마을 사람들의 소박한 기원을 담아서 행해진 행사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성황제를 함께 치르면서 서로 도우며 사는 마을 공동체의 의식을 단단히 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군자봉 성황제에는 매년 시흥시장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야말로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가 행렬과 서낭대 모습.

문화유산
속으로
이야기 셋

남양주의 산신각

남양주시 별내면 덕릉마을 어귀의 얽은 야산 위에는 경기도 민속자료 제9호로 지정된 덕릉마을 산신각이 있습니다. 이 산신각은 덕릉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여 산신에게 제사 의식을 지내는 신성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산신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70퍼센트가 산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평생 산과 함께 산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산과 밀접하게 생활했어요. 그래서 산을 친근하게 생각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경외심을 가지고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해와 달에 신이 있다고 믿는 것처럼, 산에도 신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중국의 기록에 보면 “동이(우리 민족을 중국 사람들이 가리키는 말) 사람들은 산천을 존중하였고, 호랑이에게 제사를 지내며 신으로 섬긴다.”라고 되어 있어 먼 옛날부터 산신 신앙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를 산신으로 생각하는 신앙도 있었음을 알 수 있지요. 단군이 고조선을 세운 곳도 태백산 신단수 아래라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산은 신이 깃들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산신각을 살펴봅시다.

일반적으로 산신각은 부처를 모신 절에서 가장 산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 안의 여러 건물 중 하나인 것이죠. 하지만 덕릉마을 산신각은 절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달랑 산신각 1채만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덕릉마을 산신각에서 모신 산신은 수락산 산신입니다. 수락산은 해발 638미터의 산으로 서울시 도봉구, 노원구, 경기도 의정부시, 남양주시에 걸쳐 있는 커다란 산입니다. 산에는 기암괴석이 많고 맑은 물이 넘쳐 흘러 예부터 많은 마을들이 이 산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덕릉마을 사람들은 수락산의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왔는데 조선 후기에 제사를 지내기 위한 산신각을 새로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신앙과는 관련 없이 순수하게 산신 신앙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산신각이라고 할 수 있지요.

건물 안에는 산신도라는 그림이 정면에 걸려 있습니다. 그림의 중앙에는 망건을 쓰고 흰 수염을 기른 산신이 연꽃 모양의 부채를 들고 앉아 있습니다. 산신의 오른쪽 뒤에는 관음보살이 쟁반에 석류 2알을 받쳐 들고 서 있고, 그 앞에 2명의 동자가 서 있

습니다. 그 앞에는 1명의 스님이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산신의 왼쪽에는 호랑이가 1마리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 속 등장인물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호랑이는 산신의 아바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맹한 모습으로 나쁜 귀신이나 질병을 물리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관음보살은 불교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분입니다. 특히 쟁반 위의 석류에는 자손이 번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산신각 내부의 산신도.

산신각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매년 음력 1월과 10월 초하루에 산신제를 지냅니다. 제사를 담당하는 제관은 집안에 큰 일이 없는 사람을 택하는데, 제관이 되면 제사를 지낼 때까지 몸을 깨끗이 하고 더러운 것을 멀리하는 등 정갈한 몸과 마음을 유지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낸 후에는 마을 회관에 함께 모여 제사에 올린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공동체 의식을 다집니다.



생각 나누기



1. 다음 야광귀 이야기를 읽어 보세요.

야광귀(夜光鬼)는 정월 초하루나 정월 대보름을 전후한 날 밤에 마을에 내려와 사람들의 신을 신어 보고 발에 맞는 것을 신고 간다고 하는 귀신입니다. 그래서 '신발귀신'이라고도 하지요. 야광귀는 여러 신발을 신어 보고 자기 발에 꼭 맞는 것을 신고 달아나 버린다고 합니다. 이 귀신이 신발을 가져가면 신발의 주인은 1년 내내 운수가 불길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야광귀에게 신발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신발을 감추어 두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벽에다 체*를 걸어 두었어요. 체를 걸어 두면 야광귀가 신발 훔치는 것도 잊어버리고 체에 뚫린 구멍이 몇 개인지 세다가 새벽닭이 울면 서둘러 달아난다고 믿었습니다.

*체: 가루를 곱게 치거나 액체를 받거나 거르는 데 쓰는 기구. 얇은 나무나 널빤지로 만든 첿바퀴에 말총, 명주실, 철사 따위로 그물 모양의 첿볼을 씌워 나무못이나 대못을 박아 고정하여 만든다.

2. 체에 뚫린 구멍을 세다가 신발 훔쳐가는 것을 잊어버리는 야광귀가 귀엽게 느껴지지 않나요? 구멍 개수를 자주 잊어 먹으면서도 끝까지 세어 보려고 하는 야광귀를 생각해 다음 그림을 예쁘게 색칠해 봅시다.



생각 더하기

1. 다음은 시흥시 성황제에서 무속인이 기원한 기원문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기원문을 적어 봅시다(성황제 사설 들어보기).

성황제에서 기원한 내용		내가 기원한 내용	
나라	내용을 적어 주기	나라	
시흥시	내용을 적어 주기	학교	
개인	내용을 적어 주기	우리 집	
		나	

2. 사설은 <쇼미더머니>에서 래퍼들이 가사를 쓰고 노래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래퍼가 돼서 여러분의 소원이 담긴 사설을 만들어 봅시다(라임을 맞춰서 적어보기).

성황제의 사설	내가 쓰는 기원문(라임을 맞춰서 적어 보기) 랩 가사를 쓰는 것과 같다

3. 발표한 친구 중에서 가장 잘한 친구를 적고, 그 이유를 적어 봅시다.

제일 잘한 친구	잘한 점

현장 체험 학습

남양주시 문화유산 안내도



1 봉선사 동종

◆보물 제397호
◆소재지: 진접읍 봉선사길 32
조선시대 범종 양식의 선례가 되는 작품으로 주목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봉선사에서 종을 사용하고 있다.



5 팔당역

◆등록문화재 제295호
◆소재지: 와부읍 팔당로 163
팔당역은 1939년 4월 1일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했다.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물게 플랫폼에 노선을 따라 설치되어 있는 일자형의 장방형 역사로서 희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2 광릉

◆사적 제197호
◆소재지: 진접읍 광릉수목원로 354
◆광릉관리소: 031-527-7105
광릉은 조선 제7대 세조(世祖) 1417~1468)와 정희왕후 윤씨(貞熹王后 尹氏)의 능이다.



6 퇴계원 산대놀이

◆경기도무형문화재
◆지정번호: 무형문화재 제 52호
퇴계원 산대놀이는 1930년대까지 남양주시 퇴계원(당시 양주)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던 전통 민속예술이다.

3 광릉 크낙새 서식지

◆천연기념물 제11호
◆소재지: 진접 부평, 포천 소흘
남양주시 진접읍과 별내면, 포천군 소흘읍, 의정부시 등 5개 행정구역에 걸친 75만여 평이 크낙새 서식지로 보호되고 있다.



7 정약용묘

◆지정번호: 기념물 제7호
◆소재지: 조안면 다산로747번길 11
정약용 선생은 조선 후기의 대학자이다.



4 남양주 동관덕

◆국가민속문화재 제129호
◆소재지: 진접읍 금강로 961번길 25-14
남양주 동관덕은 조선 후기 태묘산 끝자락에 남서향으로 지어진 연안 이씨 고택이다. 이 가옥은 사랑채와 안채를 구분한 남녀의 영역과 안채와 문간채와의 상하 영역이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조선 후기 상류계층인 사대부의 가옥 형태를 잘 나타내고 있다.





1 시흥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 ◆보물 제1324호
- ◆소재지: 대야동 산140-3
- ◆시대: 고려시대
- ◆시흥 소래산 마애보살입상은 소래산 중턱에 위치한 병풍바위(또는 장군바위) 암벽에 선각(線刻)되어 있다. 이 마애보살입상은 높이 12.3m, 원통형의 보관은 높이 1.42m, 머리높이 3.27m, 어깨너비 3.75m의 거대한 불상조각으로 우리나라 석불조각에 있어서 대단히 큰 규모이다. 불상의 모습을 선으로 얇게 새긴 선각임에도 불구하고, 기법이 우수하고 회화적인 표현이 뛰어난 세련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4 관곡지

- ◆시흥시 향토유적 제8호
- ◆소재지: 하중동 208
- ◆시대: 조선시대
- ◆관곡지는 조선 전기의 관료이며 금양잡록이라는 농서를 지은 농학자로 이름이 높은 강희맹(1424~1483) 선생과 인연이 깊은 연못이다. 그가 세종 9년 중국의 명나라에 갔다가 가져온 연꽃씨를 작은 연못에 심었다고 전한다. 이후 연못은 폐허가 되었다가 헌종 10년(1844) 새로 못을 파서 조성했다. 해마다 연꽃이 피는 철에는 다양한 연꽃을 즐길 수 있다.



2 시흥 오이도 유적

- ◆사적 제441호
- ◆소재지: 정왕동 914 외
- ◆시대: 신석기시대~통일신라시대
-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먹고 버린 조개껍데기가 가득 쌓인 것을 패총(조개무덤)이라고 한다. 오이도는 섬 전체가 패총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정도로 패총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 패총에서는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는데 출토 유물로는 빗살무늬토기편·석기류 등과 굴을 파서 만든 주거지와 야외에 불을 피운 흔적 등이 확인되어 우리나라 신석기 문화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3 조남동 지석묘

- ◆경기도 기념물 제103호
- ◆소재지: 조남동 480-8외
- ◆시대: 청동기시대
- ◆조남동 지석묘는 우리 나라 선사시대인 청동기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무덤이다. 덮개돌의 규모는 길이 4.2m, 넓이 3m, 두께 70cm에 이른다. 고인돌의 아래쪽에서는 유물이나 유적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주변 지역인 광명시 가학동·철산동과 의왕시 내손동·이동·삼동, 안산시 양상동·선부동, 군포시 산본동·부곡동, 안양시 평촌동 등에서 발견된 고인돌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유적이다.



5 능곡동 선사유적

- ◆향토유적 제 20호
- ◆소재지: 능곡동 479 외
- ◆시대: 신석기 시대
-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된 능곡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신석기시대 집자리 24기 이외에 청동기시대와 고대까지 여러 시대의 다양한 유구들이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도 해발 약 33m의 큰 구릉 능선 정상부를 중심으로 분포한 신석기 시대 집자리 24기는 신석기시대의 마을로 볼 수 있다. 이곳은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발견된 최대 규모의 신석기시대 마을유적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물왕저수지 방면으로 예정되어 있던 계획도로는 터널식으로 변경하여 능곡동 유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치되었으며, 신석기시대 집자리들을 원위치에 보존하기 위하여 공원으로 조성하여 문화유산 배움터로 활용하고 있다.



6 포동 새우개 당제

- ◆소재지: 포동 새우개마을
- ◆시대: 고려 말(추정)
- ◆포동은 전통시대로부터 광복 이후에 이르기까지 시흥 지역 어업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곳으로 포동의 새우개 당제의 제의 성격은 마을의 풍어와 안녕, 주민들의 건강을 비는 마을 제사이다.



경기도의 사상과 종교 유산



12차시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

생각
열기

2018년, 그 시작은 예수의 탄생

수원시에 있는 삼일학교에
예쁘게 지은 서양식 건물이 있는데,
미국 선교사 스웨어가 미국
아담스교회의 지원으로 지은
건물입니다.



수원시 캐릭터 수원이.



아담스기념관.



의정부2동성당.



의정부시 캐릭터 의돌이.

의정부에 세워진 성당
건물로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전통신앙과 불교가 깊게 뿌리내린 우리나라에 조선 후기부터 서양의 크리스티교가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종교가 아니라 청나라를 통해 책으로 전해진 서학이라는 이름의 학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청나라에 사신단의 일원으로 갔던 사람들이 『천주실의』라는 책과 서양의 신부들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천주교를 접하게 됩니다. 이후 신앙으로 발전한 천주교는 사악한 종교라는 누명을 쓰고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항기 이후 선교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개신교가 전해졌고 이렇게 전해진 크리스티교는 불과 200여 년 만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의 크리스티교 관련 문화 유산을 공부해 볼까요?

문화유산
속으로
이야기 하나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

오늘날 크리스티교는 믿는 사람들은 물론 크리스티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일상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2월 14일은 남학생들의 마음이 두근두근하는 날입니다. 이른바 ‘밸런타인데이’로 여성이 좋아하는 남성에게 사탕이나 초콜릿을 선물하며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날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밸런타인데이의 유래는 로마시대 순교자인 ‘밸런타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주교였던 밸런타인은 군인들의 결혼을 금지한 클라디우스 2세 황제의 명령을 어기고 군인들의 혼인을 성사시켜 주었다가 사형을 당합니다. 밸런타인이 순교한 2월 14일을 기려서 남녀가 사랑을 맹세하는 날이 된 것입니다. 이날이 영국에서 초콜릿으로 사랑을 전하는 풍습으로 바뀌게 되었지만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 된 것은 일본의 한 제과회사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런데 초콜릿을 만드는 제과회사들이 너도나도 앞다투어 이날을 홍보하면서 밸런타인 데이는 ‘여성인 남성에게 선물을 주는 날’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달 후에는 ‘남성이 여성에게 보답하는 선물을 주는 날’로 ‘화이트 데이’라는 유래도 없는 날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거리에 울려 퍼지는 캐럴송이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이른바 ‘크리스마스 시즌’이 시작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리스티교의 최대 축제일로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의 사랑을 기리는 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고 어린이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산타 할아버지가 전해 줄 선물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실제 예수의 생일은 12월 25일이 아니었습니다. 12월 25일은 로마, 이집트 등의 지역에서 1년 중 해가 가장 짧아지는 동지에 즈음하여 어둠이 물러나고 빛이 세력을 얻는 것을 기념하는 축제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로마 교황에 의해 예수의 탄생일로 선포되면서 크리스티교의 축제일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산타 할아버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의 본명은 ‘니콜라우스’로 남몰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훌륭한 인물로 나중에 천주교의 성인으로 추앙됩니다. 그래서 ‘성 니콜라우스’라는 칭호를 받았는데 이 발음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산타클로스’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빨간 옷을 입고 배가 불룩한 산타 할아버지의 모습은 어디에서 유래된 것일까요? 그것은 1930년대 한 음료수 회사의 광고에서 처음 그려진 그림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렇게 크리스티교와 관련된 기념일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기억하고 즐기는 날이 되었을 정도로 크리스티교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큼니다.



1931년 음료수 광고에 처음 사용된 산타클로스의 그림.

문화유산
속으로
이야기들

수원시 아담스기념관

경기도 기념물 제175호인 아담스기념관은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에 있는 삼일학원의 학교 건물입니다. 1923년에 건립된 이 건물에 '아담스기념관'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미국 아담스교회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삼일학원은 1903년 수원 보시동(현 북수동) 북감리교회에서 미국인 선교사 W. 스웨어러(W. Swearer: 1871~1916, 한국 이름은 서원보)가 세운 교회 부설 학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수원 출신 독립운동가 임면수 선생과 이하영 목사 등 민족 지도자를 비롯하여 수원의 뜻있는 분들이 땅과 돈을 마련하여 장소를 옮겨 학교를 확대·증축합니다. 임면수 선생은 삼일학교를 세운 근대 교육자이자 1907년 수원 지역 국채보상운동을 이끈 수원의 대표적인 민족 운동가입니다. 하지만 70~80명 정도밖에 수용하지 못하여 배움에 목마른 수원의 젊은 학생들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수원 지방의 감리교회를 책임지는 목사였던 W. A. 노블(W. A. Noble)이 이러한 사정을 미국 아담스교회에 알려 교인들로부터 건립 기금 2만 엔을 기부받아 현재의 자리에 건물을 지었고 학생 수도 수백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서자 삼일학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삼일학교는 일 본인이 편찬한 교과서를 쓰지 않고 직접 만든 교과서를 사용했는데 이를 빌미로 교과서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없이 수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일제가 1915년 사립학교 규칙을 공포하면서 모든 사립학교가 폐교에 직면했을 때 삼일학교는 외국인 선교사를 설립자로 내세운 덕분에 가까스로 폐교를 면했습니다.

1919년 일제의 무단 통치에 맞서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삼일학교의 학생들도 만세 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일제는 3·1운동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학교이름인 '삼일'을 바꾸라는 강압을 하였고 1940년 11월 9일 학교 이름이 '팔달 심상고등소학교'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빼앗긴 학교 이름은 해방 이후 '수원 삼일학교'로 다시 되찾게 됩니다.

개화기에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많은 학교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약한 나라를 침략하여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들어 빼앗던 시대였습니다. 제국주의 국가의 사람들은 식민지 사람들을 열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 선교사들 중에서도 우리 민족을 야만인으로 깔보고 단순히 선교와 함께 자신들의 우월한 문명을 전파해 주는 대상으로 보았던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외친 예수의 가르침처럼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에 고통받는 우리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생각하고 근대 교육을 통한 계몽은 물론 민족 운동에 도움을 준 선교사들도 많습니다. 이분들을 기리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웃으로, 내 몸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 보는 것은 어떨까요?



수원 삼일학교에 있는 아담스기념관의 모습.

문화유산
속으로
이야기 셋

의정부2동성당, 의왕시 하우현성당

의정부2동성당은 조선 말에 처음 세워진 것으로 알려진 성당입니다. 순조 때부터 흥선대원군 시기 사이에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탄압이 매우 심했습니다. 이때 의정부 일대의 우고리(양주군 광적면)와 신암리(연천군 남면) 일대에 박해를 피해 신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에 의해 함께 모여 사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도자기를 굽던 마을이 형성되었는데 이것이 성당의 첫 시작이라고 합니다. 1927년에 개성본당의 신암리 공소¹가 본당으로 승격되었고, 1934년에는 덕정리본당(양주군 회천면 덕정리 역전 위치)이 완공되었는데, 이것이 의정부성당의 전신입니다.

1945년에는 덕정리에서 의정부리로 성당을 옮겼으나 6·25전쟁 때 불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 1953년 의정부에 주둔하고 있던 주한 미군의 지원을 받아 새로 건립하였습니다.

¹ 본당보다 작은 교회 단위. 본당 사목구에 속하여 있는, 신부가 상주하지 않는 예배소나 구역을 말한다.



의왕시의 청계산과 광고산맥을 잇는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는 하우현성당은 서울에서 약 24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안양시와는 약 8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로 안양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우현 일대에 언제부터 천주교인들이 모여들어 살게 되었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이 지역에 청계산과 광고산 등 높은 산들이 있고, 거기에 형성된 계곡과 울창한 나무 숲이 박해를 피해 산속을 찾던 천주교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피난처였기에 천주교인들의 마을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884년에 하우현은 천주교 신자들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고 뮈텔Mütel 신부 등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천주교는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뮈텔 신부는 상인으로 변장하고 은밀히 하우현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1886년 한불조약²의 체결로 비로소 조선에서도 선교의 자유가 허용되었습니다. 이후 1888년 현재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의 성당이 최초로 교구의 본당으로 승격되면서 이곳 하우현의 공소까지 관할하였습니다.

1894년 왕림 본당 신부였던 알릭스Alix 신부는 하우현 신자들이 예배당도 없이 신자 집에서 모여 예배를 보는 것을 보고 강당 신축을 추진합니다. 하우현 마을의 신자들이 모금한 돈과 신부가 낸 돈 등 모두 1,500냥 등으로 목조 강당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1900년에 하우현은 왕림의 본당에서 분리되어 본당으로 승격되어 독립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 윤예원 신부가 부임합니다. 그는 황해도 은율성당의 신부였는데 신자들에게 독립 의식을 심어주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지원하는 활동을 벌인 분입니다. 이런 활동으로 인해 문책을 받아 하우현성당으로 부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윤예원 신부는 하우현에서도 애경강습소를 지어 지역의 학생들에게 민족 교육을 하였습니다. 1926년 민족 교육을 실시했다는 명목으로 신부를 소환해서 조사를 벌였을 정도로 일제의 감시를 받았습니다.

1965년 성당 건물이 오래되어 붕괴 위험이 있자, 미군 부대로부터 건축 자재를 지원받아 현재의 성당을 지었습니다. 하우현은 현재 200여 명의 신자들이 있는 작은 성당이지만 조선 말기 천주교 박해를 피해 신앙의 자유를 지켰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의정부2동성당.



의왕시 하우현성당.

² 조불수호통상조약으로 조선 말기 고종 23년(1886)에 조선과 프랑스가 수교와 통상을 목적으로 맺은 조약이다.

생각 나누기



다음 글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아담스기념관에서 화홍문 쪽으로 가다보면 수원 동신교회가 있다. 이 교회는 노리마쓰 마사야스라는 일본인 선교사가 세운 것으로 처음에는 성서강당이라고 했다. 그는 수원에 영주한 최초의 일본인으로 1900년 8월에 수원으로 와서 선교 활동을 벌였는데 이는 일본 개신교 역사상 최초의 해외 선교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노리마쓰는 다른 일본인들과는 달리 한복을 입고 한국인과 같은 생활을 하며 자식에게도 일본어 대신 한국어를 가르쳤다고 한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국인을 탄압하는 정복자로서의 일본인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그는 1921년 일본에서 사망했지만 그의 유해는 이듬해 수원으로 돌아와 광고산에 묻혔고 신도들에 의해 기념비가 세워졌다. 현재 그의 무덤은 교회 뒤뜰로 옮겨졌다. 종교를 떠나 한국인과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중을 가졌던 한 일본인 선교사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

1. 노리마쓰가 한국인과 같은 생활을 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2. 다음 두 사진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왼쪽_1898년 완공된 우리나라 최초의 고딕 양식의 건물인 명동성당.
오른쪽_1900년 완공된 성공회 강화성당.

2-1. 왼쪽은 천주교 명동성당이고, 오른쪽은 성공회 강화성당입니다. 두 건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2. 두 건물을 지은 사람이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해서 각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를 비교하여 말해 봅시다.

명동성당을 지은 사람은
강화성당을 지은 사람은

생각 더하기

1. <보기>의 단어를 이용하여 다음 빈 칸에 해당하는 크리스트교에 대한 설명을 만들어 봅시다.

천주교를 설명하는 글을 만들어 봅시다.

개신교를 설명하는 글을 만들어 봅시다.

성공회를 설명하는 글을 만들어 봅시다.

<보기>

신부, 목사, 수녀, 집사, 권사, 성당, 교회,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 캔터베리 대주교, 교황, 미사, 예배, 성모 마리아, 가톨릭, 구교, 신교

의왕시 문화유산 안내도

현장 체험 학습

7 수원 축만제

- ◆종목: 경기도기념물 제200호
- ◆소재지: 팔달구 화서동 436-1
- ◆화성의 서쪽 여기산 아래 축조한 저수지로 축만제둔의 관개시설로 만들어졌다. 정조23년(1799) 정조는 내탕금 3만 냡을 들여 축만제를 만들게 하고 수문 2곳을 갖추었다. 물리면적은 232두락으로 화성 주변의 인공 저수지 가운데 규모가 가장 컸으며 과학 영농의 본보기 시설물이다. 만석거와 만년제에 뒤이어 축조된 축만제는 천년만년 만석의 생산을 축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화성 서쪽에 있어 일명 서호로 불리고 있으며 서호에 비치는 낙조로 유명하다.



8 팔달산지석묘군

- ◆종목: 경기도기념물 제125호
- ◆소재지: 팔달구 교동 산 3-1
- ◆지석묘는 청동기시대의 무덤으로 흔히 고인돌이라고 부른다. 현재 수원 시립도서관의 동쪽 구릉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상부 쪽으로 약 70미터 올라가면 화성 성곽이 위치하고 있다. 1·2호 고인돌은 7미터 거리를 두고 비교적 낮은 구릉의 평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팔달산 정상의 화성이 있는 쪽을 향하여 50미터 정도를 더 올라가면 오솔길의 왼편으로 3·4호 고인돌이 위치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같은 지석묘군은 경기도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한강 유역의 선사문화를 밝히는 데 귀중한 자료이다.



1 청계사 동종
2 청계사 목판
3 청계사

4 임영대군묘역 및 사당

의왕시

의왕시청

오봉역

의왕역

1 청계사 동종

- ◆종목: 보물 제11-7호
- ◆소재지: 의왕시 청계동 11
- ◆종의 꼭대기는 수평으로 평퍼짐하지 않고 약간 둥그스름하게 볼러 있으며 그 한가운데에 서로 반대쪽을 향해 있으면서 몸이 엉켜 있는 쌍용의 용누가 돌출해 있어 여기에 쇠리를 꿰어 종을 매달았다. 어깨 부분에 둘러진 띠는 그 안에 연속으로 줄무늬를 새겨 장식하였고 맨 아래쪽 종구의 둘레를 장식한 띠에는 보상화문이 연속으로 새겨져 있다.



2 청계사 목판

- ◆종목: 보물 제135호
- ◆소재지: 의왕시 청계동 11
- ◆청계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불교 경판은 목판으로 경판수는 18부 466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청계사

- ◆종목: 경기도지정문화재자료 제6호
- ◆소재지: 의왕시 청계동 11
- ◆청계산 남쪽 태봉 자락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용주사의 말사로, 『봉은본말지』에 통일신라 때 창건되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고려 충렬왕 10년(1284) 평양부원군 조인규(趙仁規)가 사재를 들여 중창하였고, 이후 조인규 가문의 원찰로서 후손들이 약 500년간 중창을 거듭하였다. 조선 연산군 때 도성 안의 사찰을 폐하고 관청을 세우자 불교 쪽에서 이 절을 선종의 본산으로 정하였다.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이색(李穡)·변계량(卞季良) 등 당대 문인들이 즐겨 찾으며 절을 주제로 시를 지었으며, 조운(趙胤)·정송산(鄭松山) 등은 이곳에서 출가하거나 칩거했다.



4 임영대군묘역 및 사당

- ◆종목: 경기도지정문화재자료 제98호
- ◆소재지: 의왕시 내손동 산 154-1
- ◆세종대왕의 넷째 왕자인 임영대군 묘 및 사당은 능안 마을 뒤쪽 모락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다 묘역은 3단으로 상단에는 봉분과 비석이 있는데 봉분은 둘레가 1,650센티미터, 높이가 210센티미터로 대형이다. 봉분주변의 호석은 1981년에 새로 축조한 것으로 동서남북의 모서리에 대나무, 꽃, 새 등의 무늬를 새겨 놓았다. 봉분의 동쪽에는 높이 200센티미터, 너비 50센티미터의 비석이 있는데 앞면에 '조선국왕자임영대군정간공지묘(朝鮮國王子臨瀛大君貞簡公之墓)', 뒷면에는 '개국오백삼십삼년알봉공돈병월일중건신좌(開國五百三十三年闕逢困敦病月日重建辛坐)'가 새겨져 있다.





1 망월사 혜거국사부도

- ◆종목: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22호
- ◆소재지: 의정부시 호원동 산 91번지
- ◆망월사 큰 법당에서 남서쪽으로 언덕을 넘어가면 혜거 국사 부도가 있



다. 혜거 국사의 사리를 봉안한 이 부도는 팔각원당형이다. 전체의 높이는 3.4미터이고 탑의 몸통 둘레는 3.1미터이다. 탑 모양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단부위에 구형 탑신을 안치하고 옥개석과 상륜부로 구성돼 있다. 기단부는 지대석과 대석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대석은 팔각형 삼단의 일석으로 조성되고 높이가 80센티미터이다. 그리고 그 위에 괴임대를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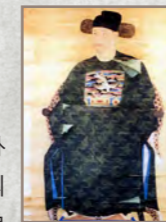
2 약수선원 목조보살입상

- ◆종목: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76호
- ◆소재지: 의정부시 호원동 226-54
- ◆이 보살상은 조선초기 보살양식(菩薩樣式)을 일부 갖추고 있는 전형적인 조선중기의 보살상이다. 보관(寶冠)을 벗긴 상의 전체 크기는 84센티미터로 아담하며, 조각도(彫刻刀)를 쓰기에 좋고 자체 독성(毒性)이 있어 해충에 강한 행자목(杏子木)으로 제작되었다.



3 하석 박정 영정

- ◆종목: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77호
- ◆소재지: 의정부시 장암동 197
- ◆조선 중기의 문신인 하석(霞石) 박정(朴疜 : 1596(선조 29)~1632(인조 10))의 초상화이다. 박정의 푸른색 관복상(가로



153센티미터, 세로 82센티미터)이 작품은 좌안칠분면(左顔七分面)으로 낮은 사모에 백한(白鬨)이 그려진 흥배의 푸른색 관복을 입은 인물을 묘사하였다. 인물의 묘사법을 보면 조선중기 초상화의 기법을 보여주고 있으며 흥배의 양식은 1623년 박정이 인조반정의 참여로 정사공신(靖社功臣)에 책록될 당시의 정3품 품계에 해당되는 백한(白鬨)이 그려져 있어 공신 책록과 관련하여 그려진 것임을 알 수 있다.

4 정문부 장군묘

- ◆종목: 경기도기념물 제37호
- ◆소재지: 의정부시 용현동 379-32
- ◆정문부 장군은 문신이면서도 문무를 겸비한 인물이다. 그는 선조 때



(1588) 문과 갑과에 급제하여 북평사가 되었다. 임진왜란 때 국경인 등이 적에 항복하고 반란을 일으키자, 의병대장이 되어 반란을 평정하였다. 1597년에는 길주목사가 되었다. 1624년 이괄의 난에 관계했다는 누명을 쓰고 고문을 당하다가 끝내 죽었으니 그때 나이 60세였다. 그 뒤 좌찬성이란 높은 벼슬을 추증받았다. 묘 앞 동남쪽 20미터 지점에 그의 신도비가 있는데 1665년 처음 세운 것을 1861년에 다시 새겨 세웠다. 신도비에는 장군께서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이끌고 왜적을 무찌른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5 노강서원

- ◆종목: 경기도기념물 제41호
- ◆소재지: 의정부시 장암동 산 146-1
- ◆노강서원은 조선조 숙종 때의 문신 문열공 박태보를 모신 사당이다. 박



태보는 1654년에 서계 박세당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24세 때에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다. 1680년 홍문관 교리를 거쳐 이조좌랑, 암행어사, 파주목사 등을 지냈다. 1689년 인현왕후 민씨의 폐위를 반대하다가 혹독한 고문을 받고, 전라도 진도로 귀양살이를 가던 도중 노랑진에서 장독(매 맞은 독)으로 죽으니 그때 나이 36세였다. 박태보는 학문과 문장에 능통하고 글씨도 뛰어나게 잘 썼다. 그가 죽은 뒤에 영의정으로 추증되었다. 노강서원은 원래 노랑진에 있었고, 1695년에 건립되었다. 1925년 큰 홍수로 한강물이 넘쳐 흐르는 바람에 노강서원이 물에 떠내려갔다. 1969년에 그의 후손들에 의하여 이곳에 새로 노강서원을 건립하고 1977년에 경기도 지방문화재로 지정받았다.





4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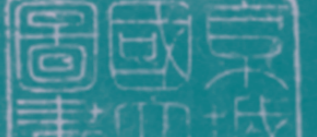


경기도의 평화와 통일 유산

- 13차시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경기도 사람 천연기념물
- 14차시 아름다운 경관을 사랑하는 경기도 사람 경기도의 명승
- 15차시 다시는 되풀이 말아야 할 전쟁의 기억 6·25 전쟁 전적지
- 16차시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북한의 문화유산 개성 역사지구



32967



경기도의 평화와 통일 유산



13차시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경기도 사람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를 소개합니다.

양평군 캐릭터 물사랑이와 행복이.

김포 한강 하류 재두루미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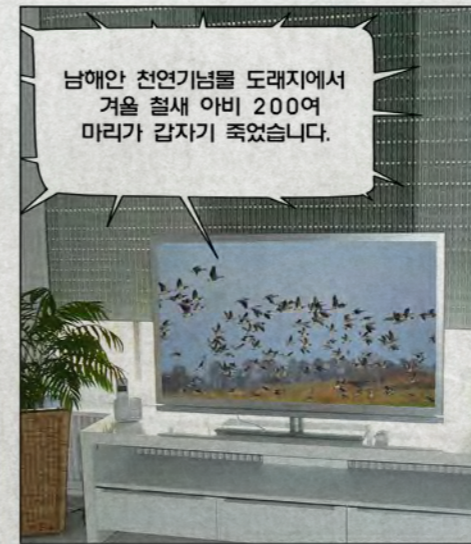


김포시 캐릭터 포미, 포치, 포수.



생각 열기

천연기념물 철새 아비의 죽음



천연기념물, 낯선 말인가요? 천연기념물이란 나라에서 지정하여 보호하고 보존하는 문화재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를 크게 4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입니다. 이 가운데 기념물은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은 동물이나 동물의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식물이나 자생지, 광물, 그리고 동굴 가운데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정한 것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에 있는 천연기념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을까요?

문화유산
속으로
이야기 하나

경기도의 천연기념물

1 철새 등이 다른 곳에서 들어와 머무는 곳.

천연기념물은 동물, 식물,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자연현상 중에서 민족의 역사성을 확인시켜 주는 역사적, 문화적, 과학적 가치가 있거나 경관이 특별히 아름다우면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지정한 것을 말합니다. 천연기념물로 보호하는 동물은 서식지와 번식지, 도래지¹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식물에 대해서는 자생지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천연기념물은 동물, 식물, 지질(천연 동굴 포함), 천연 보호구역 등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은 한번 지정되면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정되었다가 해제되기도 합니다. 천연기념물 지정이 되었다가 해제되는 것은 그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식물의 경우 생명이 다하면 어쩔 수 없이 천연기념물에서 해제된답니다. 지질이나 보호구역의 경우 환경오염과 개발 등으로 인해 훼손되었을 경우에도 해제되기도 합니다.

경기도에는 어떤 천연기념물이 있을까요? 혹시 우리 마을에도 천연기념물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지정 순서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광릉 크낙새 서식지,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 고양 송포 백송, 여주 신접리의 백로·왜가리 번식지, 남양주 양지리의 향나무,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이천 신대리 백송, 양주 황방리 느티나무, 파주 무건리 물푸레나무, 이천 도립리의 반룡송, 연천 은대리의 물거미 서식지, 화성 고정리의 공룡알 화석산지,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 협곡, 여주 효종대왕릉 회양목, 포천 직두리의 부부송, 화성 전곡리의 물푸레나무, 화성 용릉 개비자나무, 포천 한탄강 현무암협곡과 비둘기낭 폭포, 포천 아우라지 베개 용암 등입니다.

이들 천연기념물을 나라에서 지정하여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은 모두들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 소중한 가치와 뜻을 잘 새길 수 있을 겁니다.

경기도는 나라에서 지정한 기념물(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외에도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을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용인에 있는 정몽주 선생 묘소가 경기도 기념물 1호입니다. 2017년 5월 말에 수원 광고산에 있는 창

성사 터가 새롭게 발굴된 후 그 가치가 인정되어 경기도 기념물 제22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천연기념물과 비슷한 경기도 기념물은 수원 노송지대, 안산 팔곡리 향나무, 가평 연하리 향나무, 파주 교하 물푸레나무, 안산 대부광산 퇴적암층 등이 있습니다.



나라와 경기도에서 기념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시·군에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을 따로 향토기념물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군에서도 향토기념물을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군청 홈페이지에 가면 문화재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 나라나 경기도, 시군에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꼭 보존하고 지켜야 할 소중한 기념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꼭 지켜야 할 기념물은 어떤 것이 있나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문화유산
속으로
이야기들

벼슬 있는 나무, 나간² 지키는 나무,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



양평 용문사에 있는 은행나무.

나무가 벼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 봤나요? 아는 친구들은 모두들 속리산에 있는 정이품송을 꼽을 겁니다. 하지만, 경기도 양평 용문사에 있는 은행나무가 벼슬이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 봤을 겁니다. 용문사 은행나무는 벼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과 이야기가 있기에 나라에서 벼슬도 내리고,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지키고 보존하고 있을까요?

용문사 은행나무의 나이는 무려 1,100살이 넘었습니다. 그 키 또한 한때 67미터에 달했으며, 지금은 42미터의 키에 둘레 16미터의 당당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누가, 언제 심었을까요? 워낙 오래전 일이다 보니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전해오는 이야기는 아주 많습니다. 용문사 은행나무의 기원에 대해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 하나 살펴볼까요?

신라의 마지막 임금인 경순왕은 천년의 역사를 가진 신라의 국운이 다했음을 깨닫고 왕건의 고려에 투항하여 신라를 바칩니다. 경순왕의 아들 마의태자는 끝까지 반대하였으나 대세를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신라가 망하는 설움을 어찌 못해 한평생 숨어 살고자 금강산으로 향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용문사에 머물렀을 때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를 땅에 꽂았답니다. 천년 왕조 신라의 아픔을 간직한 이 지팡이가 자라 오늘날 천연기념물 30호이자 우리나라 제일의 나무로 추앙받는 용문사 은행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은행나무가 벼슬을 하게 된 사연을 들어볼까요?

600년 전 조선시대 태종은 용문사에 있던 사천왕문²이 불에 타 없어진 후 은행나무가 사천왕문을 대신한다 하여 '천왕목'이라 불렀고 용문산에 친히 거둥하여 산신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산신제를 지내러 온 태종은 "나는 조선의 왕이지만 이 나무는 하늘 아래 모든 나무 중 왕이다."라고 칭송을 했다고 합니다. 태종은 칭찬만 하고 벼슬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아들인 세종대왕 때 벼슬을 받습니다. 아버지 태종 임금과의 인연을 높이 평가하여 당상직첩(3품 벼슬)을 하사하였습니다.

그때 나이 500살이 넘었으니 이후 사람들은 용문사 은행나무를 나라를 지켜주는 나무(호국목)로 섬깁니다. 마을 사람들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한말 의병 봉기, 8·15해방, 6·25전쟁 등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은행나무가 큰 소리로 울었다고 합니다. 마을 노인들 중 그 울음을 기억하는 이도 있다고 합니다.



1907년 일제의 국권 침탈에 맞서 정미의병이 일어났을 때에는 용문사를 의병의 본거지라 하여 일본군이 불을 질러 모두 태워 버렸습니다. 그러나 은행나무만 불에 타지 않자 나무를 잘라 없애려고 하였습니다. 일본군이 나무에 톱을 대자 갑자기 톱을 댄 자리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면서 맑던 하늘이 어두컴컴해지고 천둥과 번개가 몰아치는 동시에 톱질하던 일본군들이 모두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생긴 상처가 밀동 근처에 커다란 혹으로 남았고 시대의 아픔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지금도 볼 수 있다고들 말합니다.

² 불교에서는 동서남북 4방향을 지키는 수호신을 사천왕이라고 한다. 절을 지키는 의미로 사천왕이 문지기를 하고 있는 문을 세운다. 이 문이 사천왕문이다.

문화유산
속으로
이야기 셋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철새.

여러분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는 어떤 새가 있나요? 까치, 비둘기, 참새 등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늘 볼 수 있는 새를 텃새라고 합니다. 계절에 따라 볼 수 있기도 하고 볼 수 없기도 한 새가 있죠? 이렇게 어떤 계절에만 볼 수 있는 새를 철새라고 합니다. 철새들은 계절의 변화에 맞춰 살기 좋은 곳을 찾아 아주 먼 여행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이기에 예전부터 철새가 많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는 한반도의 젖줄 한강이 굽이쳐 흘러 서해 바다로 빠져나간답니다. 그곳에 넓은 평야가 펼쳐 있고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 갯벌에는 풍부한 먹거리가 있어 철새들이 즐겨 찾는 곳이지요. 천연기념물 제250호인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가 대표적인 곳입니다.

천연기념물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를 찾는 재두루미는 트란스바이칼리아 지방, 중국, 칸카호반, 우수리 지방 등지에서 번식하며, 겨울에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지에서 지냅니다. 갯벌과 농경지에서 지내며, 조개류와 기타 뼈가 없는 동물도 먹지만 옥수수, 밀, 보리와 풀씨, 풀뿌리 등을 더욱 즐겨 먹습니다.



두루미는 몸이 흰색을 띠고 있는데 반해 재두루미는 몸이 회색을 띠고 있어서 재두루미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암수 모두 몸길이는 119센티미터 정도이며, 머리와 목은 흰색, 몸은 회색입니다. 몸의 회색 부분은 목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가늘어져 눈

바로 아래에서는 가는 줄로 되어 있습니다. 눈 앞의 노출되어 있는 피부는 붉은색이며 부리는 황록색입니다. 어린 새의 뒷머리는 붉은색을 띤 갈색입니다. 4월경이면 물가의 작은 섬에 등지를 만들고 2개 정도의 알을 낳으며 논이나 개펄, 늪지 등에서 가족 단위로 생활합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재두루미는 경기도 김포, 파주 지역과 강원도 철원의 비무장지대 등에서 약 300마리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재두루미는 세계적으로 4,500~5,000마리 정도가 남아 있는 멸종 위기의 진귀한 새이기에 천연기념물 203호로 지정·보호하고 있습니다.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는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과 파주시 교하읍 사이의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삼각주 일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도 재두루미가 이곳에서 겨울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한강 상류에 댐을 만들고 농지를 넓히는 계획에 따라 수문 설치와 군대의 석축 공사 등에 의해 물의 높이와 소금의 농도가 변하면서 수송나물, 칠면초, 매자기 등 재두루미의 먹이가 감소되었습니다. 지금은 소금 농도에 강한 갈대와 갯개미취 또는 띠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로 인하여 한강 하구 삼각주에서 겨울을 지내던 재두루미 집단은 점차 일본으로 옮겨가 겨울을 지내고 있으며, 현재 이곳은 또 다른 철새인 천연기념물 제325호 개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찾아오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한강 하류의 재두루미 도래지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 일까요? 김포 야생조류 생태공원 에코센터에 가면 재두루미를 만날 수 있어요. 두루미에게 여행 이야기도 듣고 두루미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더 좋은 생각과 실천 방법을 꼼꼼이 생각해 봅시다.



생각 나누기



1. 용문사 은행나무에 얽힌 이야기를 정리하여 쓰세요

사건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요?
누가 심었을까요?	
어떻게 벼슬을 받았나요?	
왜 일본군은 이 나무를 베지 못했나요?	

2. 글을 읽고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의 재두루미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봅시다.

흑산도 주민들은 철새들과 공존하기 위한 실험을 하고 있다. 조 농사를 짓는 주민들은 가을철 밭의 절반 면적만 수확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어야 한다. 이 무렵 월동지로 날아가기 위해 북쪽에서 내려오는 철새들이 쉬어가며 배를 채울 먹이를 남겨 두는 것이다. 가을에 수확한 조는 보관해 뒀다가 봄철에 방문하는 철새들을 위해 밭에 뿌려 준다. 조밭에 농약 살포는 금지된다. 대신 정부로부터 조농사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난생 처음 동물을 위해 농사를 짓기 시작한 흑산도 주민들은 섬의 또 다른 주인인 철새들과의 공존 실험에 의미를 부여하며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으며 철새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됐기 때문이다.

흑산도 사리 박현용(42) 이장은 “조 농사는 약초 등 다른 작물에 비해 비교적 손이 덜 가는 작물이어서 어르신들이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농사를 짓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굿모닝 내셔널〉 철새 먹이려 농사 짓는 흑산도 농민들, ‘사람과 자연-공존 실험’

⇒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 더하기

1. 앞으로도 용문사 은행나무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용문사 은행나무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여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2. 철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를 옮기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등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개발을 위해 철새들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아래 글을 읽고 철새와 사람이 공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31일 문화재청과 환경운동연합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문화재청은 지난해 6월 22일 사업 시행자인 한국도로 공사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김포-파주 25.36킬로미터) 건설을 위해 낸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부결시켰다. 천연기념물, 명승 등 국가지정문화재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선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는 파주시 교하면과 김포시 하성면 사이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삼각주 일대에 자리하며 천연기념물(250호)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수도권 제2순환로(총 263.4킬로미터)는 화성 봉담~안산~인천~김포~파주~양주~남양주~양평~이천~동탄 연결을 목표로, 다음 달 인천~김포 구간 첫 개통을 앞두고 있다. 한강 통과 방법을 두고 김포·파주시와 일부 주민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나들목 설치가 필요하다.”며 다리 건설을 요구한 반면, 환경부와 환경단체는 “한강 하구에 다리 건설은 더는 안 된다.”고 맞서 시작부터 갈등을 빚어 왔다. 《한겨레》 2016년 6월15일치 12면) 2013년 10월 문화재청의 첫 심의에서도 한강 교량 건설안이 부결됐으나 도로공사가 교량공법 등을 변경해 재신청했다. 환경단체 등은 개발과 보전 사이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설악산과 한강 하구의 개발을 문화재청이 막고 ‘환경지킴이’ 구실을 했다고 평가하며 크게 반기고 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환경부 등이 편법과 억지 논리로 추진되는 각종 개발 행위에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청이 전향적 태도와 강단 있는 결정으로 바로잡아줬다.”고 말했다. (이하 생략) 출처: 《한겨레》 2017.01.31.

⇒ 철새와 우리가 공존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현장 체험 학습

양평군 문화유산 안내도



1 용문사

◆ 지정번호: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 30호), 정지국사탑 및 비(보물 제 531호) 등

◆ 소재지: 양평군 용문면 용문산로 782

◆ 용문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본사인 봉선사의 말사로, 행정 구역으로는 용문면 신점리 625번지에 자리하고 있다. 이런 행정상의 위치보다는 현재 용문산에 있는 사찰 가운데 가장 대표되는 사찰로 널리 알려져 있다. 용문사의 창건에 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전해 오고 있다. 진덕여왕 3년(649)에 원효 대사가 창건하고 진성여왕 6년(892)에 도선 선사가 중창하였다는 설과, 경순왕이 직접 이곳에 와서 창건하였다는 설이다. 그러나 이 창건설들을 뒷받침할 사료나 유물은 없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왕실의 원찰로서 그 사세가 확장된다. 태조 4년(1395)에 조안이 용문사를 중창하였다. 한편 절에서 동쪽으로 약 300미터 떨어진 곳에 정지국사부도가 있고 그곳에서 다시 약 80미터쯤 떨어진 곳에는 정지국사탑비가 서있다. 부도와 탑비는 함께 보물 제531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용문사의 경내에는 오래된 은행나무가 서 있는데 마의태자가 심었다고 전해진다. 은행나무의 수령은 1,100년이 넘는다고 하며, 그 크기를 보면 나무 높이가 60여 미터에 이르고 줄기 또한 가슴높이 둘레가 14미터가 넘는 거목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가장 큰 은행나무로 현재 천연기념물 제30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2 지평리 삼층석탑

◆ 지정번호: 시도유형문화재 제 180호

◆ 소재지: 경기 양평군 지평면 지평의병로 107 (지평리)

◆ 신라말-고려초 현재 이 탑이 있는 곳은 지평면 지평리 지평초등학교 교정이다. 원래는 지평의 야산에 있었던 것을 옮겨 온 것이라 하나 원래의 위치는 알 수가 없다. 석탑의 부재는 대부분 없어지고 현재는 탑



3 한음 이덕형 선생 묘 및 신도비

◆ 종목: 시도기념물 89호

◆ 소재지: 경기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산82번지

◆ 조선 중기의 문신인 한음 이덕형(1561~1613) 선생의 묘 및 신도비이다. 부인 한산 이씨와의 합장묘이며, 화강암 석재를 이용하여 봉분 아래부분에 돌레석을 둘렀다. 묘 앞에는 묘비·상석·향로석이 있고, 묘비를 중심으로 좌우에는 멀리서도 무덤이 있음을 알려주는 망주석이 있다. 그리고 상석을 중심으로 좌우에는 동자상과 문인석이 1쌍씩 있다. 묘역 아래 300미터 지점에 신도비(왕이나 고관 등의 평생 업적을 기리기 위해 무덤 근처 길가에 세우던 비)가 있는데, 효종 4년(1653)에 세운 것으로 비문은 조경이 지은 것이다.



4 이항로 선생 생가

◆ 지정번호: 시도유형문화재 제 105호

◆ 소재지: 경기 양평군 서증면 화서1로 239 (노문리)

◆ 조선 말기 성리학자였던 화서 이항로(1792~1868)의 생가가 있는 벽계마을은 서증면 노문리 535번지에 소재하며 주변에 작은 개울을 끼고 산속으로 들어와 있다. 마을의 명칭이 벽계인 것은 벽진 이씨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마을에는 이항로 생가 외에도 경기도 기념물 제43호인 노산사가 있어 이항로 선생의 높은 학식과 유학을 전승하고 있다.



현장 체험 학습

김포시 문화유산 안내도



1 문수산성

- ◆ 지정번호: 사적 제139호
- ◆ 소재지: 경기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산36-1번지
- ◆ 1694년(숙종 20년)에 축성된 문수산



성은 강화 갑곶진과 더불어 강화해협을 지키는 요새다. 명칭은 신라 해공왕(재위 765~780) 때 산 정상에 창건된 문수사라는 절에서 유래했으며 1964년 사적 제139호로 지정되었다. 고종 3년(1866) 병인양요 때는 프랑스군과 일대 격전을 벌이면서 해안 쪽 성벽과 문루가 파괴되고, 성내가 크게 유린되었다. 해안 쪽 성벽은 없어지고 마을이 들어섰으며, 문수산 등성을 연결한 성곽만 남았으나 서문과 북문이 복원되었고, 총 6킬로미터에 이르는 산성 중 4킬로미터가 남아 있다.

2 통진향교

- ◆ 지정번호: 문화재자료 제 30호
- ◆ 소재지: 경기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220번지
- ◆ 향교는 공자와 여러 성현께 제사를 지내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 나라에서 세운 교육기관이다. 통



진향교는 고려 인종 5년(1127)에 처음 지었다고 전하나 확실하지 않다. 일제강점기 때 폐쇄되었다가 광복 후 그 기능을 되찾았다. 건물 배치는 풍화루의 누하진입을 통해 앞쪽에 교육 공간인 명륜당과 기숙사인 동재가 있으며 뒤쪽에 제사 공간인 대성전을 둔 일반적인 전학후묘의 형식을 하고 있다.

3 김포 덕포진

- ◆ 지정번호: 사적 제292호
- ◆ 소재지: 경기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 산103-1번지
- ◆ 조선시대 진영으로, 이곳은 서울로 통하는 바닷길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대였던 곳이다. 처음 세운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조선 현종 7년(1666)에 강화에 포함되었다. 높직한 평지에 세운 포대인 돈대와 대포를 쏘는 포대, 그리고 포를 쏠 때 필요한 불씨를 보관하고 포병을 지휘하는 파수청이 있다. 돈대는 중요한 전략지에 있어 병인양요 때는 프랑스 함대와, 신미양요 때는 미국 함대와 싸웠다. 1980년에 행한 발굴 조사 결과 7개의 포탄과 2개의 상평통보 등이 출토되었고 주춧돌과 화덕 자리를 발견하였다.



4 한재당

- ◆ 지정번호: 지방기념물 제47호
- ◆ 소재지: 경기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산76-1번지
- ◆ 조선 전기 문신인 한재 이목(1471~1498) 선생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이목은 김종직의 문인으로 19세(연산군1년, 1495)에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영안도평사 등을 지냈으나 연산군 4년(1498) 무오사화에 연루되어 28세의 젊은 나이에 사형에 처해졌다. 한재당은 현종 14년(1848)에 처음 지어진 뒤 1974년에 고쳐 지었으며 1995년에 정자를 세웠다. 1848년에 건립된 사당은 맞배지붕 목조와가로 정면 3칸, 측면 2칸이며 일주문과 담장이 둘러 있었으나 신사당 건립으로 인해 구사당과 일주문은 없어지고 현재는 담장과 터만 남아 있다. 1974년에 자리를 옮겨 건립한 신사당은 콘크리트로 신축한 건평 12평의 건물로 위패를 봉안하고 숙종 43년(1717)과 경종 2년(1722)에 추증한 교지가 함께 보관되어 있다.

5 우저서원

- ◆ 지정번호: 지방유형문화재 제10호
- ◆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중봉로25번길 90
- ◆ 조현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고 지방의 유학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지은 교육기관이다. 조현(1544~1592)은 조선 선조(재위 1567~1608) 때의 학자이며, 임진왜란(1592) 때의 의병장으로 금산전투에서 일본군과 싸우다가 700명의 의병들과 함께 전사하였다. 인조 26년(1648) 선생이 태어난 집터에 서원이 건립되었고, 숙종 1년(1675) '우저(牛渚)'라는 사액을 받았다. 서원의 배치는 전형적인 전학후묘의 구조로, 본당과 사당, 강당인 여택

당, 재사인 서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 때 훼손되지 않은 47개 서원 가운데 하나로, 해마다 봄 2월 중 정일과 조현의 기일인 음력 8월 18일에 향사를 지낸다.

6 김포성당

- ◆ 지정번호: 등록문화재 제542호
- ◆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북변로 29-12
- ◆ 김포성당은 6·25전쟁 직후에 건축된 석조 성당의 전형적인 의장적 특징(중탑과 뾰족한 아치 창호)과 공간적 특징(단일 홀로 구성된 강당형 평면), 화강석 조각 구법의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는 1950년대 건물로 건축적 가치가 크다.



7 김포향교

- ◆ 지정번호: 문화재자료 제29호
- ◆ 소재지: 경기 김포시 북변중로25번길 38
- ◆ 향교는 공자와 여러 성현께 제사를 지



내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 나라에서 세운 교육기관이다. 김포향교는 고려 인종 5년(1127)에 처음 지었다고 전하나 확실하지 않다. 1960년대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보수하였다. 건물 배치는 전학후묘의 형태로 앞쪽에 교육 공간인 명륜당이, 뒤쪽에 제사 공간인 대성전을 배치하였다. 그 외에 재실과 출입구 구실을 하는 외삼문과 내삼문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나라에서 토지와 노비·책 등을 지원받아 학생을 가르쳤으나, 지금은 교육 기능은 없어지고 제사 기능만 남아 있다. 대성전과 명륜당만 갖춘 조선 후기 작은 규모의 향교 형식을 잘 보여 주고 있다.

8 장릉

- ◆ 지정번호: 사적 제202호
- ◆ 소재지: 경기 파주시
- ◆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



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인조반정(1623)으로 아들 능양군인 인조가 왕위에 오르자 대원군에 봉해졌고, 인조 10년(1633) 원종의 칭호와 함께 그의 무덤을 장릉으로 불렀다. 왕릉과 왕비릉이 나란히 있는 쌍릉으로, 병풍석이나 난간석은 설치하지 않고 보호석만 둘렀다. 무덤 아래에는 영조 29년(1753)에 세운 '조선국원종대왕장릉 인헌왕후부좌'라고 새긴 비각이 있다.

경기도의 평화와 통일 유산



14차시

아름다운 경관을 사랑하는 경기도 사람



포천의 명승
화적연을 소개합니다.

포천시 캐릭터 오성과 한음.

태고적 신비를 품은
안산의 대부광산 퇴적암층
한번 보실래요?



안산시 캐릭터 테크미.



생각 열기

경기 팔경과 구곡을 관람하는 학생들



야! 경기도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그린 그림을 전시한대.

우리 같이 가보자.

그래, 그래.



이 그림은 개성의 박연폭포야.
정말 웅장하다.



이 그림은 눈내린 용주사의
풍경을 그린 거야.
올 겨울에 꼭 가봐야지.

어! 여긴 우리 동네잖아!
으쓱!

이 포스터는 2015년 가을에 경기도미술관에서 전시했던 '경기 팔경과 구곡'이라는 전시회 포스터입니다. 이 전시에서는 경기도의 이름난 명승과 경치를 그린 조선시대 그림에서부터 근·현대의 풍경화까지 모아서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이야기를 지닌 풍경화를 중점적으로 보여 주었지요. 더 나아가 사람과 마을, 도시의 이야기를 함께 풀어 내어 전시했답니다. 민족의 아픔인 분단을 그린 풍경화도 많이 전시되었답니다. 혹시 이 전시를 보고 싶다면 인터넷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의 아름다운 명승에 대해 한번 알아보까요?

문화유산
속으로
이야기 하나

경기도의 명승



명승 제 10호 삼각산(고양시)



제 93호 포천 화적연(포천시)



제 94호 포천 한탄강 명우리 협곡(포천시)



제 109호 남양 운길산 수증사 일원(남양주시)

지난 시간에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를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보호한다고 했는데 그 4가지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있나요? 아, 역시 우리 친구들은 잘 기억하고 있네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구분했지요.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울 명승은 문화재 유형 가운데 어디에 속할까요? 예. 바로 기념물입니다.

기념물은 사적, 천연기념물, 명승으로 좀 더 자세하게 나누고 있었죠? 유적·제사·신앙·정치·국방·산업·교통·토목·교육·사회사업·분묘·비 등은 '사적'입니다.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지질·광물로서 중요한 것은 '천연기념물'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치가 뛰어난 곳으로 중요한 지역인 경승지를 '명승'으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연적 경승지에 사적이 함께 한 것이면 '사적 및 명승'이라고도 합니다.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경치가 빼어난 경승지를 무척 좋아하였습니다. 1,500여 년 전 신라의 화랑들이 이름난 산과 계곡 강을 찾아다니면서 몸과 마음을 수련하였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체험학습을 다니는 것도 어쩌면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경승지를 찾아가 즐길 수는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었을까요? 유명한 시인들이 경승지를 찾아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를 짓고, 화가들은 아름다운 경치를 그림으로 그려 사람들에게 알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난 경승지에 가 보지 못한 사람들도 시와 그림 등을 통해 간접 체험을 하고 무한한 상상을 하기도 하였답니다. 여러분이 SNS의 사진과 글을 통해 전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남긴 아름다운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셈이죠.

우리 조상들은 아름다운 경치 8개를 하나로 묶어 '8경(팔경)'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관동팔경, 단양팔경 등이 유명합니다. 경기도의 31개 시·군들도 자기 지역의 아름다운 경치를 '팔경'으로 묶어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군에는 어떤 팔경이

있는지 조사해보세요. 아름다운 경치를 묶어 '팔경'으로 소개하는 문화는 한국, 중국, 일본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팔경 문화는 중국 동정호의 젓줄인 소강과 상강 주변의 빼어난 경치를 노래한 '소상팔경'에서 유래되어, 동아시아 3국에 퍼져 나갔답니다. 팔경 문화로 인해 커다란 호수나 바다, 또는 강가에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는 정자를 세우고 그림을 그리고 시로 읊었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뛰어난 자연 경관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는 경기도의 명승으로는 제10호 삼각산(고양시), 제93호 포천 화적연(포천시), 제94호 포천 한탄강 명우리 협곡(포천시), 제109호 남양주 운길산 수증사 일원(남양주시) 등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우리들만의 명승이 있을 거예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미래의 명승도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내일의 명승은 바로 DMZ(비무장지대)입니다. 6·25전쟁이 끝난 후 65년 넘게 사람들이 쉽게 들어갈 수 없었던, 현대사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우리 경기도의 DMZ(비무장지대)가 통일이 되는 그날 경기도의 새로운 명승으로 태어날 겁니다.



문화유산
속으로
이야기 들

포천 화적연과 한탄강 경관

화적연은 한탄강에 있는 큰 바위와 깊은 연못으로 이루어진 경기도의 대표적인 명승입니다. 한탄강의 강물이 휘도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물과 주변 바위 절벽 및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신비로운 경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천이 휘돌아가며 형성된 깊은 연못과 그 수면 위로 거대한 화강암 바위가 13미터나 솟아오르면서 절경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짙은 색의 현무암 절벽과 밝은 색의 암주, 질푸른 빛의 물이 서로 어우러져 이곳을 찾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화적연 일대는 지질학적인 가치도 아주 높습니다. 대보화강암을 뒤덮은 현무암층, 현무암 주상절리, 화강암 암반, 상류에서 공급된 풍부한 모래와 자갈 등 다양한 지형 요소들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형이 서로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화적연은 마치 벗 짚단을 쌓아 올린 것 같은 형상이어서 우리말로 ‘벗가리소’, 한자로는 ‘벼 화초, 쌓을 적(積)을 써서 ‘화적’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름 때 문일까요? 화적연에는 농사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해엔가 이 지역에 3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독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화적연의 물은 마르지 않았지만 깊은 계곡에 있어 농사에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늙은 농부가 하늘을 원망하면서 이 연못가에 앉아 “이 많은 물을 두고서 곡식을 말려 죽여야 한다는 말이냐? 하늘도 무심하거니와 용이 어찌 3년 동안 낮잠만 자는가!”라고 한숨을 쉬며 탄식을 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물이 왈칵 뒤집히며 용이 나타나 꼬리를 치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부터 비가 내려 가뭄이 해결되고 이 마을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가뭄이 들면 화적연에서 기우제를 지내는 풍습이 생겼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나라에 가뭄이 들면 전국 유명한 명승지에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이곳 화적연에서도 기우제를 자주 지냈습니다. 조선시대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던 농업에 있어 가뭄은 최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가뭄이 들면 임금님이 직접 나서서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한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화적연은 나라에서

직접 관리하고 제사 지내던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예부터 화적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글과 그림이 많이 전해져 옵니다. 그중에서 두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성호 이익의 시와 진경산수화의 대가 겸재 정선의 그림 ‘화적연’입니다. 가만히 시를 읊조리며 그림을 감상해 보세요. 그리고 귀 기울여 보세요. 화적연에서 들려오는 물소리, 새소리, 바람 소리, 바위가 전하는 이야기가 들려올지도 몰라요.

화적연 禾積淵

마음 내키는 대로 유독 그윽한 곳을 찾아드니 / 率意行尋特地幽
지팡이 하나 짚고 홀로 가는 것도 풍류로다 / 孤筇無伴亦風流
여러 봉우리 둘러쳐서 청정 세계를 옹위하고 / 諸峯簇擁供清界
뭇 물길 다투고 소리치며 깊은 소로 흘러들리라. / 衆水爭喧入積淵
습성이 만물의 조화를 따르니 무에 어떠랴. / 性習何妨隨物化
몸 가벼워 벼들에 복이 움직이는 듯하야라. / 身輕還覺若梭投
구름 그림자와 하늘빛의 흥취를 누가 알리오. / 孰知雲影天光興
이 유람을 위해 아껴 두었던 신께 감사하리로다. / 多謝神悭待此遊
_성호 이익 『성호전집 제5권』

이들 외에도 수많은 학자들과 예술가들이 화적연을 찾아 그 아름다움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도 이곳에서 노래 1곡 불러 보는 것은 어때요?



겸재 정선 ‘화적연’.

문화유산
속으로
이야기 셋

안산 대부광산 퇴적암층

시흥시 시화공단에서 시화방조제를 따라 가면 우리나라 최대의 조력발전소가 나옵니다. 그곳을 지나면 안산시 대부도입니다. 대부도는 경기도의 가장 큰 섬으로 원래 대부도, 선감도, 불도, 탄도의 4개 섬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이곳에는 경기도에서 조성한 바다향기 수목원이 있습니다.

가까이에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중생대 지질층과 화산암체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대부광산 퇴적암층이 있습니다. 이곳은 화성 고정리 공룡알화석지(천연기념물 제414호)와 함께 여러분의 동생이 좋아하는 중생대 공룡이 살았던 당시의 여러 가지 식생 및 환경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지질층입니다.

원래 이곳은 대부도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조그만 산이었습니다. 1990년대 이곳에서 건설 공사에 사용할 골재를 채취하는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7년 공사 현장에서 약 7000만 년 전 중생대 초식 공룡 케리니키리움 발자국 1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총 23개의 공룡 발자국 및 식물화석 클라도플레비스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중 보존 상태가 양호한 9개의 공룡 발자국은 안산시 탄도어촌민속 박물관에 옮겨져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산 속 숨겨진 역사 이야기
"안산 대부광산 퇴적암층"
1997년 안산 대부동 탄도 대부광산



1억 5천만년 전, 깊은 호수였던
안산 대부광산 퇴적암층



중생대 후기 백악기,
안산에는 많은 초식 공룡이
살고 있었다.



화석으로 본 1억 5천만년전의 안산,
병풍처럼 펼쳐진 암벽, 그리고
깊은 호수는 거대한 자연의 신비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



대부광산 자연음악당 조성 조감도.

대부광산 퇴적층의 암석에 대한 칼륨-아르곤(K-Ar) 연대 측정을 실시한 결과 공룡이 번성했던 중생대 후기인 7000만 년 전후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당시 호수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안산 대부광산 퇴적암층은 경기도 공룡시대를 여는 비밀의 열쇠인 셈입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인간은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던 7000만 년 전의 어느 날, 한가롭게 풀을 뜯어 먹으며 놀고 있는 수많은 초식 공룡들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호수의 모습을 말이에요.

안산 대부광산 퇴적암층을 보존하고 알리기 위한 노력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2017 환경음악회 '황금섬 대부도의 향연'이 안산 대부광산 퇴적암층에서 열렸습니다. 안산시는 오는 2020년까지 작은 호수를 품게 된 대부광산에 '자연음악당'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시는 대부광산을 정비해 문화와 자연 유산을 영구 보존하고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유적을 활용한 역사 교육장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퇴적암층에 탐방로, 관람로, 전망데크 설치와 진입로, 주차장, 자연음악당, 분수 등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외래수종을 제거하는 숲 복원도 진행됩니다.

생각 나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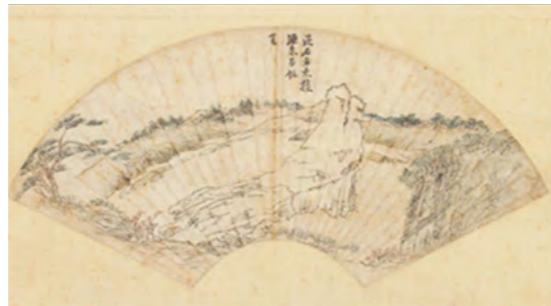
1. 다음은 화적연을 보고 그린 다양한 작품입니다. 그림을 보고 서로 다른 점을 찾아보면서 얘기를 나누어 봅시다.



정선(조선 후기)



이윤영(조선 후기)



1-1. 세 화가가 그린 화적연의 다른 부분을 찾아 보세요.

1-2. 같은 풍경을 본 세 화가의 그림이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각 더하기

우리 학교의 경치나 생활 모습에서 팔경을 정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내가 생각하는 우리 학교 경치 혹은 생활 모습 중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을 써 봅시다.

내가 생각하는 우리 학교 최고 경치	
내용	
까닭	

2. 친구들의 발표를 듣고 정리하여 우리반 친구들이 정한 우리 학교 팔경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 반 친구들이 정한 우리 학교 팔경				
팔경	제1경	제2경	제3경	제4경
내용				
까닭				
팔경	제5경	제6경	제7경	제8경
내용				
까닭				



1 포천 반월성

◆지정번호: 사적 제 403호
 ◆소재지: 경기 포천시 군내면 청군로 3290번길 19, 외 (구읍리)
 ◆포천시 군내면에 있는 산성이 있는 자리로 길이는 1,080미터이다. 산성은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가 쌓았다고 전해지나, 조사 결과 고구려 때 쌓은 성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여러 책에 고성, 산성, 반월산성 등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대동지지』를 통하여 광해군 10년(1618)에 고쳐 쌓고, 인조 1년(1623)부터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성의 옛 자취를 엿볼 수 있는 시설물로는 남쪽과 북쪽의 문터, 성벽 비탈쪽에 사각형 모양으로 덧붙여 만든 치성 4개소, 건물터 6곳, 배수 시설이었던 수구터, 장수의 지휘대였던 장대터, 적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 세웠던 망대터 등이 있다.



해 비둘기낭이라 부르게 되었다.

4 구라이골

◆구라이 지역은 바위굴이 있는 위쪽에 있다고 하여 굴과 바위가 합쳐져 굴아위라 하는데, 이의 변음으로 구라이가 되었다. 현무암 침식지역으로 약 40미터 길이의 주상절리 협곡이 잘 발달되어 있다.



5 아우라지 배개용암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 542호
 ◆소재지: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산 209-1 등 12필지
 ◆아우라지 배개용암이 위치한 곳은 영평천과 한탄강이 만나는 지점이다. 아우라지는 두 강물이 만나서 어우러지는 곳이라는 뜻으로 우리나라에도 여러 지역에 아우라지라는 지명이 있다. 배개용암은 현무암이 물과 만나 급랭하는 곳에서 배개 모양으로 둥글게 만들어진 것이다. 배개용암은 흔히 볼 수 없는 구조인데, 이곳에서는 여러 개의 배개를 쌓아놓은 듯한 배개용암을 볼 수 있다.



2 명우리 협곡

◆지정번호: 명승 제 94호
 ◆소재지: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574-1번지 일원
 ◆명우리 지역은 한탄강변 절벽을 끼고 입구가 나있어 예부터 “술 먹고 가지 말아라.”할 정도로 낭떠러지로 된 협로이다. 조심하지 않고 넘어지면 몸에 명우리가 생긴다는 뜻에서 명우리라는 지명이 붙었으며, 한탄강변을 따라 주상절리가 잘 발달되어 경관이 수려하며, 협곡의 길이는 약 4킬로미터에 이른다.



3 비둘기낭 폭포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 537호
 ◆소재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대화산리 산 42-1
 ◆불무산에서 발원한 대화산천의 말단부에 현무암 침식으로 형성된 협곡으로 대화산리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이곳에서 폭포수를 이루며 지나가 한탄강과 합류한다. 이곳에는 예로부터 겨울이면 수백 마리의 산비둘기가 서식





1 안산청문당

- ◆지정번호: 문화재자료 제 94호
- ◆소재지: 경기 안산시 상록구 청곡길 77 (부곡동)
- ◆진주 유씨 16세손 유시회(1562~1635)가 지었다고 전하는 가옥이다. 원래는 충북 괴산에 살았는데 유시회의 조카 적이 선조의 사위로 정해진 후 아버지가 세상을 뜨자 선조의 명으로 이곳 안산에 묘자리를 정하고 정착하여 살기 시작하였다. 이후 나라에서 넓은 땅과 안산 바닷가의 어염권을 받아 대대로 살아오면서 많은 인물들을 배출하였다. 청문당은 조선 후기에 와서 정치권력에서 소외된 문인들의 교류장으로 쓰였으며, 특히 조선시대 4대 서고의 하나인 청문당의 만권루는 이들의 학문적인 기반이 되었다고 한다.



린 눈물에 소나무가 말라 죽었다는 고송정(枯松亭)이 있던 자리이다.

4 별망성지

- ◆지정번호: 시도기념물 제 73호
- ◆소재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56번지 (공원)
- ◆조선 초기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별망성은 해안으로 침입하는 외적을 막기 위해 해안선을 따라 양쪽 끝까지 사이를 돌로 쌓아 만든 해안산성이다. 6·25전쟁 당시 성벽 대부분이 파괴되어 그 일부만 남았는데, 안산시에서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하였다.



2 안산읍성 및 관아지

- ◆지정번호: 시도기념물 제 127호
- ◆소재지: 경기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수암동
- ◆성이란 군이나 현의 주민을 보호하고, 군사적·행정적인 기능을 함께하는 성을 일컫는다. 경기도 안산시 수암동에 있는 안산읍성과 관아지는 수암봉에서 서쪽으로 길게 뻗은 능선을 이용하여 평지를 감싸도록 쌓았다. 전형적인 평지산성으로, 고려시대 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관아터는 조선 현종 10년(1669)에 이곳으로 옮긴 것으로, 관아의 시설들은 모두 파괴되었고 곳곳에 흩어진 주춧돌과 기와조각들이 발견되었다.



5 성호 이익 선생 묘소

- ◆지정번호: 시도기념물 제 40호
- ◆소재지: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일동 555번지
- ◆실학의 대가 성호(星湖) 이익(李翼) 선생이 평생을 거주하며 학문의 커다란 업적을 남긴 침성총(지금의 일동)에 위치해 있다. 묘소의 석물로는 묘비와 상석, 향로석, 망주석이 있습니다. 묘비는 선생이 돌아가신 후 204년이 되는 1967년에 건립되었다. 묘소로 오르는 길은 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무덤 앞에 안내판이 있습니다. 묘소 우측에는 사당이 있다.



3 고송정지

- ◆지정번호: 시도기념물 제 101호
- ◆소재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 산58번지
- ◆조선 세조 2년(1456) 단종복위의 모의에 가담했다가 참화를 당한 김현석의 아들 김충주가 탈출하여, 매일 마하산에 올라 단종(端宗)이 있는 영월을 바라보며 흘



경기도의 평화와 통일 유산



15차시

다시는 되풀이 말아야 할 전쟁의 기억



가평지구전투와
전적비를 소개합니다.

가평군 캐릭터 잿돌이.

동두천 자유수호박물관에서
분단을 넘어 통일로 함께 가요!



동두천시 캐릭터 소람이와 요람이.



생각 열기

4.27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



2018년 4월 27일 남북한의 두 정상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학교에서도 TV로 역사적 순간을 함께 지켜보았던 것 기억나죠? 국민 모두가 그 방송에 눈과 귀를 모으고, 가슴 설레며 바라보았던 그날 우리에게 평화와 통일이 성큼 다가섰지요. 전 국민이 환호하고 열광했던 까닭은 이 땅의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기 때문이었지요. 남과 북 두 정상이 만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함으로써 이 땅에 평화와 통일의 기운이 감돌았지요. 우리는 평화와 통일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6·25전쟁과 유엔의 참전, 그리고 격전지였던 경기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며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문화유산
속으로
이야기 하나

6·25전쟁과 유엔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국가 간 평화와 안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는 바로 이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6월 25일 북한의 침략이 확인되자마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뉴욕 시간 당일 즉각 소집되었고 결의문 제 82호를 채택하였습니다. 결의문에서 “북한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러한 행동이 평화의 파기임을 결정하였다.” 또한 안보리 결의문은 “적대행위의 즉각적인 중지를 촉구하고... 북한 당국이 그 군대를 38선 이북으로 철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북한의 반응이 없자 6월 27일 다시 안보리는 결의문 제83호를 채택하고, “무력 공격의 격퇴와 그 지역에서의 국제평화 및 안전의 회복을 위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원조를 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하였습니다. 이 결의문들은 유엔 헌장에 따른 집단 안보를 발동한 것으로 유엔의 6·25전쟁 개입은 이러한 집단안보제도가 본격적으로 그리고 전형적으로 적용된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유엔 결의안에 따라 유엔 회원국의 군사적 참여가 전쟁 발발 즉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6월 27일 미군을 시작으로 연합군의 참전이 시작되었습니다. 6·25전쟁 당시 참전국은 1951년 초까지 총 16개국이었습니다. 전쟁 초기 유엔 결의로 군대 파견을 신청한 나라 21개국 중 실제로 파병을 한 나라는 16개 나라였습니다.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영국,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룩셈베르그, 네덜란드, 터키입니다.

이들 참전국들은 유엔이 요구하는 최소 규모인 1개 대대 병력(약 1,200명) 이상을 파견하였습니다. 주요 참전 병력은 1953년을 기준으로 영국 약 1만 4,200명, 캐나다 약 6,100여 명, 터키 약 5,500여 명, 호주 2,200여 명 등입니다. 1953년까지 한국전에 참여한 연합군은 미국을 제외하고 총 3만 9,000여 명에 이르며, 미국을 포함할 경우 총 34만 1,000여 명에 이릅니다.

또한 유엔 결의문에 따라 회원국 및 국제기구들이 각종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5개국)는 병원 혹은 병원선 등 의료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0개 회원국과 1개 비회원국(이탈리아)과 9개 유엔 전문기구가 식량 제공 및 민간 구호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개전 초기 미군을 중심으로 각국 참전 병력은 한국군과 함께 전투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전선은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발판으로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의 총반격 작전과 인천상륙작전으로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고 10월 1일에는 38선을 돌파하여 이후 압록강까지 진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전면적 개입으로 1951년 1월 연합군은 다시 남쪽으로 후퇴하였고 서울이 다시 북한군의 수중으로 들어가지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3월 15일 다시 서울을 되찾고 이후 전쟁은 점차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서부 전선에 해당하는 경기도는 치열한 공방전의 현장이었으며 많은 군사들의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6·25전쟁의 상처와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참전 용사들은 그곳에 후세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추모비와 기념비를 건립하기도 하였습니다.



유엔 참전국.



가평지구전투와 영연방 유엔군

6·25전쟁 당시 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4개국 장병들이 유엔군의 일원으로 우리나라에 파병되어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싸웠습니다. 이들을 영연방 유엔군이라고 합니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한 후, 중국의 참전으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당시 가평은 중국군과 영연방 유엔군 제27여단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진 격전지였습니다.

특히 1951년 4월 23일부터 25일 사흘 동안 영연방 유엔군과 중국군 간 벌어졌던 대치전은 아주 유명합니다. 중국군이 총 공세를 펼치자 국군 제6사단은 후방으로 철수를 결정하였고, 영연방 군은 철수하는 국군을 돕기 위해 가평 일대로 진출했습니다. 영연방 제27여단은 국군이 무사히 이동할 수 있도록 가평천 일대에 방어선을 형성하고 영연방 군보다 무려 5배나 많은 중국군을 필사적으로 막아 냈습니다.

중국군 제118사단이 4월 23일 야간 공격을 시작하였습니다. 중국군은 호주 대대의 배치 상황을 모르고 신속히 가평을 점령할 목적으로 중대 대형을 유지한 채 도로와 계곡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호주대대는 대대의 화력은 물론 지원된 전차 및 포병화력을 기습적으로 집중하여 적을 격퇴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군은 4월 24일 오전 1시경 전방에 배치되었던 전차 소대가 재보급을 위해 철수하자 즉시 2개 대대로 포위 공격을 기도하였습니다. 반면 호주 대대는 통신이 두절되어 전방 중대와 연락은 물론 포병의 화력 지원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방의 대대 지휘소와 박격포 진지마저 피탈되어 최악의 상황에서 근접 전투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대대는 포위된 상황에서도 일부 진지가 피탈되면 즉시 역습으로 회복하면서 새벽까지 504고지의 방어 진지를 고수하였습니다.

중국군은 23일과 24일 양일 동안 비교적 기동이 용이한 가평천 골짜기를 따라 진출하여 서울~춘천도로의 차단을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단의 강력한 저지작전과 포병의 화력 지원에 많은 인명 피해를 입게 되자 25일 새벽 공격을 포기하고 철수하였습니다.

서울과 춘천 도로의 차단을 기도했던 중국군은 영연방 유엔군의 거센 저항에 가로막혀 추가 공격을 포기하고 철수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연방 유엔군의 활약은 중국군의 북한강 도하를 저지하고 국군과 유엔군이 후방에 새로운 방어진지를 구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했습니다.



- 1_가평지구전투전적비.
- 2_영연방참전기념비.
- 3_캐나다전투기념비.
- 4_호주전투기념비.
- 5_뉴질랜드전투기념비.
- 6_용문산전투전적비.

6·25전쟁이 끝나고 당시 치열했던 전투 상황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하여 많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가평지구전투전적비, 영연방참전기념비, 캐나다전투기념비, 호주전투기념비, 뉴질랜드전투기념비, 미군참전기념비, 용문산전투전적비 등이 있습니다.

6·25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한 영연방(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참전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국가보훈처는 2010년 6·25전쟁 60주년 사업을 계기로 유엔 참전 용사 재방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가평지구전투가 끝난 4월 25일은 안작데이(ANZAC DAY)입니다. 이날은 호주와 뉴질랜드의 공휴일로, 1915년 4월 25일 호주와 뉴질랜드 연합군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것을 기리는 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충일과 같은 날입니다. 현재는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 6·25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을 기리는 날로 확대되었습니다.

문화유산
속으로
이야기 셋

평화를 위하여 동두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동두천은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을 이어주는 중요한 길에 놓여 있는 도시입니다. 6·25전쟁이 발발했을 때 북한군이 남침할 때 제일 먼저 거쳐간 도시이고, 남한군이 북진할 때도 반드시 거쳐가는 도시입니다. 6·25전쟁 때 동두천에서는 항상 격전이 벌어진 까닭이기도 하였답니다.

6·25전쟁 당시의 상황은 동두천 소요산 입구에 있는 '자유수호평화박물관'에 가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잊혀져 가는 6·25전쟁에 대한 이해와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의 뜻을 기리고 유엔 참전국과의 우호 증진을 위해 건립된 박물관입니다. 6·25전쟁 관련 유물 및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다시는 6·25전쟁과 같은 전쟁이 발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평화 통일을 위하여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

또한 6·25전쟁 당시의 상황을 전해주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먼저 벨기에-룩셈부르크참전비가 있습니다. 이 탑은 6·25전쟁 때 유엔군으로 참전한 벨기에와 룩셈부르크군의 전공을 기념하기 위하여 1975년 9월 26일 국방부에서 제작 건립하였습니다. 벨기에군(지상군 1개 대대)과 룩셈부르크군(지상군 1개 소대)은 1951년 1월 31일 정의를 십자군으로 파한되어 용전분투하다가 1956년 6월 15일 본국으로 개선한 군대입니다. 유엔군 방어작전 지구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답니다.

두번째로는 노르웨이 참전비가 있습니다. 이 비는 6·25전쟁 당시 야전병원에 근무했던 직원 70명이 1972년 3월 30일 노르웨이 정부의 지대한 공헌에 보답하고자 각자 정성을 모아 건립하였습니다.

이 비는 노르웨이 정부가 1951~1954년까지 6·25전쟁 당시 수많은 부상 장병과 민간 전쟁고아를 의료 사업으로 봉사하여 양국간의 우의를 증진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웠습니다. 2000년 12월 동두천시 하봉암동 298번지에서 소요산에 위치한 자유수호평화박물관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벨기에-룩셈부르크참전비.



노르웨이참전비.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 통일을 위한 노력은 분단 이후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의 노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98년 국민의 정부 성립 이후 정주영의 소 떼 방북, 금강산 관광 개시 등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신뢰가 형성되어 갔습니다. 2000년 6월 13일, 김대중 대통령의 역사적인 평양 방문과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산 가족 상봉, 남북 철도 연결, 식량·비료 지원, 개성 공단 가동, 북한 응원단이 함께한 남한 체육 행사, 올림픽 공동 입장 등이 이어졌습니다. 2007년 10월 4일 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등 관계 진전이 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제2차 북핵 문제가 불거지고, 북·미 대립이 북한의 핵 실험으로 이어지면서 남북 관계 개선은 아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지나는 동안 남북 관계는 대화가 단절되고 긴장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촛불혁명으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대화와 협력으로 평화와 상생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은 우리의 행복과 미래를 보장하는 길입니다.



생각 나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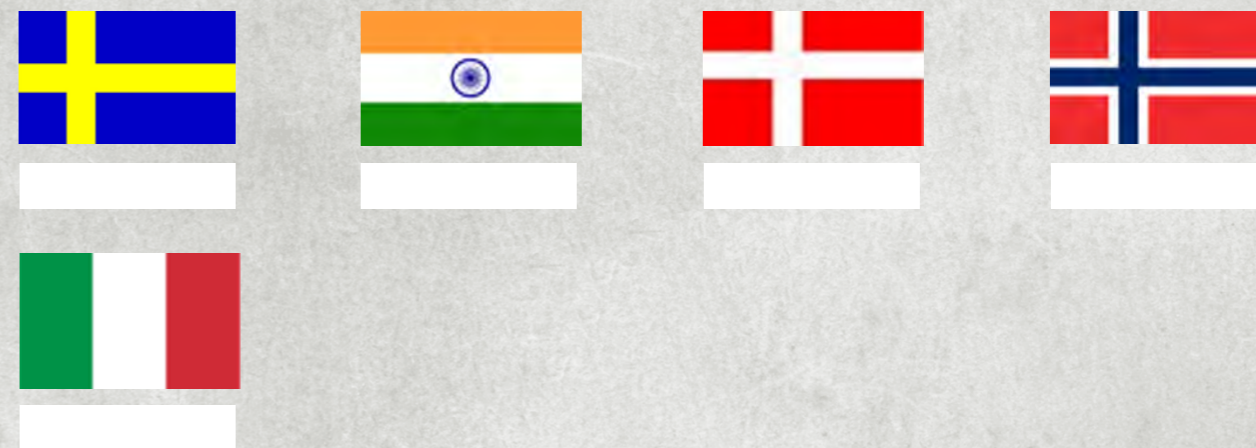
1. 다음은 6·25전쟁 때 우리나라에 전투 병력을 파견했던 유엔 참전국가 16개국의 국기입니다. 나라의 이름을 찾아 써 보세요.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프랑스, 터키, 필리핀, 태국,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2. 다음은 6·25전쟁 때 우리나라에 의료 지원을 했던 나라 5개국의 국기입니다. 나라의 이름을 찾아 써 보세요.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생각
더하기



1. 우리는 어떤 일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거나 잊지 않기 위해 슬픈 마음을 달래며 추모비를 세우기도 합니다. 또한 간절한 바람을 이루기 위한 염원을 모아 상징물을 건립하기도 합니다. 작은 부분에도 상징성과 의미가 담겨 있지요.

다음은 세월호 추모의 숲에 건립된 추모 시설 '기억의 벽'에 관한 기사(2016. 04. 15)입니다. 잘 읽어 보세요.

전남 진도군 팽목항 인근에 조성된 '세월호 추모의 숲' 준공식이 4월 9일 열린 가운데, 양수인 건축가가 이 숲에 추모 시설인 '세월호 기억의 벽'을 제작했다.

양 건축가의 재능 기부로 설계된 '기억의 벽' 길이는 세월호 참사 발생일인 4월 16일을 뜻하는 416센티미터이다. 벽의 세 꼭짓점 높이는 476센티미터, 325센티미터, 151센티미터로 각각 세월호 총 탑승객 수, 단원고 학생 및 일반인 탑승객 수를 상징한다. 추모비 벽면에는 희생자와 실종자 304명의 이름을 비롯해 희생자 가족과 생존자들이 작성한 메시지, 추모의 글과 숲의 조성 배경 등을 새겼다.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공개된 '세월호 기억의 숲'은, 할리우드 배우 오드리 헵번의 큰 아들 손 헵번이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를 기억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자는 제안에 뒤이어 조성됐다.



CNB저널=안창현 기자. 출처: http://weekly.cnbnews.com/m/m_article.html?no=118242

2. 여러분이 기념할 만한 일이나 슬픔을 나누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인지 써보고 그 일을 위한 상징물은 어떤 것을 세울 것인지 설계해 보세요.

기념하거나 잊지 않고 싶은 일	왜?
설치 장소	왜?
재질	왜?
디자인 및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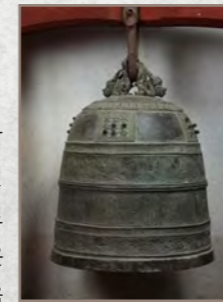


1 현등사 동종

◆지정번호: 보물 제 1793호

◆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이 동종은 원래 현등사의 본사인 남양주 봉선사에 봉안되어 있었던 것인데, 일제강점기에 현재의 현등사로 옮겨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종은 73.5센티미터의 아담한 크기로, 종을 여러 개의 구획선으로 나누고 그 안에 연잎무늬, 당초무늬, 파도무늬 등을 화려하게 새겨 넣어 장식성을 강조한 범종이다. 2마리 용이 서로 등을 맞대어 몸을 꼬아 만든 용뉴는 안정감을 주고, 두발을 힘차게 내딛어 천판을 들어 올리는 모습에서 역동감을 느낄 수 있다. 둥근 곡면을 이루는 천판에서부터 종의 입으로 내려오면서 조금씩 그 폭을 넓힌 종의 형태도 아름답다.



정도로 추정되며, 높이는 약 13미터, 둘레는 2.6미터이다.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조선 영조(재위 1724~1776) 때 영의정을 지낸 적이 있는 이천보의 선조가 심었다고 한다.

4 이천보 고가

◆지정번호: 문화재자료 제 55호

◆소재지: 경기 가평군 상면 연하리 226번지

◆조선 영조 때 영의정을 지낸 진암 이천보(1698~1761)가 살았던 집이다. 당시 건물은 모두 소실되고 현재 있는 건물은 고종 4년(1867)에 다시 세운 것이다. 한국 전쟁으로 안채는 모두 불에 타 버렸고 지금은 사랑채와 행랑채만 남아 있다. 사랑채—자형 건물로 앞면 6칸·옆면 1칸 반 규모이다. 왼쪽에 누마루를 두고 방·대청·방·부엌 순으로 이어져 있다. 누마루쪽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고 부엌 쪽은 옆면 지붕선이 사람 인(人)자 모양을 한 맞배지붕이다.



2 현등사 삼층석탑

◆지정번호: 시도유형문화재 제 63호

◆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현등사길 34 (조종면, 현등사)

◆현등사 내에 있는 고려시대의 탑이다. 현등사는 신라 법흥왕 때 인도의 스님 마라하미가 불교의 교리를 전하러 신라로 건너오자, 왕이 그를 위하여 이곳 운악산에 큰 절을 짓도록 하여 세워진 사찰이다. 그 후 황폐해 있던 것을 고려 희종 때 보조국사가 재발견하여 다시 건물을 짓고 '현등사'라 이름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건물들은 조선 순조 30년(1830) 때 암구 대사에 의해 새로 지어진 것들이다.



5 조종암

◆지정번호: 시도기념물 제 28호

◆소재지: 경기 가평군 하면 대보간선로 399 (대보리)

◆조종암은 큰 바위 암벽에 글씨를 새기고, 그 앞에 비석을 세운 후 단을 만들어 제사를 지내면서부터 불리운 이름이다. 조선시대 당시 명나라를 숭상하고 청나라를 배척했던 소위 송명배청의 사상을 잘 보여주는 유적이라 할 수 있다.



3 가평연하리 향나무

◆지정번호: 시도기념물 제 61호

◆소재지: 경기 가평군 상면 연하리 226번지

◆가평 연하리 향나무의 나이는 300년





1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

- ◆지정번호: 보물 제 1211호
- ◆소재지: 경기 동두천시
- ◆보물 제1211호로서 자재암에서 소장하고 있다. 당나라 현장이 번역한 『반야바라밀다심경』에 대해 법장이 해설을 단 주석서이다. 반야바라밀다심경은 줄여서 ‘반야심경’이라고도 부르는데, 여러 종파에서 공통적으로 읽고 외우는 보편적인 경전이다. 이 책은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에 송나라의 중희가 자신이 지은 『현정기』를 붙여 다시 편찬한 것으로, 『반야심경소현정기』라 부르기도 한다. 목판에 새긴 후 닥종이에 찍어낸 것으로, 세로 31센티미터, 가로 19.1센티미터의 크기이다.



2 동두천 광주정씨가 소장 고문서

- ◆지정번호: 시도유형문화재 제 207호
- ◆소재지: 경기 동두천시 안흥동 133-2번지
- ◆동두천 광주정씨가 소장 고문서는 광주정씨 성제공파 정수상 계열의 고문서로서 교령류, 소차계장류, 첩관통보류, 명문문기류 4종 61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자료 중 소차계장류의 호적 자료와 명문문기류에 속하는 분재기자료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들 자료는 당대의 경제적 실상을 잘 대변해주고 있으며 역사적 자료가 많이 부족한 동두천시의 과거 경제, 생활상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로써 사료적 가치가 높다.



경기도의 평화와 통일 유산



16차시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북한의 문화유산



고려 왕조 500년 도읍지이자
경기의 중심인 개성의
문화유산을 소개합니다.

생각
열기

경기 천년을 기념하는 행사 개최



여러분, 경기와 개성은 어떤 관계일까요? '경기京畿'라는 이름이 처음 지어진 것은 고려 현종 9년인 1018년 수도였던 개경과 그 외곽 지역을 '경기京畿'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입니다. 경기도는 이 기록에 따라 2018년을 경기 천년의 해로 지정하였답니다. 고려시대에는 수도였던 개성이 조선시대가 되면서 경기가 된 셈이죠. 고려 왕조 500여 년의 도읍지였으며 조선시대 경기의 중요한 지역이 바로 개성입니다. 북한에서도 개성은 아주 소중한 역사도시로 존중받고 있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성의 문화유산에 대해 한번 알아보까요?

문화유산
속으로
이야기 하나

개성, 경기 천년의 시작 그리고 통일의 씨앗



고려항공 개성 만월대 평창특별전.

2018년 평창 겨울 올림픽 기억하시나요? 남북단일팀 여자 아이스하키팀의 활약과 “영미 영미”를 세계적 유행어로 만들었던 평화의 창 평창, 겨울 올림픽.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지 않나요? 겨울 올림픽 기간 내내 평창에서는 세계의 관심을 모았던 아주 특별한 전시가 있었답니다. 인기 아이돌 가수가 홍보대사를 했던 ‘고려항공 개성 만월대’ 평창특별전입니다.

고려항공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평창특별전에서 관람객들은 고려 황제복을 입은 인기 아이돌 가수의 실제 크기 사진 옆에서 기념 촬영을 하기도 하고, 600년 전 사라진 고려의 정전 ‘회경전’의 모습을 디지털 영상으로 보기도 하였습니다. 또 남북공동 발굴한 고려 금속활자 모형으로 직접 도장을 찍어 보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3D 프린팅 기술로 실제 유물과 일대 일 크기로 완벽하게 재현된 복제 유물을 직접 만지며 체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가상현실 체험실에선 고려항공 만월대를 거닐기도 하였습니다. 남북공동발굴 현장을 재현해 놓은 전시에선 발굴 체험을 해 보고 발굴 당시의 사진과 영상 자료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고장 경기도의 ‘경기’의 의미를 새삼 느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였습니다.

‘경기京畿’란 이름은 고려 때 처음 시행된 이후 천년의 역사를 오롯이 품고 있습니다. 918년 고려 건국 후 100년이 지난 1018년 경기 제도의 시행은 고려 문화를 대표하는 경기 문화가 만들어지는 시작이었고, 고려와 조선 그리고 현재까지 천년을 이어 온 소중한 이름 ‘경기’입니다.

조선시대의 ‘경기’가 궁궐이 있는 한성부를 제외한 그 주변 지역이었던 반면에 고려시대의 ‘경기’는 궁궐이 있는 개성부를 포함한 지역입니다. 고려 500년 동안 경기는 바로 고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이었지요.

경기도는 2018년을 ‘경기 천년의 해’로 지정하고 다양하고 뜻깊은 행사를 열었습니다. 고려시대 경기의 중심 개성은 현재 북한의 황해북도 개성특급시입니다. 고려 시대에는 ‘개경’, ‘송도’, ‘송경’으로 불렸습니다. 고려 왕조 470여 년 동안 수도로서 한반도의 중심이자 고려의 모든 문물이 모여들었던 곳이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중요 도시 중 하나이자 국제적인 상업 도시였으며 불교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바로 그곳, 개성의 문화유산이 지난 201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개성의 역사 기념물과 유적은 고려 왕조 500년의 역사와 문화를 증명하는 12개의 개별 유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별 유산은 만월대와 개성 첨성대, 개성 성곽(5개 구역), 개성 남대문, 고려 성군관, 송양서원, 선죽교와 표충사, 왕건릉과 7개 왕릉과 명릉, 공민왕릉 등입니다.

고려의 옛 수도였던 개성의 풍수지리상 도시 배치, 궁궐·교육기관·고분군·성벽·대문 등은 역사적으로 중요했던 한 시대의 정치적·문화적·철학적·정신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천문 및 기상 관측소, 2개의 교육 기관 등의 기념물도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전부터 북한에서는 개성의 문화 유산들을 국보유적, 보존유적으로 지정하여 보존해 왔습니다.



경기 천년의 해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4·27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평화의 싹을 틔우고 튼튼한 나무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남·북 교류와 협력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고려시대 경기의 중심 개성으로 체험학습 가는 날을 함께 꿈꿔 보는 것을 어떨까요?

문화유산
속으로
이야기 들

조선 왕릉의 모델, 공민왕릉과 고려휘릉

고려 말 개혁신주 공민왕을 기억하나요? 공민왕은 왕비를 아주 사랑했던 왕으로도 유명합니다. 공민왕이 안장된 현릉과 왕비인 노국대장공주가 안장된 정릉을 합쳐서 공민왕릉이라고 합니다. 공민왕은 1365년 노국대장공주가 서거하자 정릉을 설계하고 1366년 5월부터 토목 공사를 직접 감독하였습니다. 공민왕의 아내에 대한 사랑과 뛰어난 예술적 기질이 함께 반영되어 이전의 왕릉들보다 석물 조각이 아름답고 정교해졌다고도 합니다. 공민왕은 3년 동안 고기를 먹지 않았고, 새로 임명되는 관리들과 사신으로 가는 신하들에게 반드시 왕비의 무덤으로 가서 궁중에서 하는 것처럼 예를 행하게 할 만큼 왕비를 사랑했답니다.



공민왕은 1366년 정릉을 조성한 뒤, 1372년부터는 정릉 옆에 자신의 무덤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1374년 9월에 서거하여 안장된 그 능 이름을 현릉이라 하였습니다. 능은 봉분과 가로로 긴 직사각형 모양의 평평한 3개의 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봉분은 화강암으로 12개의 돌판을 돌리고 각 면석에 구름을 탄 12지신과 연꽃무늬를 새겨 놓았습니다. 봉분이 있는 제1단에는 봉분 주위로 난간석인 돌담장을 돌렸습니

다. 봉분 바로 앞쪽에는 바둑판 모양의 석상을 설치하였으며, 난간석 바깥으로는 호랑이를 새긴 석호와 양을 새긴 석양을 번갈아 가며 배치해 두었습니다. 각 봉분 앞의 제1단과 제2단 사이에 각각 돌계단이 가운데 하나씩 있고, 그 앞에 장명등이 하나씩 있습니다. 제2단의 가장자리에는 문석인이 1쌍씩 마주보고 있습니다. 제3단에는 무석인이 1쌍씩 마주 보고 있습니다.



공민왕릉, 북한 국보유적 123호.

왕릉의 내부는 돌방 구조로 현릉과 정릉을 연결하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으며 돌방의 천정에는 각각 12지를 상징하는 인물과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왕과 왕비의 무덤이 따로 만들어지다가 공민왕릉에 이르러 처음으로 같은 곳에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특히 문석인과 무석인을 구별하여 세운 점 등 후에 조선의 왕릉에 모범이 되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고려는 공민왕릉을 짓고 난 이후 우왕과 창왕, 공양왕이 왕위를 계승하였으나 우왕과 창왕은 폐위되고 공양왕은 망국군주가 되어 조선 태조에 의해 군으로 봉해졌으니 제대로 된 왕릉이 조성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민왕릉이 고려의 마지막 왕릉인 것입니다. 공민왕릉은 북한 국보 유적 12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려의 다른 왕릉을 살펴볼까요?

왕건왕릉의 본래 명칭은 현릉으로 고려 태조 왕건과 왕비 신혜왕후가 함께 안장되어 있습니다. 송악산 부근의 만수산 기슭에 위치하며 943년에 조성되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나라에 전란이 있을 때마다 묘를 옮겼으며 지금의 능은 1994년에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정비한 것입니다. 명릉군明陵群은 고려 29대 충목왕의 능으로 알려진 만수산 중턱에 자리하는 3개의 능으로 어느 것이 명릉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능은 약 40~50미터의 간격으로 나란히 위치하는데 서쪽에 위치한 순서대로 제1릉, 제2릉, 제3릉으로 불립니다. 칠릉군은 태조 현릉의 서북쪽 능선인 만수산 서남쪽 언덕 기슭에 위치하는 왕릉급에 해당하는 7기의 능으로 무덤의 주인은 알 수 없지만 기록과 출토 유물로 미루어 볼 때 고려 후기에 조성된 능으로 추정됩니다.



왕건왕릉.



명릉군.



칠릉군.

문화유산
속으로
이야기 셋

충절의 상징이 된 정몽주, 그리고 선죽교

‘개성’과 ‘고려’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은 아마도 ‘포은 정몽주’일 것입니다. 정몽주는 고려 왕조에 대한 충절과 선죽교에서 이방원 일파에게 암살당한 극적인 죽음, 그리고 이방원과 주고받았던 시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인물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몽주를 충신으로 기리는 것은 조선 초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역설적이게도 정몽주를 살해한 태종 이방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려를 지키고자 한 정몽주가 조선 개국에는 걸림돌이었지만, 조선 건국 이후에는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추켜세웠습니다.

<이방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칫이 얽어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어져 백년까지 누리리라.

<정몽주>

이 몸이 죽고죽어 일백 번 고쳐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닢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개성에는 정몽주와 관련된 유적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선죽교·송양서원입니다. 선죽교는 고려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고려사』에서 최충헌 이야기 속에 나오는데 ‘선지교’라고 하였습니다. 조선시대 기록에 보면 선죽교라고 나오는 것으로 보아 원래는 선지교였는데 선죽교로 바뀌었을 것으로 봅니다. 최소한 900년 전부터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래는 난간이 없었는데 지금의 모습처럼 난간을 설치한 것은 조선 후기 정조대 왕 때인 1780년과 1796년 2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일입니다. 원래 선죽교의 옆으로 따

로 돌다리가 있는데 이것은 선죽교를 보존하기 위해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다리를 놓아둔 것입니다.

선죽교는 그 유래가 정몽주가 피살된 자리에서 대나무가 솟아 ‘선죽교’라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죽교의 옆으로는 ‘선죽교비’가 세워져 있는데 비석의 글자는 개성 출신 명필로 개성 남대문의 현판을 쓴 석봉 한호의 글씨입니다.



나혜석 작, 선죽교,
23cm×33cm, 유채, 1933년

송양서원은 개성시 선죽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선조 6년(1573) 개성유수¹ 나옹운이 정몽주와 서경덕을 추모하기 위해 정몽주가 살던 집자리에 송양서원의 전신인 ‘문충당’을 건립하였습니다. ‘문충당’이라는 명칭은 정몽주의 시호²인 ‘문충’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충’이라는 시호는 정작 정몽주 자신을 살해한 이방원이 임금에 오른 뒤 태종 5년인 1405년에 내려진 것으로 당시 태종은 정몽주의 벼슬을 영의정으로 높이고 익양부원군으로 그 지위를 올렸답니다.

2년 후 선조 8년(1575)에 임금이 내린 ‘송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액서원이 됩니다. 서원 마당의 좌우에는 2개의 비석이 있는데 오른쪽 비석은 서원의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 1811년에 세웠습니다. 왼쪽 비석은 대원군의 서원철폐령 때 개성의 유학자들이 송양서원을 유지하도록 요청하여 허락을 받고 수리한 후 그 내력을 적은 비석으로 1872년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정몽주의 묘소는 어디 있을까요? 개성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에 있습니다. 정몽주선생묘鄭夢周先生墓는 경기도기념물 제1호입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선생이 순절한 후 풍덕군에 묘를 썼다가 후에 고향인 영천으로 이장할 때, 경기도 용인시 수지면 풍덕천리에 이르자 앞의 명정³이 바람에 날아가 지금의 묘소에 떨어져 이곳에 묘를 썼다고 합니다.

용인에 있는 정몽주선생 묘소에 한번 가 보세요. 그리고 선죽교와 정몽주 선생을 마음 속에 그려 봅시다.

¹ 오늘날로 치면 개성시장.

² 죽고 난 뒤에 임금이나 나라에서 내려 주는 이름. 이순신 장군의 시호는 충무공이다.

³ 다홍 바탕에 흰 글씨로 죽은 사람의 품계, 관직, 성씨를 기록한 깃발.

생각 나누기



1. 정몽주와 이방원이 나누었던 시조를 써보고, 내가 이방원이라면, 내가 정몽주라면 어떻게 글을 썼을지 글을 써 봅시다.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정몽주가 이방원에게 하고 싶었던 진짜 이야기를 상상하여 적어 봅시다.

< 이방원 하여가 >

이런들 어떠하며

< 내가 다시 쓰는 이방원 하여가 >

< 정몽주 단심가 >

이 몸이 죽고죽어

< 내가 다시 쓰는 정몽주 단심가 >

생각 더하기

서경덕, 황진이, 박연폭포를 '송도삼절'이라고 합니다.

송도 3절은 황진이와 얽힌 이야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황진이는 당시 도학군자로 이름을 날리던 화담 서경덕 선생이 진실한 군자인지 거짓 군자인지 밝혀 보고자 했습니다. 모든 남성이 황진이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화담 서경덕만 큼은 그녀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화담 선생의 높은 덕망 앞에 황진이는 감복하여 그의 제자가 되기를 자청하고 자신과 박연폭포와 함께 송도삼절이라 칭송했다는 일화가 유명합니다.

1. 우리학교를 대표하는 3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 까닭을 써 보세요.

우리 학교 제1절	우리 학교 제2절	우리 학교 제3절
까닭	까닭	까닭



1 개성 남대문

- ◆ 지정번호 북한의 국보유적 제124호
- ◆ 개성시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개성 남대문은 우리 역사의 격동기인 고려말과 조선초의 당시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유적이다. 고려의 도성체계는 궁성-황성-나성의 3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천자국'을 지향하였던 고려인들의 세계관이 반영된 것이었다.

2 성균관

- ◆ 지정번호: 북한 국보유적 제127호
- ◆ 개성시 동북쪽에 위치한 고려 최초의 교육기관으로 지금의 국립대학에 해당한다. 본래 성균관의 자리는 고려 경종 때 별궁이 있던 곳으로 이후 송(宋)과 금(金)의 사신을 위한 객관인 순천관(順天館)과 유교 경전에 관한 사무를 보는 송문전(崇文殿)으로 사용되었다가 1089년 국자감(國子監)이 이곳으로 옮겨온 후부터 정식 교육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3 개성 첨성대

- ◆ 고려시대 천문관측을 위해 축조한 구조물로 고려궁성의 서쪽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고려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나 축조 시기는 명확하지는 않다. 현재 관측 기구를 올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재 구조물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4 표충비

- ◆ 송양서원과 마찬가지로 정몽주를 기리기 위해 조선시대에 조성된 유적이다. 개성시 선죽동에 위치한 선죽교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 표충비는 비각의 내부에 건립연대가 각기 다른 2개의 비석이 자리한다.



5 영통사

- ◆ 지정번호: 영통사 대각국사비(북한 국보 155), 영통사 오층석탑(국보 133호)
- ◆ 고려 현종 18년(1027)에 창건된 사찰로 고려 태조 왕건이 건립한 승복원 자리에 새롭게 지은 사찰이다. 본래 승복원은 태조의 증조부가 살던 암자를 확장한 사찰이었기 때문에, 영통사는 고려 왕실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찰로 고려의 역대 왕들이 자주 행차하였다. 또한 대각국사 의천은 영통사에서 출가하여 천태종을 열었다.



6 목청전

- ◆ 조선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 살던 집으로 태종 18년(1418)부터 태조의 초상화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으로 이용되었다.



경기도
지도



경기도 역사여행 [문화유산 편]

집필진

김봉수(남창초등학교 교사)
김진호(원곡고등학교 교사)
신대광(원일중학교 수석교사)
조성래(남창초등학교 교사)

감수	임기환(서울교육대학교 교수) 최종호(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그림	원유미
만화	임유영
편집·디자인	세상의 모든 아침
초판 1쇄 발행	2018년 8월
초판 3쇄 발행	2019년 8월
편찬·발행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전화. 031-231-8577
ISBN	978-89-999-0122-5 43900(비매품)

_이 책자에 담긴 모든 내용 및 자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으로 복사 또는 전재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